

2024 러시아학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트 이후의 포스트: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그 이후의 유라시아

제4분과 사회과학 분과


일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0:00~18:00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하나스퀘어 강의실 (B120호)

주관  한국노어노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공동주관  KRD 사단법인 한러대화
Korea-Russia Dialogue

공동개최  한국러시아문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KASEUS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KASL 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이 발표논문집은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4S1A8A4A0104352411)

CONTENTS

사회과학분과 A 분과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의 외교안보와 한반도

사회: 김선래(한국외대)

- 10:15~10:5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367
발표자: 김성진(덕성여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간사위원) / 토론: 제성훈(한국외대)
- 10:50~11:25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친중화와 한반도 379
발표자: 윤성학(고려대) / 토론: 최재덕(원광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 11:25~12:0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배경과 요인 403
발표자: 이지은(한국외대) / 토론: 성동기(인하대)

사회과학분과 B 분과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안보와 유라시아

사회: 김병호(매일경제)

- 13:00~13:35 ▶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417
발표자: 김영식(강릉원주대,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간사위원) / 토론: 강명구(산업은행 미래전략 연구소)
- 13:35~14:10 ▶ 러·우 전쟁과 카자흐스탄의 교역구조 변화 429
발표자: 염동호(한신대) / 토론: 박지원(KOTRA,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위원)
- 14:10~14:45 ▶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437
발표자: 변현섭(계명대) / 토론: 고주영(한국외대)

사회과학분과 C 분과주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시대 유라시아의 정치경제

사회: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 15:00~15:35 ▶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 AHP 분석을 중심으로 463
발표자: 이주연(한양대) / 토론: 장하영(경북대)
- 15:35~16:10 ▶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양상 473
발표자: 김유정(한국외대) / 토론: 윤영민(한양대)
- 16:10~16:45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라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동향 분석 483
발표자: 최배성(한양대) / 토론: 정선미(한국외대)

사회과학 분과

사회과학분과 A: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의 외교안보와 한반도

사회: 김선래 (한국외대)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367
 - 발표: 김성진 (덕성여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간사위원)
 - 토론: 제성훈 (한국외대)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친중화와 한반도 379
 - 발표: 윤성학 (고려대)
 - 토론: 최재덕 (원광대,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배경과 요인 403
 - 발표: 이지은 (한국외대)
 - 토론: 성동기 (인하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김성진 (덕성여대)

I.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적은 5기 푸틴행정부 외교정책의 성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안보 환경에 극적 변화와 국내 정치/경제적 변화를 촉발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중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3년 3월 ‘외교정책개념’을 발표했다. 분쟁중에 외교정책의 기초나 원칙이 발표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지만 중요한 외교/안보적 상황이 종결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전에 기본원칙이 발표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분쟁과정에서 외교정책개념 발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후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무엇인가? 2023년 문서에는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중국에 대한 언급도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쟁중에 외교정책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외교정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전쟁’ 이후 대외관계와 정책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보다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전망(한용섭 2023)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¹⁾ 러시아 외교안보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현승수 2023), 한반도/동북아시아(고상두 2023; 김선래 2021; 제성훈 2020; 홍완석 2019; 서동주/이상준 2018; 엄구호 2018)를 포함해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 대서구/유럽(이문영 2022; 고상두 2020), 근외지역 및 CIS국가들과의 관계(신범식

1)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국 정체성을 포함한 정체성(자이제프/김재훈 2021)이나 사조(Tsygankov 2010; Tsygankov 1997), 역사적 영향(제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가 ‘식민지’상실에 대해 다른 제국에 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등),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이주연 2023; 이주연 2021)과 국내정치, 전략사상 혹은 ‘전략문화’를 포함한 문화적 영향(김영준 2016), 그리고 국제질서 변화(최재덕 2020)와 지정학적 요인(서동주 2022) 등이 분석되었다.

2005), 미국(고재남 2021), 중국(조정원 2023; 박정호 외 2022; 조영관 2022), 아랍지역(김강석 2022; 강봉구 2016; 인남식 2016)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푸틴 행정부 나아가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도 지속되어왔다(우준모 2019).

II 러시아의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

러시아의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인식은 2007년 2월 푸틴 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표명되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입장은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초청한 이후 세계는 이미 새로운 질서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국제경제/국제정치학부장이며, 러시아 외교안보정책회의(Совет по внешней и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의장인 카라가노프(Сергей Караганов)를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다만 인식이 문서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와 같이 이미 2008.1 외교안보정책 개념에서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다른 가치체제와 발전모델을 둘러싼 갈등이 문명 차원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문명 정체성이 강화되는 과정이며(외교정책개념(이하 FPC) 2013), 문화/문명적 다양성과 복수의 발전모델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FPC 2016). 이러한 현상은 민족의식의 성장, 문화/문명적 다양성 증가, 그리고 다른 객관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새로운 경제/지정학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민주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FPC 2023, 7항).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어조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2008년 FPC는 핵전쟁을 포함해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13년 FPC는 핵전쟁을 포함 대규모 전쟁 위험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국가와 국가군 간의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공격 잠재력을 현대화/증강하고 신무기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안보구조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PC 2013 7항). 2016년 FPC는 핵전쟁을 포함해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 발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갈등의 발발과 이러한 지역갈등이 확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PC 2016 6항).

2023년 문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의 분쟁 확산을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대전 발발과 핵무기 사용위험을 제거하고 전략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전쟁에 대한 입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핵사용 언급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

아내 확전을 억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이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빈번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오히려 러시아의 핵 억지력에 회색지대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 문서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다. 2000년 FPC는 국제질서에서 냉전 결과 제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가능성 확대, 그리고 핵갈등 위협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경제, 정치, 과학, 기술, 환경, 그리고 정보 요인이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FYP 2000, 2장).

〈표 1〉 외교정책개념(FPC)에 나타난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FPC	내용
2008	최근 국제관계 발전은 냉전의 진정한 의미와 결과에 대한 다른 이해를 반영함.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적 경쟁이 다른 가치체제/발전모델 간 경쟁이라는 문명 차원의 성격을 띠게 됨
	세계화 과정에서 서구의 독점 상실 우려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심리적 봉쇄정책으로 표출
	양극 갈등의 제약요인이 극복되면서 현대 세계의 문화적/문명적 다양성이 증가
	핵전쟁 포함 전면전 가능성 감소
2013	[새로운 도전과 위기] 국제테러리즘, 마약, 조직범죄, 대량파괴와 운송체제 확산, 지역분쟁, 인구문제, 글로벌 빈곤, 에너지 빈곤, 불법이주와 기후변화 등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경쟁이 문명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문화/문명적 다양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13항)
	세계화 과정의 이면은 문명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임. 이 때문에 잘못된 문명 경계선의 충돌 방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문화, 종교, 문명 파트너십 형성 노력 강화에 우선성 부여해야 함(14항)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은 일방적 제재와 다른 강압적 조치로 위기를 관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음(15항)
2016	핵전쟁을 포함 대규모 전쟁 위험이 감소하면서 국가와 국가군 간의 군사력 균형이 변화되고 있음. 공격 잠재력을 현대화/증강하고 신무기를 배치하려는 노력은 글로벌 안보구조를 침해하고 있음(7항)
	세계는 다극체제 등장과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4항). ... 글로벌 권력과 발전 잠재력은 분권화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 향하고 있음. 이는 세계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해온 전통적 서구국가들의 권력을 침해하고 있음. 문화/문명적 다양성과 복수의 발전모델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음(4항)
	서구가 세계화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다른 세력의 중심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지역수준에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있음(5항)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이 증가되고, 글로벌 경제/정치체제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힘'은 국제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6항). ... 기존 군사/정치적 동맹은 당면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없음(7항). ... 군사력과 함께 한 국가가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제/법/기술/IT능력에서 중심부가 되는 것임(8항). ... 전통적 외교수단과 함께 '소프트 파워'는 외교정책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음(9항)
	핵전쟁을 포함해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 발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갈등과 확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음(6항)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전환'(technological shift)이 경제적 경쟁을 심화(escalation)할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권력 재분배를 가속화할 것임(12항)	
국제테러리즘 위협 증가는 오늘날 가장 실재적 위협임(14항)	

FPC	내용
2023	인류는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음. 보다 대등한 다극적 세계질서가 형성중임. 세계경제의 구조전환이 신기술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음. ... 비서구 국가와 지역의 지도적 국가의 주권과 경쟁적 기회가 강화되고 있음. ... 민족 의식의 성장, 문화/문명적 다양성 증가, 그리고 다른 객관적 요소들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새로운 경제성장과 지정학적 영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민주화를 증진하고 있음 (7항)
	현재 진행중인 변화는 글로벌 지도권과 신식민주의에 익숙한 국가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 ... 광범위 하게 확산된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파괴적인 신자유주의가 이식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정신과 도 덕 가치에 반하는 것임. 이 결과 국제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파괴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8항)
	국제관계에서 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전략적 중요 지역에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음(11항); 세계질서 위기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외부압력을 받기 쉬운 국가들간 협력 강화임(12항)
	전략적 안정을 위해 세계대전 발발과 핵무기/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안보구조 구축을 위 해 전략억지, 전략안정을 위한 국제조약, 전략안정을 위한 국제정치적 기반/레짐 마련, 군비경쟁 방지, 비핵지 대 보장, 재래군축,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자간 수출통제 강화 등에 우선성 부여 (27항)

III. 러시아의 자국 위상 평가

러시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에 따라 긍정적 평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스스로에 대해 1990년대와 2000년 초반 강대국이지만 여전히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2008년에 이르러 국익 보호와 글로벌/지역 수준에서의 안보 확보, 그리고 공동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 FPC는 러시아의 위상과 관련해 “강대국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세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인식은 2013년에는 국제 아젠다 설정에 기여하고 높은 경제성장, 천연자원 및 재정능력, 그리고 책임 있는 사회/경제정책으로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2013년 FPC는 러시아가 상이한 집단 간 공존 경험이 있는 다민족/다종교 국가로 지난 수 세기동안 문화, 종교, 문명 간 대화를 촉진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FPC 2013, 32(u)항).

러시아의 자신의 위상에 대한 평가는 2016년 FPC에서는 간소화되었으나, 2023년 FPC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3월의 FPC는 러시아를 글로벌 세력균형과 다극체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다수 인류와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와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국가-문명’(country-civilization)—이는 전통문화, 종교,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문서는 러시아에 대해 1천 년 이상 독립국을 유지하며 전통 유럽과 유라시아 문화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영토내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집단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해왔으며, 러시아 민족과 다른 민족을 러시아 문화/문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유라시아 및 유럽-태평양 국가라고 언급하고 있다(FPC 2023, 4항). 이와 함께 러시아는 중요자원 보유국,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장 강력한 두 핵 강국 가운데 하나, USSR 계승국,

2차대전 승리와 현 국제질서 형성과 식민지 질서 와해에 기여한 국가, 그리고 인류의 평화적 진보를 보장하는 국가로 설명되고 있다(FPC 2023, 5항).

〈표 2〉 러시아의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FPC	내용
2008	세계질서의 역동적/근본적 변화는 러시아와 러시아 시민의 이해에 영향을 주고 있음. 새로운 러시아는 국가이익에 기반해 국제문제에 대한 완전한 역할(full fledged role)을 획득함
	안보리 상임이사국, G8과 권위 있는 국제/지역기구 및 정부 간 대화/협력기구 참가국, 그리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서 러시아는 주요 국가/기구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정치/경제에 통합되며, 새로운 국제관계 구조 발전에 심대한 영향(substantial influence)을 행사할 것임
	러시아는 글로벌/지역적 수준에서 안보 유지의 책임을 완벽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문제 해결에 관련된 모든 다른 국가들과 공동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러시아는 군비경쟁 재개와 같이 국가경제에 파괴적이고 국내 발전에 재난 같은 값비싼 대결에 연관되지 않을 것임
2013	러시아 외교정책 우선성의 새로운 비전은 국제적 아젠다 설정 및 국제체제 형성과 관련해 강화된 러시아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음(3항)
	모든 영역에 대한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주요국/동맹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엔 안보리와 영향력 있는 국제/지역기구, 그리고 국가간 대화/협력기구 참가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구성원으로서 ... 러시아는 글로벌/지역적 문제해결과 아젠다 설정에 기여하고 있음(23항)
	러시아는 세계/지역수준에서 안보 유지의 특별한 책임을 잘 이해하고, 이해당사국들과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음
	상이한 민족, 인종, 종교집단의 조화로운 공존 경험이 있는 다민족/다종교 국가로서 UN체제와 여타 국제/지역기구에서 지난 수세기동안 문화/종교/문명 간 대화와 파트너십을 촉진해옴.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해 다양한 신앙과 상호작용해왔으며, 극단주의, 불관용, 차별, 인종, 종교, 언어, 문화 등이 기초한 차별에 대항해옴(32(u)항).
	높은 경제성장, 독특한 자연/재정 자원, 책임 있는 사회/경제정책으로 러시아는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위기를 방지/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재정지원을 해왔음(33항).
2016	UN 안보리, 영향력 있는 국제/지역기구, 그리고 국가간 대화/협력기구 참가국으로서 러시아는 긍정적/균형적/통합적 국제 아젠다 설정에 기여함(20항); 러시아는 글로벌/지역적 수준에서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책임을 확고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당사국들과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21항)
2023	1천 년 이상의 독립국, 문화유산, 전통적 유럽/유라시아 문화와의 깊은 역사적 유대, 단일 영토내에서 상이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집단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해온 능력은 러시아 민족과 다른 민족을 러시아 세계의 문화/문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러시아의 독특한 ‘국가-문명’(country-civilization)과 방대한 유라시아/유럽-태평양 국가로서의 지위를 결정(4항)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모든 영역에서의 중요한 자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주요 정부간 기구/협회 참여, 가장 강력한 두 핵강국 가운데 하나, USSR 승계국에 의해 결정됨. 2차대전 승리와 현 국제체제 구축, 그리고 글로벌 식민지 체제 제거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러시아는 단결되고 건설적인 아젠다에 기초한 인류의 평화적/진보적 발전 조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력균형과 다극체제 건설이라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발전의 주권적 중심 가운데 하나임(5항).
	서구의 비우호적 행위들에 대응해 러시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존재 권리와 발전 자유를 방어할 것임. 러시아는 호혜적인 국제협력의 확대라는 명백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의 지정학적 벡터에 기초해 창의적 에너지에 집중할 것임. 다수의 인류는 러시아와의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고, 글로벌 안보와 국가들의 평화/발전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글로벌 세력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음. 이는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성공적 활동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있음(14항)

IV. 러시아의 자국 위상 평가

1.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러시아 외교정책 개념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대략 6개 정도로 제시되었다가 2023년 경제와 인도주의적 협력 영역에서 일부 항목이 분리 기술되면서 9개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대등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으며, 국제안보문제에서도 ‘평화’가 추가되었다. 국제경제/환경 협력분야도 경제협력과 국제개발, 러시아의 해양, 영공, 우주에서의 이해 확보, 환경보호와 보건으로 세분화되고, 인도주의적 협력과 인권분야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인권 및 러시아 시민과 동포 보호로 세분화되었다.

〈표 3〉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2008/2013	2016	2023
새로운 국제질서 대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질서	대등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
국제관계에서 법 우선	국제관계에서의 법치	국제관계에서의 법치
국제안보 강화		국제평화와 안보 강화
국제 경제/환경 협력		국제 경제협력과 국제개발 지원
		러시아의 국제해양, 우주와 영공에서의 러시아 이해 확보
		환경보호 및 글로벌 보건
국제 인도주의적 협력과 인권		국제인도주의 협력
		해외 불법적 침해로부터 러시아시민/조직 보호; 해외 거주 동포 지원, 인권분야 국제협력
외교정책 활동에서의 정보 지원		

특히 2023.3 외교정책개념에서는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문화적/문명적 정체성 모든 국가의 발전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FPC 2023, 18항). 이를 위해 평등한 국가 주권과 발전모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존중, 국제문제에서의 헤게모니 거부, 균형된 이해와 상호호혜에 기초한 협력, 국내문제 불간섭,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에 의한 통치, 글로벌/지역 수준에서의 안보 불가분성, 그리고 문화/문명, 사회조직 모델의 다양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였다(FPC 2023 18항)

2. 지역적 우선순위

외교정책의 지역적 우선순위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안보문서들은 2016년까지는 근외지역/CIS 국가, 유럽과 EU/NATO, 미국, 아태지역과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순서로 언급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기술해왔다. 특히 러시아는 NATO의 동진

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2008년의 경우 러시아는 NATO의 군사적 인프라이가 러시아 국경으로 근접하는 것과 함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회원국으로 초청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2013년 문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2016년 문서는 EU/NATO가 지정학적 확장을 지속하고 유럽공동 안보협력틀 구축에 반대함으로써 러시아-서구 간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08년 러미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13년 문서에서도 러시아는 EU가 여전히 주요 경제/교역/외교 파트너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유대를 강화하고, 군비통제 영역에서도 건설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문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지역적 안정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여전히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 필요를 안고 있으며, 러시아의 중요한 경제/외교정책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 우선순위(5장)와 관련해 2023년 문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외교정책개념은 지역/국가 언급 순서, 서구와의 평화공존 가능성, 개별 국가에 대한 언급 자제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2023년 문서는 무엇보다 근외지역, 북극, 유라시아 대륙/중국/인도, 아태지역, 이슬람 세계, 아프리카, 남미와 카리브해, 미국과 앵글로 색슨 국가들, 남극의 순으로 기술하고 있어 서구에 대한 입장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문서는 서구와의 ‘평화공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문서는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선린/상호호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OSEC와 같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공존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러시아와의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과 상호호혜적인 대등한 협력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안보와 유럽지역 복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 이는 러시아가 그동안 언급해온 ‘단일 안보공간’에 대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도 집단으로서의 ‘서구’의 공세적 반러정책의 고안자이며 조직자이고, 실행자로 규정하면서도, 미리 양국이 핵 강국으로서 전략안정과 국제안보 전반에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 균형, 미국과의 평화공존, 미러간 이해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문서는 미러관계의 핵심은 미국이 주권적 평등, 상호호혜, 상대방의 이익 존중에 기초해 힘의 주도 정책과 반러시아 정책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23년 외교안보개념이 이전 문서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단위의 기술이 강조되고 개별국가들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과 관련해서도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전에 비해 분량이 감소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언급도 삭제되었다. 이는 동 문서가 서구와의 ‘평화공존’ 가능성과 그 조건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일 수 있다.

2) 러시아는 유럽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의 모델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을 제시하고 있다(59조 3항).

V. 외교정책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외교정책개념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러시아의 강화를 서구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자신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취한 조치를 빌미로 반러시아정책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FPC 2023, 13항). 동 문서는 서구의 이러한 행태가 러시아의 문명적 역할, 국력, 경제/기술력, 그리고 국내의 정책에서의 주권 제한, 그리고 영토 통합성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FPC 2023).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에게 있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인 보호와 우크라이나 내 ‘나찌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을 넘어 오랜 기간 지속된 NATO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서구의 독주를 차단함으로써 다극체제의 발전을 앞당기는 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 내 ‘자유주의 잔재’를 척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든 이미 주민선거를 통해 병합한 돈바스지역 확보와 이를 통한 이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명분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동 전쟁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의미 부여가 쉽지 않은 전쟁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관심은 아태지역과 중국이라는 거둬들인 천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과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확전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 핵 강국인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기 쉽고 이 역시 전략관계 안정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론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와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협상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영토의 20%를 포기하고 1939년 ‘겨울전쟁’ 후 핀란드와 같은 주권 제한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을 띠는 이유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관련국들의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서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공세 수준에 맞춰 방어할 수 있는 수준 혹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제한적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친 것도 전략적 실패 이전에 확전에 대한 우려와 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군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제한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유사하다. 한국전쟁도 미국에게는 동아시아에서의 현상타파가 유럽에서의 현상타파—예를 들어 서베를린 점령—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이러한 우려는 유럽 동맹국에게도 공유되었다. 중국의 군사도발을 계속 경고해온

미국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전개, 즉 정치/군사적 문제를 분리해 군사적 활동을 먼저 중단하고 정치적 협상을 지속하는 방식의 휴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 영토 할양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러시아의 ‘점령’ 상태가 유지되면서 갈등하는 ‘정전’ 혹은 냉각된 분쟁(frozen war) 상태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정전’ 상태 유지는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막는 방편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정전’ 상태 유지를 위해 군사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틀에서 군비증강과 갈등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갈등구조가 형성되면 접경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군관구의 재설정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시아내에서는 이미 핵억지전략을 재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2차대전후 미국이 핵억지를 통해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면서도 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이 경우 군비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안정을 위한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단절에 대해 ‘과학/기술 독립’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과학기술의 높은 서방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안보 위협이며, 과학/기술 발전에서의 주도가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데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국가안보전략 2021, 68항). 러시아는 과학/기술영역에서의 발전이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수준 제고의 핵심요소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국가경제의 제도적/구조적 조정, 경제 기본영역에서의 강도 높은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발전모델 간의 경쟁 혹은 체제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경쟁은 러시아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구의 발전모델을 선택하지 않은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우려도 있다.

VI. 나가며

러시아의 외교정책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문명’에 대한 언급은 국제질서의 위협이 발전 모델과 가치를 둘러싼 ‘문명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국가-문명’은 러시아가 서구와 다른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인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러시아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러시아의 경우 ‘문명’은 소비에트 시기의 개념과 다르며, 탈자유주의적 전통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발전모델과 가치를 둘러싼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쟁과정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명갈등에서 첨단기술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문명갈등이 지속될 경우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분리’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외교문서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중러관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명갈등 과정에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비우호적 국경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NATO 가입은 1,340km에 달하는 핀란드-러시아 국경이 비우호적 국경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비우호적 국경의 확장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군관구를 군사개혁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군사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³⁾ 또한 비우호적 국경의 증가와 인접국의 군비증강, 외국군 주둔, 소지역 군사협력 강화는 러시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군비증강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차대전 이후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방어 필요성과 방위비 절감이라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억지정책을 발전시킨 상황과 유사하다. 2023년 외교정책개념의 핵억지에 대한 언급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실험과 배치, 그리고 핵억지전략 수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핵억지전략 수정과 관련해 북한도 유사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비우호적 국경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호국경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국경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관계 혹은 동맹관계의 재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모자이크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부터 첨단 무기 체제를 결합한 무기체제 구축과 운영 능력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소모전에서 포탄과 탄약 소비가 평상시 한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물량을 쉽게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맹관계에서의 단순한 지원약속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발트국가의 공군력 통합운영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례와 같이 전장물자를 인접국에서 생산하는 등 생산설비 공유나 전쟁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분산 비축/공유와 같은 형태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에서도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핵억지전략 수정과 유럽의 군비경쟁은 동북아지역과도 연결되어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동맹관계의 세분화 혹은 동맹 수준에 따라 차별적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색시대가 감소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정책 수립/이행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갈등과정이라기보다 갈등과 협력/대화를 병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문

3) 2024년 2월 푸틴 대통령은 2010년 국방개혁으로 서부군관구로 통합되었던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러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관구 부활...나토 확장에 대응,”『연합뉴스』, 2024.2.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7002400080> (검색일: 2024.3.10)

명갈등과 함께 미국을 포함해 비우호적 국가와의 ‘평화공존’ 언급하고 있다. ‘평화공존’ 논의는 통제된 방식의 갈등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적대적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고 러시아는 물론 남북한 대화창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Леонтьева К., Кузьмичев П, “Как меняется кинозритель в России: демография, паттерны кинопотребления, сегментация.” Синемаскоп. Вып. 1. (61) (2018).
- 강봉구. 2016.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6(2), 1-33.
- 고상두. 2020. “유럽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요인.” 『슬라브학보』 35(1), 1-21.
- 고상두. 2023. “우크라이나 전쟁의 동북아 지역 영향과 한국의 대러 전략 및 과제.” 『슬라브학보』, 38(2), 159-180
- 고재남. 2021.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계간 외교』 137, 217-235.
- 김강석. 2022.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정책과 중동 영향력 확대 모색.” 『중동문제연구』 21(2), 1-31.
- 김선래. 2021. “러시아의 공세적 동북아 외교안보정책과 對한반도 접근 전략.” 『슬라브학보』 36(2), 53-82.
- 김영준. 2016. “푸틴의 전쟁과 러시아 전략 사상.” 『국가전략』 22(4), 153-182.
- 서동주. 2022. “미·중 복합 지정학적 갈등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및 대응.” 『국가안보와 전략』 22(2), 37-76.
- 서동주/이상준. 2018.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러시아연구』 28(2), 111-140.
- 신범식. 2005.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4), 103-139.
- 엄구호. 2018.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중소연구』 41(4), 163-188.
- 우준모. 2019. “푸틴주의의 외교적 구현: 실제와 함의.” 『동유럽발칸연구』 43(4), 129-169.
- 윤지원. 2018.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3), 83-104.
- 이문영.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쟁점과 여론.” 『슬라브학보』 37(3), 79-115.
- 이주연. 2021. “러시아의 對중국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브레처 모델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2(4), 105-138.
- 이주연. 2022. “카자흐스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요인 분석: 브레처 모델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32(1) 173-205.
- 이주연. 2023. “러시아 對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VICS 기법을 통한 러시아 외교결정자 운영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27(1), 1-31.
- 이주연. 202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對러시아 외교적 입장 분석.” 『중소연구』 47(3), 215-242.

- 인남식. 2016.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2(1), 163-186.
- 자이체프/김재훈. 2021. “왜 러시아는 “대국정체성”을 외교에서 최우선시하는가?: 2015년 시리아 위기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관한 실증연구.” 『러시아연구』 31(2), 201-238.
- 제성훈. 2020. “푸틴주의와 한반도: 2000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 『슬라브학보』 35(1), 53-85.
- 조영관. 2022.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분석: 교역, 금융, 기술,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7(1), 199-230.
- 조정원.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슬라브학보』 38(3), 73-104.
- 최재덕.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외교전략 : 중러·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4(3), 49-85.
- 한용섭. 20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질서의 향방: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 『계간 외교』 144, 17-32.
- 홍완석. 201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 『슬라브학보』 34(1), 235-261.
- Mearsheimer, John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93(5)
- Tsygankov, Andrei P. 1997.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to Revolutionary Expansionism: the Foreign Policy Discourse of Contemporary Russia,”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2), 247-268.
- Tsygankov, Andrei P. 2010.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Lanham: The Rowman & Littlefield.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친중화와 한반도

윤성학 (고려대)

I. 머리말

중국의 부상과 친중화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어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¹⁾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반응, 미·중 관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등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찾아보기 쉽지만 중국의 부상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행보가 이 지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친중화가 어떤 계기로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고 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정한 국가나 한두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앙아시아 전체에 걸쳐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대응도 물론 이겨리와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가 왜 친중화 될 수밖에 없는가를 구조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친중화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체 지정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종합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023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제1차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는 중국식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무대였다.²⁾ 시진핑 주석은 ‘시안 선언’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이 선택한 발전 경로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보전 수호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 뒤에는 중국식 모델을 제

1) Wang, Hongying, “The Global Rise of Pro-Chinaism: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1(132): 2002. pp. 388-407. ; Gallagher, Mary E., “The Political Economy of Pro-Chinais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30 (113): 2021, pp. 1165-1185. Zhang, Jie, and Wang, Xuezhi, “The Rise of Pro-Chinaism in Asia: Drivers,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2023.23.

2) Lixin, Wang (2023). Th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Advocate cultural mutual respect & mutual learning, promote civilization prosperity & progress. Retrieved from http://mv.china-embassy.gov.cn/eng/sgsd/202305/t20230520_11080670.htm.

시한다. 여기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대통령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 식 현대화가 세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2년에 한 번 개최하기로 했다. 2023년은 중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친중화가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회의는 중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급격히 친중화 되고 있다. 전쟁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우려하면서 탈러시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서방과 러시아를 대신해 중앙아시아 투자에 나섰다 무역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중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쏟고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의 친중화를 통해 향후 국제정세를 고찰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찾아볼 것이다. 친중화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친중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의미한다. 즉 친중(pro-China)과 친중화(pro-Chinaization)는 다르다.³⁾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지정학적 성격 때문에 균형 외교를 추진해왔으며 러시아의 강력한 존재감으로 중국 선호는 강하지 않았다. 중국은 2014년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를 대체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2023년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대한 중립적 태동에서 친중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체제 전화시키기부터 한국을 가장 유력한 협력 국가로 생각하고 실제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은 크게 진전되었다. 중앙아시아 국민 사이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가장 좋으며 반면 중국은 견제해야 할 국가로 간주한다.⁴⁾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가 친중화고 가게 되면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중간지대인 한반도도 친중화의 압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우리는 다행히 그 위기를 감지하고 극복하는 중이다. 한국의 경험은 친중화의 위기에 지면한 중앙아시아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중립지대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II.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배경과 전략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최우선

3) Yang Zixiao, David Zweig, “Does Anti-Americanism Correlate to Pro-China Sentiment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2, Issue 4, Winter 2009, Pages 457–486.

4) 윤성학,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국익인 국가통합을 위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견제해야 했고, 특히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세력과 연계된 범튀르크 민족단체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9.11 테러 이후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미국에 대한 대항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창설했다.⁵⁾ 중국의 대중아시아 정책은 SC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다자외교 실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구로 평가된다.

SCO 외에도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며 마찰을 피하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탈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특히 에너지 투자에서 잘 보인다.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에 대한 막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천연가스 부국에 투자했는데, 중국의 수입 노선 다변화정책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망이 되었다. 2009년 12월에 개통한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은 중국의 첫 역외 가스관이자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스관 프로젝트로 중국의 대중아시아 투자의 가장 큰 성과가 되었다. 2009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무역량이 처음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의 무역량을 넘어섰으며, 이후 이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공급을 위해 중앙아시아와 더 밀착하고 싶지만, 핵심적인 동맹국인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중앙아시아 진출을 조심스럽게 추진했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와중에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배려해야 한다는 사고와 중앙아시아 진출의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와 경쟁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조화시켜야만 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개발을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중국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외교와 안보는 러시아의 입장에 따르고, 경제는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2014년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의 공식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 무역과 투자, 개발협력 등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 중국 특유의 비밀주의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65개국 수혜국에서 추진된 일대일로의 GDP 평균 기여율이 0.22~0.82퍼센트 사이라고 주장하지만⁶⁾ 정확한 통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아시아에서의 일대일로 경제적 성과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 기간에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교역은 매우 증가했는데,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은 35퍼센트, 중국의 대중아시아 수출은 49퍼센트 증가했다.⁷⁾

5) Alexander Luk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 New Regionalism in the Making?” *International Affairs* 93, no. 1, 2014. pp.23-25.

6) Jean-Christophe Defraigne,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the challenge of the BRI: a comparison of their respective impact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Russia’s regional leadership,”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2021, VOL. 62. p. 683.

중양아시아에서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EU가 지원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개발협력은 차관의 조달과 집행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투명성을 이유로 절차가 복잡하다. 무엇보다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중국의 개발협력은 대부분 양자 관계에 기초한 MOU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WTO 정부조달 합의’를 생략하고 있어 신속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국 국가융자(sovleign loan)의 낮은 책임성, 일대일로 참여 기업들의 낮은 사회적 책임감,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문제로 일대일로의 진행 과정에서 부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대일로 사업의 융자는 주로 ‘조건부 융자(tied loan)’로 진행되는 데 이에 따라 정부 로비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국 기업은 필요한 원자재와 노동력 역시 중국에서 들여온다. 실질적으로 일대일로 수주기업의 89퍼센트가 중국 기업이고 토착 기업은 7.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⁸⁾

또한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의 이자가 ODA에서 ‘유상자금협력(loan assistance)’을 상회하는 금리가 채택되는데, 어떤 경우는 8퍼센트를 넘길 정도로 개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이자율의 결과로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융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여러 국가의 심각한 부채 문제로 이어진다. 개발을 위한 융자금을 중국에 약속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광산, 토지 등에 대한 권한을 중국에 일정 기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중양아시아 영향력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으며, 중양아시아 국가들 또한 대외 팽창과 무력 행사에 노골적인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중국은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도모하고자 한다. 문제는 중국이 중양아시아의 기존 패권국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 중양아시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상이 추락하자 더 공격적으로 이 지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중양아시아에서 친중화는 중국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친중화를 친중으로 바꾸기 위해 중양아시아에 대한 문화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양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상쇄시키고자 소프트파워 정책을 친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은 공자 아카데미(孔子学院, Confucius Institute)이다. 중국은 공자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국 지역연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

7) China and Central Asia: Bilateral Trade Relationships and Future Outlook”, CHINA BRIFING, 2021.05.20,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and-central-asia-bilateral-trade-relationships-and-future-outlook/> (검색일: 2022.06.22).

8) 심치어 라오스 고속철 사업의 경우 5만 명의 중국 노동자가 투입되었으며, 중양아시아에서도 중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중국인 노동자가 현지에 들어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이 높은 중양아시아 주민의 반발을 샀다. 윤성학, “중양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研究》 vol.35, no.1, 2019, 32쪽.

양한 모금을 시행하고 있다.⁹⁾

III. 친중화의 개념, 추진전략, 한계

1. 친중화의 개념과 계량화

친중화는 주로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외교적 지원이다. 친중화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이나 기타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정책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 표명을 하거나,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합니다. 둘째, 정치적 협력이다. 친중화는 중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무역과 투자의 확대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할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경제적인 이유로 친중을 선택하게 된다.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인 부류이다. 친중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프라 개발이나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심화시킨다.

넷째, 문화적 측면으로 친중화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유학생 교류, 문화 행사, 관광 협력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중국 문화와 역사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다섯째, 안보 협력으로 친중화 국가들은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를 증진시키고, 공동 군사 훈련이나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방어력을 증진한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로는 파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은 친중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관 모두 중국에 대해 형제국 수준의 친근감을 보이고 있다.¹⁰⁾ 실제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는 중국과 중국인에게 우호적인 파키스탄인 반응을 중국판 국뽕 TV의 소재로 많이 써먹고 있다. 오늘날 파키스탄 경제가 일대일로로 어려워지면서 친중 감정이 빠르게 식고 있지

9) 중국의 문화 공세는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표되는데, 2004년 이래 140여 개 국가에서 500여 개의 공자학원(100여 개는 미국)과 1,000여 개의 공자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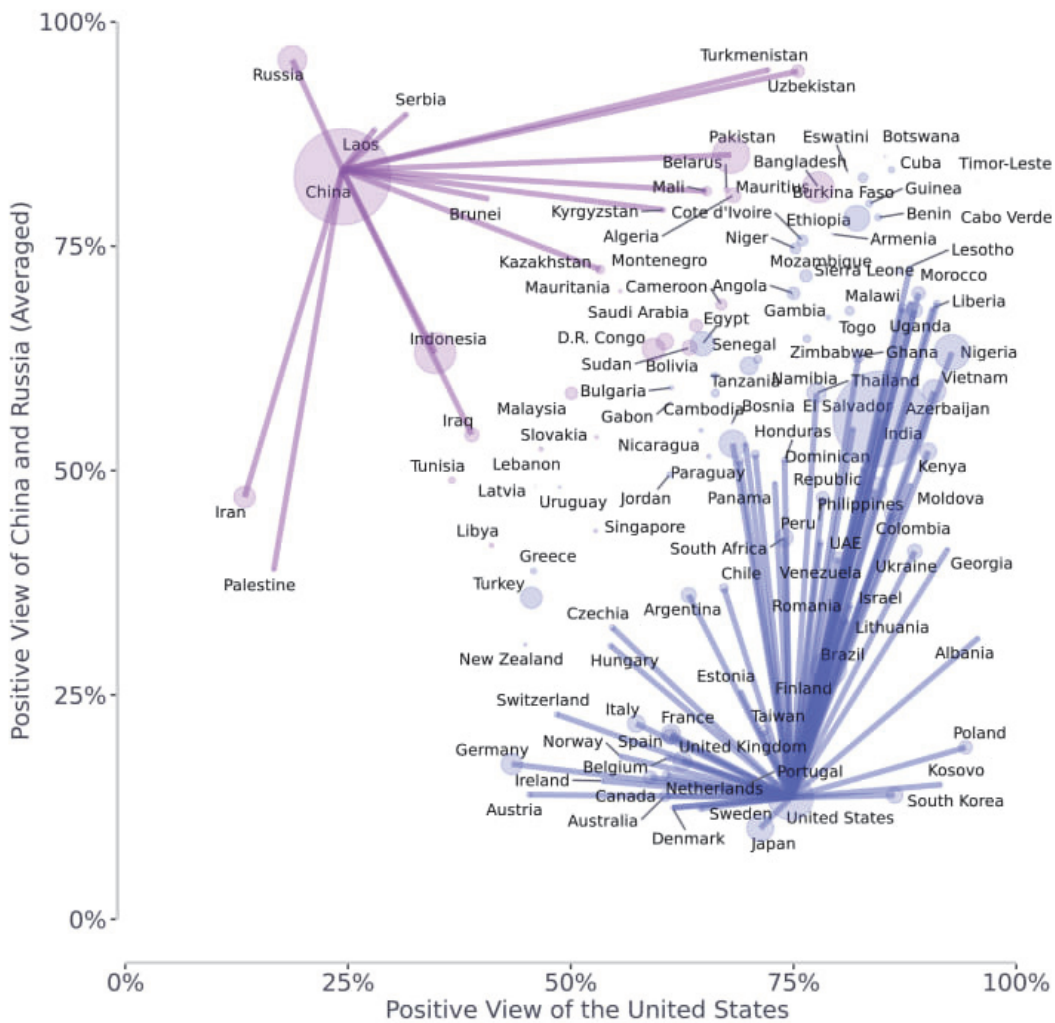
10) 파키스탄과 중국에서는 서로를 철의 형제(iron brother, 巴鐵)라고 부른다.

만 여전히 대표적인 친중화에 성공했다.

친중화의 계량, 즉 친중화 정도를 수치화하거나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지표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주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의 총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친중화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을수록 친중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직접 투자(FDI)와 해당 국가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을 비교하거나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수와 규모를 측정하여 친중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전 세계 공공 여론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지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X축)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비율을 보여주며, 세로축(Y축)은 중국과 러시

5. The New Structure of Global Public Allegiances



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평균 비율을 보여준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의 굵기와 색상은 국가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낮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은 국가들은 러시아, 라오스, 세르비아, 이란, 팔레스타인 등이며 이들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높고,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낮아 친중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간 위치 국가들인 파키스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모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림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들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태도 만으로도 전세계 국가를 친중화를 판단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태도를 통해 친중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가 시진핑 주석과 그의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35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국 국민들이 시진핑이 세계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는 신뢰 여부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신뢰가 낮고(예: 미국 79%, 캐나다 74% 신뢰하지 않음), 반면 태국(63%), 싱가포르(63%), 케냐(64%) 등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공식 성명에서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분석한다. 시진핑 주석과의 공식 회담 및 방문 횟수와 그 성과를 평가한다. 즉 친중화 정책은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목표와 중국과

친중화의 성공 여부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외교 전략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 경제적 유인과 함께 문화적, 정치적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지는 의심스럽다.

2. 친중화의 추진전략

중국은 친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전략으로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과 교류를 추진하여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과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제 무대에서 협력하여 상호 지지를 이끌어낸다.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국과의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과 공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의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협력안보를 실현하며,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운명공동체 개념의 구체화, 정책목표의 명료화, 정책실행의 체계화가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중국은 경제 전략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경제 협력을 촉진하거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간의 상호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중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여 인프라 개발, 경제 회랑 구축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 축제와 예술 공연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학생 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또한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안보 협력을 통한 친중화 추진한다. 양국 간, 다자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안보 정보를 공유한다. 테러리즘, 마약 밀매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중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개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향후 동남아 5개국과의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지역 외에도 중동 국가들과 안보 연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처음으로 합동 공군 훈련을 시도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협의체인 RIC 합동 군사훈련도 재개되는 추세이다.

친중화는 한마디로 중국 중심 블록 확대이다. 미국 중심의 블록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도 다양한 중국 중심의 협의체를 확대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많은 지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은 막대한 경제 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협의체를 주도해 온 경험이 있다.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어떻게 활용해갈지가 주목된다. 미국의 안보·가치 동맹 강화 및 G7 활용에 대한 대응으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확대, 브릭스(BRICs) 확대, G20 확대 등 개발도상국 혹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의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들과의 진일보한 협의체 및 구상들을 전개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친중화 전력은 인프라 개발이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거나 양국 간의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고 국제질서의 진영화 추세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강조는 미국 주도의 진영 확대에 대한 대항 진영을 확보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며,

중국의 전략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실제 2023년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2023년 7월 상하이협력기구는 이란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하였으며, 향후 회원국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6개국이 정식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어 총 11개국 모임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이 연대하여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¹⁾ 실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권을 강조한 글로벌 발전구상을 위해 100억 달러 출자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중남미 지역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6개월 만에 발표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2023년을 기준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참여국은 152개국으로 늘어났고, 중국과참여국 간 무역액이 1.04조 달러에서 약 2.07조 달러로 2배 이상, 연평균 8% 이상 성장하였으며, 상호누적투자액이 2,700억 달러, 중국기업의 해외건설 누적투자액은 571.3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동기간 약 42.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¹²⁾ 특히 일대일로는 미국과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 운영에 불만이 있던 개발도상국들에 많은 매력을 어필하였다.

중국은 2023년 글로벌 문명구상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진핑 국가주석의 다양한 외교담론과 글로벌 발전구상, 글로벌 안보구상 등을 종합한 중국판 신질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문명의 다양성과 공유된 인간 가치에 대한 존중, 다양한 문명유산과 혁신에 대한 존중, 국제적, 인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구상은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강조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꿈꾸는 국제질서는 국가 간 이념적 선을 긋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문명구상은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경쟁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중국의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구상은 실제로 친중화 정책의 추진전략의 핵심인 공자학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친중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과 이데올로기적 편향, 경제적 갈등,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 외교 수단은 서방 국가들에서 경계를 받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은 부채 함정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중국의 친중화 노

11) “시진핑, 브릭스에 개도국 더 참여해야...경제강압 함께 반대하자,” 『연합뉴스』, 2023.8.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164700083>> (검색일: 2023.9.5.).

12) “我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貨物貿易額十年均增長8%,” 『新華社』, (2023.3.2.), <https://www.gov.cn/xinwen/2023-03/02/content_5744191.htm> (검색일: 2023.9.6.).

13) “習近平在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高層對話會上的主旨講話,” 『新華網』 (2023.3.15.),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15/c_1129434162.htm> (검색일: 2023.6.12.).

력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만든다.

3. 친중화의 한계

미국을 추동한 역사관은 무엇인가? 비록 미국 또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최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공감한 대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성, 인권의 중요함, 자유와 개인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인권에 대한 운동,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며, 또 관타나모 등 자국의 악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하며 규탄할 수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인권운동가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억압받는 소수민족 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가 보편적 울림이 있었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러한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는 역사관에는 이런 보편성이 없다. 중국 공산주의 역사관은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정치적 목표를 반영하여 역사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특히 중국 공산주의 역사관은 강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외세의 침략과 중국 인민의 저항을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이끈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 공산주의 역사관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통치를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지만 외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중국의 역사관이 보편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종종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특정 사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은 보편적인 역사관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친중화의 한계는 이러한 보편성 결여와 함께 문화적 차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친중화의 가장 큰 한계이다. 다른 국가들은 고유한 역사,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문화와 이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은 친중화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경제력인데 이것도 곧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력하지만, 이는 때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대일로 같은 프로젝트는 때로 수혜국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는 친중화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타지키스탄의 정부청사와 의회건물 등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재밌는 점은 4년간 건물을 짓는데, 중국근로자 700명과, 타지키스탄 근로자 400명이 열심히 일했다. 건설 현장이 타지키스탄인데 중국인이 더 많이 와서 일한 것이다. 건설사도 당연히 중국건설사이며, 노동자들도 대부분 중국인이다. 결과적으로 타지키스탄에게는 막대한 부채가 남고,

중국 국영은행이 빌려준 돈은 중국건설사와 중국노동자들이 거의 다 가져간다.

일대일로 사업은 수혜국을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킨다.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낮추며,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IV.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의 친중화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에 미친 영향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에 초래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기침체였다. 당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가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러시아가 자국산 곡물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식료품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도 비산유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물가상승과 함께 루블화 폭락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화폐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여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은 러시아 이주노동자의 송금액 감소이다.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는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많다. 2021년 기준 타지키스탄은 약 200만 명, 키르기스스탄은 약 155만 명, 우즈베키스탄은 약 400만 명¹⁴⁾이 러시아에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데, 타지키스탄은 국가 GDP의 약 40퍼센트, 키르기스스탄은 약 30퍼센트, 우즈베키스탄은 약 10퍼센트 정도를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으로 송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들 국가 경제는 힘들게 되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약 1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이고 실질 가계 소비율도 약 2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경제에 뜻밖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유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경제도 좋아지게 되었으며, 가스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도 회복 효과를 낳았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는 중앙아시아 국가가 러시아 수출 기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품을 수입하지 못 함에 따라 그 상품을 수입하는 우회 창구로서 중앙아시아가 부각된 것이다. 러시아는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은 주로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이 생산하는 일상 공산품은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로 국경

14)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제외한 이주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약 400만 명의 이주노동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주한 것이고 불법 노동에 가깝다.

에 세관이 없어 수입 트럭은 무통과로 시장에 직접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에 제조 기업을 설립하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인과 자국의 젊은 인력이 대거 중앙아시아로 이주함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뜻밖의 주택과 건설 시장의 활황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거부하는 러시아 성인, 약 5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는데, 약 20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약 10만 명, 키르기스스탄에 약 2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 이들은 가족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러시아인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고 볼 수가 있다.

러시아인의 중앙아 이주에 대해서 현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특별히 담화문을 발표해서 국민에게 러시아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며, 자국 이주에 엄격한 우즈베키스탄마저도 젊고 능력 있는 러시아 인재를 환영한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이주한 성인 남성들은 고학력자와 IT 분야 젊은 인재들이 많다. 이들 인재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한 자원이고, 이들은 현지 기업에 취직하기보다 창업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에 있는 아파트와 사무실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현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부차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였다. 전통적으로 친러 국가였던 중앙아시아는 처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으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러시아의 전쟁 실패로 인해 중립으로 돌아서거나, 심지어 반러시아로 돌아서기도 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논의하다가 역풍을 맞아 언론사 사주 등이 구속되었다.¹⁵⁾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2022년 3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기권하거나 아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등 중립적 자세를 보였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반전 시위나 시민단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는 ‘Z’ 표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민이 러시아군의 참전하는 경우 처벌을 경고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위협 때문이다. 이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가 침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약 20퍼센트가 러시아와 7,644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불과 얼마 전에 러시아의 군사개입 덕분에 간신히 정권을 연장하였지만,¹⁶⁾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푸틴을 규탄하는 시위를 허용했다. 시위가 엄격히 금지된 카자흐스탄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배후 조종했기 때문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의 병력 파병 요청도 거부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경유

15) RFE/RL's Kyrgyz Service, March 04, 2022. (검색일: 2022년 5월 21일).

16) 2022년 1월 카자흐스탄 시위에서 반정부 세력은 러시아 공수부대 3천 명이 투입되면서 급속히 무너졌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해 러시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모두 끊고, 반면 유럽 국가들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중립을 넘어 반러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¹⁷⁾ 이것은 카자흐스탄 북쪽에 다수 러시아인이 사는 것을 고려한다면 카자흐스탄 또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분쟁에 휩싸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유럽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이탈한 수백 개 서방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징집 명령을 피해 탈출한 러시아인 수만 명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서 벗어나면 다른 중앙아 국가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토카예프의 공약대로 헌법도 고치고 7년 단임제로의 정치개혁이 실행되어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강대국은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민주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탈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영향력이 미미했던 미국은 이 기회에 아프가니스탄을 견제하고 중국의 배후 공간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국무부 인권특사, 국무부 차관보, 고위 미군 관계자 등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며 안보적 협력을 모색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파리로 초청하여 새로운 협력을 강화했고, 샤를 미셸 유럽의회 의장이 카자흐스탄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유럽은 역사나 지리와 무관하게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의지를 인정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를 지지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협력 규모도 크지 않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을 러시아 견제와 향후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중앙아시아 최대의 무역 및 투자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한 투자와 개발협력, 자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외면하기 어렵다. 다행히 중국은 아직까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패권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은 2022년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잘 나타난다.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푸틴 면전에서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과거 소련처럼 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상들과의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기로 악명 높은 푸틴 대통령이 정시에 도착해 인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정상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으며, 시진핑 주석

17) <https://thediplomat.com/2022/03/how-ukraine-could-remake-kazakhstans-relationship-with-russia/> (검색일: 2022년 5월 21일).

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는 토카예프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달려갔다. 시진핑은 이에 고무된 듯,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말했고, 토카예프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¹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투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은 중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현지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발 부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정부 부채를 대신해 광산, 토지, 에너지 이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¹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쟁보다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미·중 분쟁이라는 더 큰 대외 변수에 의해 협력을 선택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주고 공산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후퇴하면서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친중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에서 힘의 이동을 가져왔다. 러시아와 중국의 양강 구도에서 친중화가 진행된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역내 역할 감소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러시아 주도 역내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CSTO 일환으로 타지키스탄에 주둔하던 자국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이동시켰는데, 이것은 CSTO의 주목적인 아프가니스탄 관련 안보 보장에 위험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분쟁이 2021년 4월 이후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친중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중국 주도의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의 빈번한 개최이다. 중국은 2023년 5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산시성 시안에 불러 모아 첫 번째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

18)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ays State Visit to Kazakhstan, Confirming Excellent Relations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THE ASTANA TIMES*, 14 SEP., 2022.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19) 윤성학,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研究》, 2019,

의를 개최했다. 중국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사이에 중국과 중앙아 5개국만 모이는 대면 정상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기에 그동안 중국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정상회의의 기회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확고한 우군으로 만드는 데 십분 활용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안보와 경제 관련한 러시아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 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2023년 7월 4일 23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보다 중국의 존재감이 주목받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그 빈 공간을 채웠다. 시진핑 주석도 SCO 회원국들이 ‘세계 개발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이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국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⁰⁾ 또한 시진핑 주석은 SCO가 지역 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모든 회원국과 세계 안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며,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SCO 회원국들 가운데 인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뉴델리 선언(New Delhi Declaration)에 서명하였다. 뉴델리 선언에는 SCO 국가들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가스관과 철도 등 지역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최근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개의 새로운 철도 노선 프로젝트다. 현재 중국의 유럽행 화물은 철도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러시아를 통과한 후 동유럽으로 운송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가 부과되자 이 노선의 운송이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은 유럽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철도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5월, 키르기스스탄은 동쪽의 중국과 서쪽의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CKU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각 나라의 철도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573킬로미터의 신규 철로를 만드는 것이다.²¹⁾

이렇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안보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고민하는 것과

20) 세계 개발 이니셔티브는 시진핑 주석이 2021년 국제연합(UN)에 제안한 이니셔티브로, UN의 지속 가능한 목표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21) 현재 이 구간의 화물 운송에는 35일이 소요되는데, 이 철도가 부설되면 불과 4일로 단축된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화물 통과료 수입을 벌게 될 것이고, 불안한 말라카해협 대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서남아시아 해운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중국의 계획은 힘을 얻을 것이다.

비슷하게 ‘안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전략을 취해 왔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지역의 안보를 담당해 왔던 러시아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실질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2023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중앙아시아에서 힘의 이동은 안보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자기들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원조물자를 보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1월에 물가 인상과 관련된 시위에 러시아가 2,500명의 군대를 보내 시위진압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6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을 앞에 두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 중요하며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공화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 내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다음 공격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이 되어야 한다는 협박을 받을 정도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역전이 일어난 것은 중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안보와 안정 때문이다. 이전에 러시아는 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안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지만,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 것이다. 중국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국경을 공유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지대 강대국이 되었다.

경제의 역전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 중심의 인프라라는 발전을 제약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중국이 구원자로 등장한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운송 회랑 건설은 극동에서 유럽으로의 대륙 횡단 수송에 대한 러시아의 계획에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을 러시아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²²⁾ 경제적으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미 러시아를 추월하였는데, 2021년 러시아-중앙아시아 교역은 약 186억 달러로 중국의 2/3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많은 이들이 애써 부정해 왔던 블록 정치화, 블록 경제화의 흐름을 확실하게 못 박아버렸다. 러시아와 중국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와 상당수의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은 반서양, 반민주 블록으로 묶일 것이다. 그리고 반민주 블록이 기대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중국의 경제력이다. 중앙아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극적으로 친중화 되고 있으며 힘의 역전을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 중앙아시아의 친중화

중앙아시아에서 친중화가 강력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압도적 영향력 때문이다. 중

22) А. Ларин и В. Матвеев, “Кита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продвижения на Запад» и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 2014, С. 10.

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중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개도국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반중 정책을 펼치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경제적 이유로 친중을 선택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1분기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교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작년 말 기준 이들 5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액은 15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를 통해 석유·가스 광업, 가공 및 제조, 상호 연결,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의 친중화를 가속화시켰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대안으로 간주한다.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상품은 압도적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자동차 시장도 중국산 자동차로 재편되었다. 서방이 중앙아시아에 투자를 외면하는 사이, 중국의 제조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 등 광물 자원도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 경제는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7월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64억 달러였고 수입액은 1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 중 중국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26.8퍼센트 상승한 182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7.6퍼센트 상승한 7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수출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 규모는 12.3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55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중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 수출한 가스의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국가는 타지키스탄은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 규모는 21억 1,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보다 84.7퍼센트나 성장했다. 중국 관세청은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규모가 6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²³⁾

중앙아시아의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와 무역 불균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최대 차입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일대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파산해 버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으로 주로 광물, 철강, 화학 관련 상품을 수출하며,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 기계, 장비, 도자기, 유리, 소비재 등을 수출한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자원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해서 카자흐스탄에 부가가치를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카자흐스탄에서 제조업은 위협받고 있으며, 중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2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54402&mid=a102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 2023년 10월 9일).

정치의 친중화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주의 동맹의 확산이다. 시진핑은 2022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자신의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중국 공산당 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영구집권, 독재체제를 완성했다. 정치의 친중화는 1인 혹은 과도제 독재가 구축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반민주 체제 혹은 독재체제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왔다.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든든한 후원자인 러시아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가 유라시아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중앙아시아 엘리트들에게 오히려 위협 요소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독재자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력한 전쟁 수행 능력은 중앙아시아 독재자들은 실망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안보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러시아에 반대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강대국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국내 반란에 대한 안전 보장이다. 러시아는 한때 국내 안정의 주요 보증수표였다. 2022년 1월에는 반정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대를 카자흐스탄에 파견했다. 소련 이후의 관계로 인해 한때 중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역전되었다. 러시아의 무능력과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의 인기는 점점 낮아지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군의 주둔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러시아를 대신할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중국 서안에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불러 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 집행, 안보, 국방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²⁴⁾ 이 수사는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안면인식 기술과 고도의 SNS 통제 기술의 수출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찍이 투자지원·인적교류 등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대외 확산을 의미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응하는 개념이다.²⁵⁾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중을 용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독재자라도 중국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독재자들도 중국의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시안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 정부,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이 인권 유린과 문화·종교적 탄압을

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19/xi-says-china-ready-to-help-central-asia-boost-defense-security>. (검색일 2023년 9월 23일)

25)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Notes on the New Physics of Global Power,” *Foreign Policy*, 139(3), 2004, pp. 44-56.

'반테러' 조치로 규정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중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했다. 신장 지역에서 중국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위구르 이슬람 소수민족과의 연대 대신 베이징과의 관계를 선택했다. 지난 30년 동안 타지키스탄은 정부군이 지난해 수십 명의 시위대를 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는 등 고르노-바다흐산 지역에서 반군 활동으로 간주하는 활동을 종종 진압해왔다. 이웃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난해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서 2005년 안디잔 학살 이후 최대 규모의 정치적 폭력 사태가 발생해 정부 관리들이 21명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부상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이러한 반인권 행위에 대해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외면하고 있다.

2023년 중국 시안에서 막을 내린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담은 15개 항 '시안 선언'에서는 더욱 긴밀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안보 협력과 관련, "중점 프로젝트, 대형 이벤트의 안전 보장 경험의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라고 밝혔다.²⁶⁾ 즉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법 집행과 안보·방위 능력 건설을 강화하도록 돕고, 각국이 자주적으로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테러 세력에 맞서도록 지원하며,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전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중앙아시아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러시아가 빠졌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안보의 친중화는 이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의 안보의 친중화 현상은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미국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정치적 쇠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V. 결론

중국은 글로벌 G2에 등극한 이후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도 고압적이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사드 공세, 한복, 김치 논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의 친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일종의 열등감에 기반한 피해자 의식이다. 소위 지난 100년 동안의 치욕을 딛고 일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변 국가에는 숨이 막히는 공포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서사는 나에게 피해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나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자기중심적 서사이다.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타국이 설 곳은 없으며, 인근 국가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부정

26) <http://www.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112&category=114&item=&no=37140>. (검색일 2023년 9월 23일).

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 중국의 서사는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비전과 서구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가치라는 두 가지이다. 중국몽은 전통적 중국과 사회주의 현대성의 결합, 특히 중국식 발전모델과 유교 문명, 전통 중국 가치와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결합한 비전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치욕의 백 년’이라는 지난 역사적 불의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와 중국 민족의 행복을 성취하며, 중국이 과거 누렸던 합당한 자리인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작업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를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마오쩌둥이 중국의 독립을 이루었고, 덩샤오핑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면, 세 번째 ‘신시대’는 중국몽이 구현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중국몽은 주변 국가, 혹은 세계의 친중화로 추진된다.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친중화가 추진되고 있는 나라는 서남아, 동남아와 중앙아시아가 있다. 파키스탄 등 서남아의 경우 다른 대안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중화와 친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동남아의 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는 최근까지만 해도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지렛대로 삼아 친중화에 저항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친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 널리고 널린 ‘부패한 권력자’를 파고들어 자기편으로 만드는데 능숙하다, 이런 중국의 대외정책에 서구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서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독립을 유지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처지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왔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존중받아 왔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수행하였으며, 한류라는 소프트파워를 구축했다. 지리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한국이 과거 식민 지배자였던 러시아, 중국, 일본, 같은 튀르크 국가인 터키보다 더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국가보다 한국에 대해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성장 모델을 자신들의 미래로 간주한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중국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은 얼굴이 너무 닮은 같은 형제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친중화는 한국의 상대적 침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 분야에서도 러시아를 대체해나가고 있다. 일대일로가 추진될 당시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크게 저지하지 않고 적어도 안보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정치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으며 안보도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목표를 글로벌 중추국가에 두고, 그동안 동북아에 국한된 우리 외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우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어떠한 차이도 없다. 프랑스와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국익을 고려한 독자적인 외교 전략이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전략에서는 독창성이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이 미국 전략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주요 대상은 중앙아시아 국가이다. 인간안보,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역내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과 갈등을 한껏 고조시킨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거의 포기했다. 대중국 관계에서도 균형을 포기한 외교정책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도 발을 부치기 힘들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과 연대를 유지할 때 한국의 신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친중화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험이 심각해지는 이 지역에 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방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혁신과 제조 능력에서 세계적인 국가이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지역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한류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프트파워를 확산하고 지구촌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가치와 함께 평화, 공존, 환경, 보건 등 인간안보라는 주제로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수천 년 역사를 교류하였다. 한국이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한국의 국력은 뻗어나갔다. 중앙아시아 국가 또한 고립되지 않고 외부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국운이 융성하였다. 유라시아의 북방 초승달 지대인 중앙아시아는 한국에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보고다. 또한 거기에는 30만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소통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 모든 패권 국가들을 견제하고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대륙과 해양을 중계하고 중재하는 교섭자(negotiator)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논문

- 강봉구, “틀립 혁명 이후 키르기스스탄 재민주화의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2009.
- 고재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다자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2010.
- 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비교경제연구》 제 17권 1호, 2010.
- _____,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비교,” 《세계정치》 13, 2010.
- 김충환, “중앙아시아 수피즘 운동과 선교적 교훈”, 《신학정론》 제39권 2호, 2021년.
- 윤성학, “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슬라브研究》, 2019.
- 이영형,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평가: 지리환경변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10.
- 정세진, “중앙아시아 민족정체성 및 민족주의 연구: 포스트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07.
-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2023.

영문 논문과 단행본

- Adeeb Khalid,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dism in Central As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Alexander Luk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 New Regionalism in the Making?” *International Affairs* 93, no. 1, 2014.
- Alisher Ilkhamov, “Not the Tulip revolution all over again, www.eurasianet.org”, 2010.4.8.
- Amin Tarzi, “Islamic State–Khorasan Province”, in *The Future of ISIS: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8.
- Boyle, Michael J. “False Flag Operations: A Historical Overview,”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 40, no. 3, 2017.
- Bosworth, C.E., *The Ghaznavids: 994–1040*,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3.
- Bruce Pannier, “What Does China’s One Belt, One Road Project Mean For Central Asia?,” Gandhara, 2016.
<http://gandhara.rferl.org/a/china-central-asia-obor/28112086.html> (검색일: 2018년 12월 20일).
- Clodfelter, Micheal, *Warfare and Armed Conflicts, a statistical reference, Volume II 1900–91*, McFarland, 1992.
- Dani, A. H.; Masson, V. M.; Harmatta, J.; Puri, B. N.; Etemadi, G. F.; Litvinski, B. A.,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Unesco, 2005.
- Gretchen Peters, *Seeds of terror : How drugs, and crime are reshaping the Afgan war*, Picador, 2010.
- Grozin A., “Influences of World Centers of Powers on Kazakhstan and New Geopolitical Trend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Institute for Central Asian and Caucasian Studies. №. 3(39), 2006.
- Ian Bremmer, “The Future of Geoeconomics: Regional Divisions and Global Disord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3(3), 2020.
- Neunherz, R, E, “‘Hemmed In’: Reactions in British Columbia to the Purchase of Russian America”, *The Pacific Northwest Quarterly* 80, 1989.
- Paul Georg Geiss, “Turkman tribalism,” *Central Asian Survey*, Vol.18, No.3, 1999,

- Werner Baer, "Import Substitu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7, 1972.
- Willmott, H.P, *First World War*, Dorling Kindersley, 2003.
- World Bank, "Kyrgyz Republic GDP Growth Rate 1987-2022", 2022.
-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What Now : the 1975 Dag Hammarskjold Report o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pared for the Seventh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75.

러시아어 단행본과 논문

- Ашимбаев М.С. и Лаумулин М.Т.,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2002.
- А. Ларин и В. Матвеев, "Кита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продвижения на Запад» и «новы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 2014,
- Владимир В. Путин,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2 декабря 2012г,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news.kremlin.ru/news/17118/print>.
-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 С. Стнкевич,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 с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Российские Вести*, 27/02, 1993; "Трансформированная Россия в новом мир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1992.

인터넷 사이트

-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ays State Visit to Kazakhstan, Confirming Excellent Relations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THE ASTANA TIMES*, 14 SEP., 2022. (검색일 : 2022년 12월 1일).
<http://www.press-service.uz/en/news/4618/> (2020년 4월 3일 검색).
<https://tass.com/world/1385187> (검색일 2023년 7월 5일).
- "China's President Xi Jinping Pays State Visit to Kazakhstan, Confirming Excellent Relations Between Neighbouring Countries", *THE ASTANA TIMES*, 14 SEP., 2022. (검색일 : 2022년 12월 1일).
- "Let Our Ancestors Inspire Us, Nazarbayev Says on 550th Anniversary of Kazakh Khanate", *THE ASTANA TIMES*, 14 SEP., 2015. (검색일 : 2022년 12월 1일).
- "Путин о Казахстане: «У казахов не бы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31 Август, 2014. (검색일 : 2022년 10월 9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배경과 요인*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 배경과 결정요인

- I. 서론
- II. 선행연구: 다극화된 중앙아 국제환경, 역내 다자협력/ 지역협력, 지역주의
- III. 중앙아시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의 흐름 (러, 중, 미 → 러, 중 → 러, 중 + α)
 - 1) 소연방 붕괴 후 다극화된 중앙아 국제환경 (러, 중, 미)과 강대국 간 경쟁
 - 2)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부활, 미국의 영향력 축소, 러-중 간 협조와 경쟁
 - 3) 러-우 전쟁(2022) 이후
- IV. 개별국 내부 결정요인
 - 1) 정권 생존
 - 2) 강대국 관리
- V. 2018년 이후 다자협력 사례와 특징
 - 1) 정상회담, 2) 의회 간 포럼, 3) C5+1
- VI. 결론

2

* 현재 미원의 글임으로 인용을 삼갑니다.

I. 서론

- 최근 중앙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 강화 양상
- 러-우 전쟁 발발 후 중앙아 5개국과 외부 국가/지역(러, 중 이외)으로 구성된 ‘C5+1’ 다자플랫폼 증가
- 2018년을 기점으로 중앙아 역내 활성화된 협력이 어떤 구조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중앙아 내부적 어떤 요인이 최근의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을 촉진하는지?
 - 중앙아 역내 환경과 질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구조적 요인(다극화, 강대국 간 경쟁, 러중 밀월 관계, 러-우 전쟁 여파)
 - 중앙아 내부적 요인(국가 건설 완료, 정권 안정화 확보, 러/중 확장에 대한 위기 인식 공유, 강대국 관리 등)
- ⇒ 중앙아 국제환경은 강대국 간 경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힘의 역학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극화된 공간, 이러한 상위 구조가 가진 특징에 따라 하위 구조를 구성하는 중앙아 5개국의 대응 행위 역시 변화
- ⇒ 최근의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촉진 역시 중앙아 역내 형성된 질서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중앙아 전략적 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중앙아 국가들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

* 그동안 왜 역내 중앙아 간 협력이 미미했는지에 대한 것은 해당 연구 대상이 아님

3

II. 선행연구 – 중앙아 국제 환경

- 소연방 이후 중앙아 역내 구조적 특징은 다극화(multipolarity),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으로 특징
- 이러한 상위 구조 아래서 중앙아 개별국의 ‘생존’ 전략 가동
 - 국가건설과 체제전환 진행, 정권 안정 및 유지는 곧 국가 생존과 직결
 - 강대국 경쟁 속에서 주권 강화: 중앙아 중소국은 다극화된 역내 질서를 활용하여 자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과제를 지원,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을 선택하고, 협력 강도를 조정하는데 집중, 그러나 중앙아 국가들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앙아 국가들은 역외 다른 국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대외노선 다각화를 중요한 대외전략 설정

4

II. 선행연구 – 중앙아 국제 환경

- 냉전 붕괴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EU에 의해 중앙아시아에 형성된 다극체제는 상위 행위자들은 물론 중앙아시아 중간 단위, 약소국가들까지 세력균형을 통해 안보 구축과 자국의 실리 추구를 위해 다양한 층위의 동맹 경쟁에 나서게 됐다; 중앙아시아 국제환경이 다극화됨에 따라 러시아, 중국, 미국과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 간 경쟁은 가속화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전방위 균형, 실리 외교를 주요 대외정책기조로 채택(박상남 외, 2014)
-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형성된 질서: 역내 여러 행위자의 정치적 행위를 질서에 대한 수용과 준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 중앙아 질서의 핵심 '규칙(rule)'은 불가침/불간섭, 영토보전, 다자참여를 통한 강대국 세력균형, 정권 안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주권, 외교, 국제법, 권위주의, 그리고 강대국 관리 등과 같은 '제도(institution)'에 의해 작동, 보호, 유지, 정당화된다(Buranelli, 2023).

5

II. 선행연구 – 지역주의, 다자협력

-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주의 혹은 다자협력 선행연구 동향: 중앙아 내 지역주의 부활,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 5개국 정상회담 등 새로운 과정이 기존의 메커니즘이나 조직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내 협력 촉진하는 데 유리, 외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으로부터 자율성 유지에 기여(Patnaik, 2019)
- 반면, 그 이전에 진행된 다수의 연구는 소연방 이후 중앙아 내 지역주의는 실패 혹은 지역주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Collins, 2009; Allison, 2008; Rosset and Svarin, 2014 등):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은 현실이지만, 정치적 및 제도적 협력이 부족해 그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Linn, 2012). 중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의 실패가 주로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 경제의 대외 의존성과 외부 강대국의 영향 때문(Krapohl, 2019), 러, 중 주도의 EAEU나 SCO를 중앙아 지역기구 내지는 중앙아 지역주의의 한 부분으로 설명, 강대국 주도 아래 '수직적' 다자협력을 특징으로 분석(Patnaik, 2019). 중앙아 정권의 신후견주의제는 중앙아 지역 차원의 안보, 경제, 정치 시스템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기에 역내 지역주의 활성화는 어렵다(Buranelli, 2021) 등

6

II. 선행연구 – 지역주의, 다자협력

-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화 과정이 외부 세력의 경쟁에 의해 좌우, 이러한 외부 영향력은 협력의 분열 초래, 그러나, 2016년 이후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적 정체성 강화에 대한 기대도 생겨나고 있음(Park, Adibayeva, Saari, 2003)
- 중앙아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나온 가장 최근 연구는 최근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집권 이후 (2017), 중앙아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 역내 중앙아 주도의 협력을 중앙아 국가 간 정치, 교역, 인적 교류의 통시적 비교로 대폭 상승함을 증명 (주송하, 2024)
- 중앙아 현지에서 바라보는 최근의 협력 양상: 중앙아 지역주의, 다자협력이 아직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회담이나 의회 간 포럼 등을 통한 다자협력 증진은 중앙아 국가들에게도 장기적 이익이며, 중앙아 환경에서 강대국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평가, 향후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그 근거로 최근 합의에 이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위원회를 예로 제시 (Kushkumbayev and Nuriddenova, 2024)

7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 1) 소연방 붕괴 후 다극화된 중앙아 국제환경 (러, 중, 미)과 강대국 간 경쟁
- 2)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부활, 미국의 영향력 축소(아프간 전쟁 종결, 미군 완전 철수), 러-중 간 협조와 경쟁
- 3) 러-우 전쟁(2022) 이후

8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1) 소연방 붕괴 후 다극화된 중앙아 국제환경 (러, 중, 미)과 강대국 간 경쟁

- 1991년 소연방 붕괴, 중앙아 내 다극화 진행, 러, 중, 미 등 상위 행위자들의 세력 경쟁 심화
- 중앙아 중소규모 국가들의 전방위, 균형외교 실시: 다극화된 중앙아 국제환경이 중소국가들로 하여금 강대국 간 경쟁을 이용해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
- 1990년대 중앙아에서 러시아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미국과 서방의 진출 시작, 미군 기지 키르기스스탄(2014년 철수)과 우즈베키스탄(2005년 철수) 내 주둔, 카자흐스탄은 서방의 지원 하에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 진행 및 나토 + 파트너십 훈련(NATO+pfp) 실시, BTC 라인 개발 등

=> 중앙아 개별국도 역내 형성된 강대국 경쟁 구도 속에서 자국에, 더 정확히는 정권 안정에 조력할 강대국들과 연계성을 강화

9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2)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부활, 미국의 영향력 축소, 러-중 간 협조와 경쟁

- 부활하는 러시아: 중앙아 내 존재감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기구(Eurasec-> EAEU) 출범, CSTO 안보 우산 제공, 자원 정책(파이프라인 정책)으로 중앙아와 연계성 강화
- 경제적 팽창 시동거는 중국: SCO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 질서 형성에 가담, 카자흐-중국, 투르크멘-중국 간 파이프라인 개통, 자원수출에서 중앙아 내 지분 확보, 일대일로 추진

=> 중앙아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강화

- 축소되는 미국: 2005년 우즈베크 안디잔 사태 후 미군 철수, 2014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계획 발표와 키르기스 주둔 미군 철수, 2021년 미군 철수 완료 => 미국의 중앙아 내 직접적인 영향력 축소
- 러-중 간 협력과 경쟁: 아프간 철수 이후 러, 중이 중앙아 질서 공동 관리, 양국 관계 비교적 협력적 유지로 중앙아 국가들은 양자 선택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10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3) 러-우 전쟁 이후: 도전받는 러시아, 기회를 활용하는 중국, + α

- 도전받는 러시아: 현재까지는 중앙아 역내 질서를 구성하는 중심 행위자, 대체 불가 세력
-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교류(러시아나 유럽 입장 모두에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우회, 대체지로 부상)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 러-카-우 '가스 동맹' 실시, 중앙아5+러 정상 회담(2023) 및 양자회담 지속, => 전쟁 여파로 러시아-중앙아 관계가 표면적으로 급격히 경색되지는 않음
- 다만, 전쟁 전과 비교하여 러시아 영향력은 도전받고 있고 대 러 경계심은 급증
- 2021년 키-타 국경 분쟁 시 러시아 중재 제안 거부, 당시 제 3자 없이 당사국 간 문제해결 의지 피력, 즉, 역내 이슈에 러시아의 참여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선언
- 중앙아5개국 간 정상회담 정례화, 다양한 C5+1 추진

11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3) 러-우 전쟁 이후: 도전받는 러시아, 기회를 활용하는 중국, + α

- 중국의 경제 침투 심화: 러-우 전쟁 이후 중국의 중앙아 침투는 더욱 심화 양상(교역량은 이미 러시아 추월),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 대한 중앙아 내 우려 급증, 경제협력 다각화 필요성 공감
- EU, 터키, CCASG, 독일, 인도 등의 새로운 행위자 등장과 중앙아 주도의 협력 개시
- 다자협력 주도권 강대국 -> 중앙아 5개국으로 일부 이양
- 2018년 이전까지 러시아, 중국, 미국 주도적, 수직적 협력,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이 주
- 강대국 주도 다자협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개별국 이해관계(정권 안정, 경제적 투자)가 일치하면 함께, 아니라는 판단일 경우 탈퇴 (우즈벡 사례: CSTO 탈퇴와 EAEU 가입 보류/ 카자흐, EAEU 협조적, 투르크멘 중립국 노선 등)

12

III. 1. 중앙아 구조적 특징: 역내 질서 흐름

3) 러-우 전쟁 이후 : 도전받는 러시아, 기회를 활용하는 중국, + α

- 전쟁 발발 이후, 경제협력 다각화 필요성 급증 + 중앙아 가치 재평가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러, 중 이외의 '+ α ' 외부 세력과의 협력 활성화
 - 중앙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예: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앙아 통해 상품 수입, 유럽으로 중앙아 산(産) 원유, 천연가스 공급), 중앙아 = 러시아 대체, 우회지
 - 중앙아 5개국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증가, 5개국만의 정상회담 정례화(2018~), 중앙아 C5+1(중국, EU,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 다각화 현상

13

III. 개별국 내부 결정 요인: 정권 안정, 강대국관리

- 독립 후, 취약한 신생 국가의 '생존'이 최대 목표
 - 국가 안보 => 정권 안정 직결
 - 주권 유지 => 강대국 관리
- 국가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독립한 중앙아 국가들은 '구조', 즉 중앙아 역내 환경과 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해 불간섭과 불개입, 영토보전, 다자들을 통한 강대국 관리, 정부 권위와 안정이라는 규칙을 공유
- 내부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의 주권, 안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중앙아 개별국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생존과 직결되는 프레임 형성

14

III. 개별국 내부 결정 요인: 정권 안정

-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토보전, 혼란 축소: 내부의 민족적, 영토적 갈등을 잠재워 소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여 유고슬라비아나 카프카스에서 벌어지는 상황 원천 차단
- 중앙아 세속정부 안정적 유지: 각국 세속정부는 유일한 정치, 군사 권력의 원천으로써 강력한 권위를 확보, 국가 이외의 대안적 권력 (1990년대 초 튀르키예가 주도한 범투르크주의, 이슬람주의 확산 등)의 부상을 강력하게 억제, 차단
- 오랜 기간 중앙아 국가 간 관계는 갈등, 경쟁, 대립이 주 특징이었음에도 중앙아 개별국 지도자들은 최대한 서로의 정치 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상호 권위주의 권력 정당화했으며, 급격한 지도자 교체로 인한 안보 불안 상황은 억제 => 중앙아 초대 대통령들의 2-30년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

15

III. 개별국 내부 결정 요인: 강대국 관리

- ‘강대국 관리 (great power management)’를 통한 정권 안정 모색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 중소규모국들이 전방위외교, 균형외교, 다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대국 관리(great power management)하는 것도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밀접
 - 중앙아 다극체제에서 강대국 간 어느 정도의 권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중앙아 중소국의 주권 보호 가능
 - 중앙아 국가들의 시각에서 특정국이 ‘큰형님’ 역할을 독점하거나 노골적인 지역 패권 구축하는 환경은 정권 안정과 국가 주권 보호 차원에서 기피, 이보다는 역내 활동하는 강대국들(주로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 군사적 다자를 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유리한 환경
- => 중앙아 5개국 외교정책에서 전방위외교, 균형외교,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극화된 역내 환경에서 자국의 주권, 정권 안정, 경제 성장을 위해 러, 중 외의 협력루트를 다각화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

16

III. 개별국 내부 결정 요인: 정권 안정, 강대국관리

- 중앙아 다자협력이 '강대국 주도'에서 '중앙아 중심'으로 활성화
 - '내부적 결정요인'과 '구조적 환경변화'의 결과로 중앙아 중심으로 활성화 양상
 - 여전히 중앙아 다극화된 역내 구조와 강대국 간 경쟁 지속, 개별국 정권 유지 제 1순위 목표/ *독립 초반, 중앙아 내 경제 발전 전략이나 국가건설 수준은 국가별로 제각각, 통합된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거부감, 중앙아 간 협력이 정권 안정이나 주권 강화 혹은 경제 성장에 별다른 이점 없던 상황
 - 독립 30년이 넘어가자, 내부적으로 중앙아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건설과 체제전환 어느 정도 완료, 정치적 안정 유지/ *우즈베키스탄 사례: 미르지요예프 정부 집권 후, 우즈베키스탄은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 연결 강화를 대외 정책의 중점 과제로 설정하면서 역내 통합에 주도적, 이것이 정권 안정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17

III. 개별국 내부 결정 요인 -정권 안정, 강대국관리

-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강대국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러-우 전쟁 발발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중앙아 상호 협력(연결성 강화, 교역 증가 등) 양상, 러/중에 대한 경계 증폭
 - 다자 플랫폼을 통해 강대국 관리의 중앙아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옵션
- 러/중의 영향력은 기정 사실, 중앙아 역내에서 세력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이 두 국가를 상쇄할 정도로 갑작스레 커질 계기도 현재로서는 불투명
 - 중앙아 중소국가들은 러, 중에 대한 균형을 1) 우선 중앙아 5개국으로 구심점 확보, 2) 러, 중 이외의 외부 국가/지역과의 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
- 중앙아 5개국이 다극화를 활용하는 목적은 특정 블록/ 특정 국가로의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하며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 경쟁하는 극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회피
- 우크라이나,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중앙아 내 대리전이나 전면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러시아, 중국 간 균형과 더불어, 러/중에 세력 확장을 다소 제한할 수 있는 다수의 제 3의 세력 확보 필요

18

IV. 사례: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 중앙아 중심, 주도, 수평적, 협력플랫폼 다각화, 강대국 관리
 - 중앙아 5개국 정상회담, 중앙아 5개국 의회 간 포럼, C5+1 등
 - 비제도적, 중앙아 응집력 강화
- 2010년대 중반 이전 중앙아 역내 협력
 - 2010년대 중반까지 주로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강대국 주도로 진행, ‘수직적 협력’
 - 중앙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개별국가 간 이해관계가 국경, 수자원 등에서 첨예하게 얽혀 갈등과 대립 빈번
- 2018년 이후 중앙아 내에서 새로 조직, 활성화된 다자협력체의 특징은 러, 중 이외의 외부 세력과 협력 다각화, 수평적
 - EU, 미국, 인도, 중국, 걸프협력회의(CCASG), 독일, 일본 등으로 확대
 - 대립했던 문제들 해결 국면

19

IV. 사례: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018년, 중앙아 5개국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 실시, 우즈베키스탄의 주도 시작된 본 회의는 연례화되는 추세로, 무역, 안보, 환경 문제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안착,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외부 강대국을 배제하고, 스스로 지역 차원의 해결책 모색의 장으로 활용
- 중앙아 의회 간 포럼: 2023년 첫 개최, ‘투르케스탄 선언’에서 5가지 주요 협력 분야(경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실행, 인적 자본 개발, 지방 대표 기구 수준의 협력, 디지털화) 발표, 의회 간 대화와 의회 간 협력의 특정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포럼의 역할, 개혁을 위한 입법 지원에 대한 경험 교환, 초국경 수자원의 공동 사용, 환경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 보장과 같은 긴급한 지역 문제 해결, 2차 우즈베키스탄 히바에서 개최 완료(9월), ‘히바 선언’ => 중앙아 협력, 문제해결, 개혁추진의 입법적 토대, 지원 마련

20

IV. 사례: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 **의미:** 5개국 지도자들은 포럼을 통해 외교적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촉진, 지역 내 유대관계 강화, 과거 협력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진일보, 외부 강대국들이 포함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나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은 역내 기구와는 차별화된 특징
 - 유럽연합이나 ASEAN과 같은 제도적 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회담 등을 통해 무역과 국경 안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공동 협력 추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한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부 투자(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둘러싼 경쟁과 정부 간 신뢰 부족 등 뿌리 깊은 도전 과제 잔존, 중앙아 국가들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전환으로 인한 불안정은 잠재적인 협력 방해 요소
- 수자원 관리, 국경 안보, 기후 변화의 영향과 같은 공동의 문제 해결이 제도화 과정 없이 가능할지?
- 제도화된 지역주의로의 발전은 불가입, 불가침 원칙을 공유하는 중앙아 권위주의 정부가 희망하지 않아 오히려 현재 다자체 상태로 유지 선호 가능성 유

21

IV. 사례: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 C5+1 사례 -> 중앙아 중소국의 강대국 관리 차원에서 이해
 - **C5+중국:**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C+C5)은 특히 2022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회의는 협력을 위한 구조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전, **무역, 안보, 인프라 개발,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 중점,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빠르게 확장, 2022년까지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투자액이 700억 달러에 달해, 러시아의 무역량 추월
 - **C5+미국:** 거버넌스 개혁, 인권, 그리고 특히 테러리즘 대응 및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의 안보 문제에 중점, 규모는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비해 작음 (2022년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테러 대응 및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 약속)
 - **C5+EU:** 유럽연합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인권에 중점, EU 역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여,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며, 지역 내 환경 기준 강화에 포커스
 - **C5+독일:** 2023년 '전략적 지역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 정상회담 연례화, 에너지(천연자원 포함), 기후 및 환경 보호, 중앙아시아 협력 성장 기여, 인적 접촉 강화 등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 중앙아 통한 러시아 압박, 목표, 중앙아 내 러, 중 세력 약화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 모색

22

IV. 사례: 중앙아 중심의 다자협력

- 다자성을 활용한 강대국 관리
 - C5+1의 사례는 중앙아 국가들의 강대국 관리, 즉, 강대국과의 관계 다양화, 강대국에 대한 의무 완화, 특정 강대국의 독주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역 플랫폼을 육성하는 행위
 - 러, 중 이외의 C5+1 다양한 플랫폼을 만드는 시도는 중앙아 국가들이 대 러시아, 대 중국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중앙아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

23

V. 결론

- 중앙아 내 최근 새롭게 형성된 중앙아 주도 다자협력은 중앙아 구조적 특징(다극화, 강대국 간 경쟁)과 내부 결정요인(정권 안정, 강대국 관리)으로 인해 중앙아 국가들에 의해 활성화
- 러-우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화
 - 지역 주체 배제 시 중앙아 지역은 외부 세력 간의 경쟁의 장으로 전략, 외부 세력이 분열과 지배 전략을 사용할 경우 중앙아 국가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은 찾기 어렵다는 인식 확대
 - 지근거리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실패국가로 전략하는 과정과 조지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속내 확인
- 중앙아 중심으로 공동 이해 형성, 구심력 강화 -> 강대국 관리 더욱 효과적
- 향후 중앙아 5개국만의 지역 플랫폼이 제도화될지는 미지수, 당분간은 정상회담이라는 비제도적 플랫폼으로 유지 전망

24

사회과학 분과

사회과학분과 B: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안보와 유라시아

사회: 김병호(매일경제)

- ▶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417
 - 발표: 김영식(강릉원주대,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간사위원)
 - 토론: 강명구(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 러·우 전쟁과 카자흐스탄의 교역구조 변화 429
 - 발표: 염동호(한신대)
 - 토론: 박지원(KOTRA,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 위원)

- ▶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437
 - 발표: 변현섭(계명대)
 - 토론: 고주영(한국외대)

러·우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김영식 (강릉원주대)



목차

강릉원주대학교

1.

러시아 경제지표

2.

EU 경제지표

3.

에너지 무기화 전략

4.

세계경제의 위기



1. 러시아 경제현황

구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1.8	2.8	2.2	-2.7	5.6	-2.1	3.6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2.9	4.5	3.4	6.7	13.8	7.4
실업률(%)	5.1	4.8	4.6	5.9	4.3	3.7	3.2
명목환율(달러당)	58.3	62.8	64.7	72.3	73.7	70	84.7
수출(십억 달러)	353	444	420	338	494	589	424
수입(십억 달러)	238	249	254	240	304	279	303
무역수지 (십억 달러)	15	195	166	98	190	310	120

자료: “Russia Economic Forecast,” FocusEconomics, [http://www. Focus-economics.com/countries/Russia/](http://www.Focus-economics.com/countries/Russia/) 2024.09.15 검색



2. EU국가들의 경제성장률

구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독일	0.7	0.9	1.0	-3.8	3.1	1.8	-0.3
영국	2.6	1.4	1.6	-10.0	8.6	4.3	0.1
프랑스	2.2	1.8	1.8	-7.5	6.4	2.4	0.7
이탈리아	1.6	0.9	0.4	-8.9	8.3	3.9	0.9
폴란드	5.1	5.9	4.4	-2.0	6.9	5.6	0.2
체코	5.2	3.2	3.0	-5.5	3.6	2.4	-0.3
슬로바키아	2.9	4.0	2.5	-3.3	4.8	1.9	1.6
헝가리	4.3	5.4	4.9	-4.5	7.1	4.6	-0.9
슬로베니아	4.8	4.5	3.5	-4.2	8.2	2.5	1.6
크로아티아	3.4	3.0	3.4	-8.5	13.0	7.0	3.1

자료: Worldbank 20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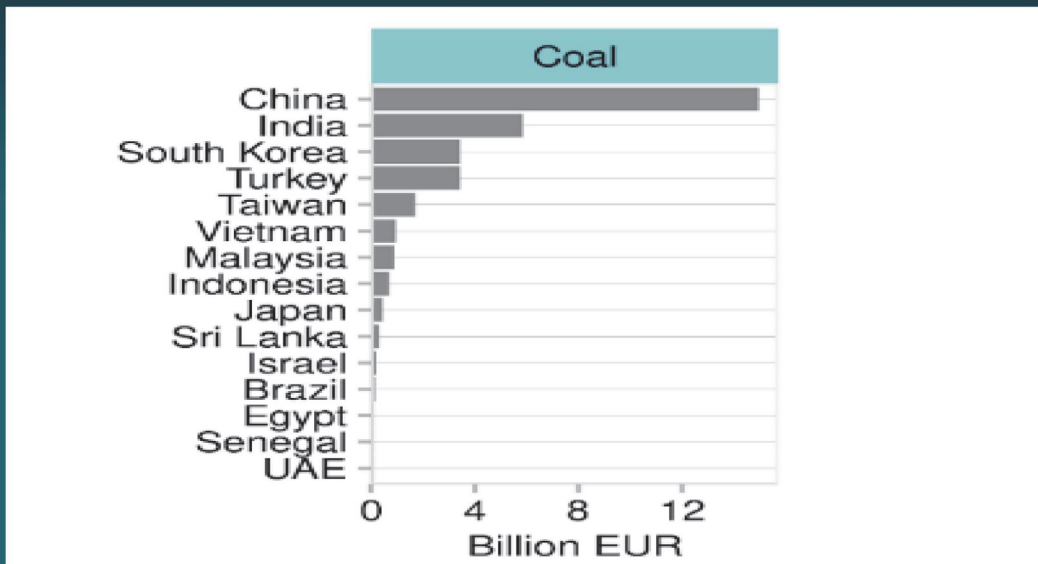
3. EU국가들의 물가상승률

구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독일	1.5	1.7	1.4	0.1	3.0	6.8	5.9
영국	2.5	2.2	1.7	0.9	2.5	7.9	6.8
프랑스	1.0	1.8	1.1	0.4	1.6	5.2	4.9
이탈리아	1.2	1.1	0.6	-0.1	1.8	8.2	5.6
폴란드	2.1	1.8	2.2	3.4	5.1	14.4	11.5
체코	2.5	2.1	2.8	3.2	3.8	15.1	10.7
슬로바키아	1.3	2.5	2.7	1.9	3.1	12.8	10.5
헝가리	2.3	2.9	3.3	3.3	5.1	14.6	17.1
슬로베니아	1.4	1.7	1.6	-0.1	1.9	8.8	7.4
크로아티아	1.1	1.5	0.8	0.2	2.6	10.8	7.9

자료: Worldbank 2024.9



4. 러시아산 석탄 수입 국가(2024년 4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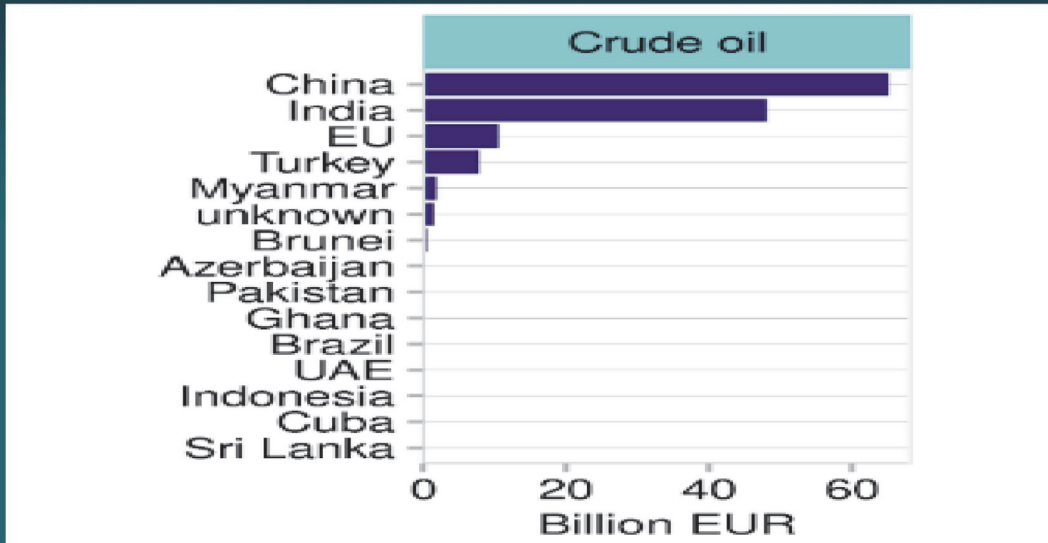


자료: CREA analysis based on Kpler, Marine Traffic, ENTSOG and customs date: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4-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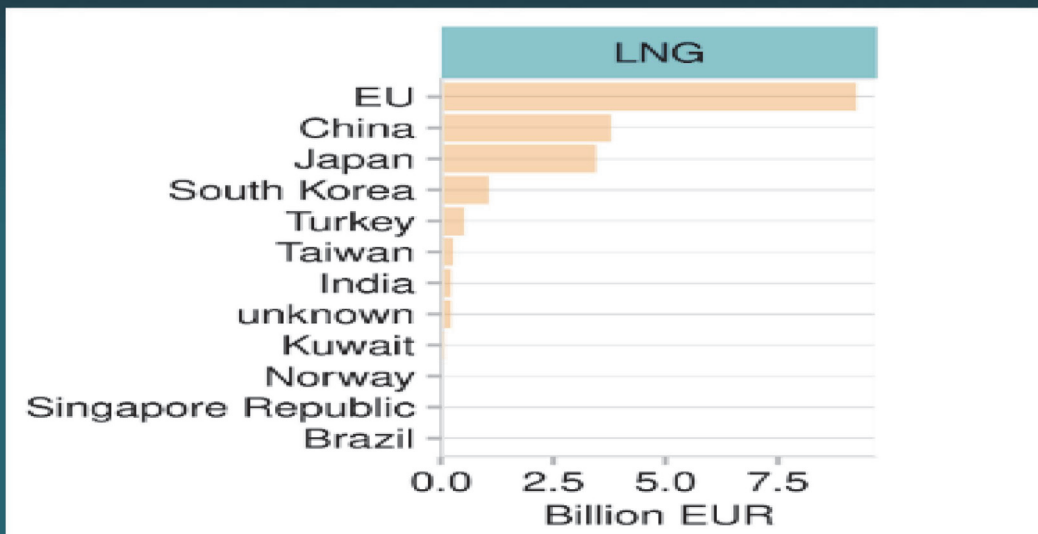
5. 러시아산 원유 수입 국가(2024년 4월 말)



자료: CREA analysis based on Kpler, Marine Traffic, ENTSOG and customs date: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4-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6. 러시아산 LNG 수입 국가(2024년 4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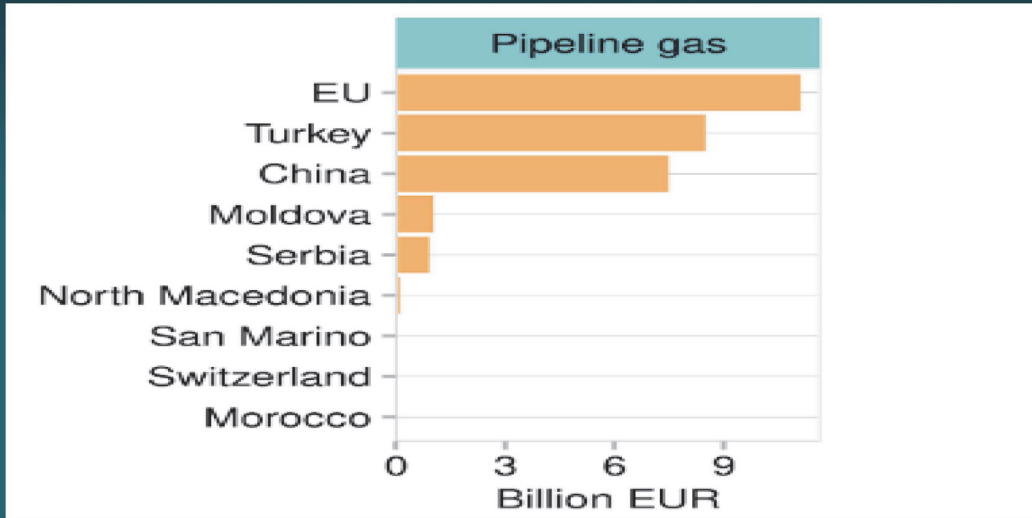


자료: CREA analysis based on Kpler, Marine Traffic, ENTSOG and customs date: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4-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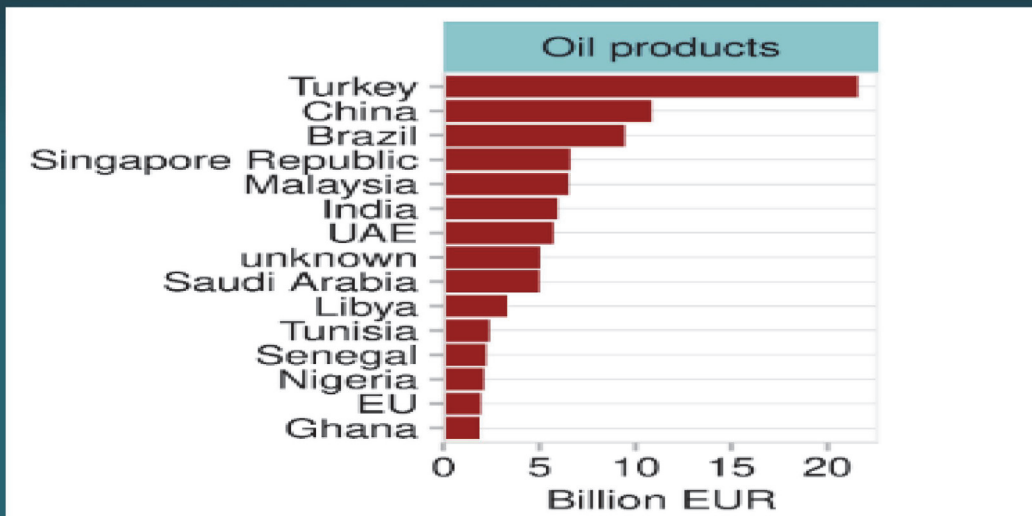
7. 러시아산 PNG 수입 국가(2024년 4월 말)



자료: CREA analysis based on Kpler, Marine Traffic, ENTSOG and customs date: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4-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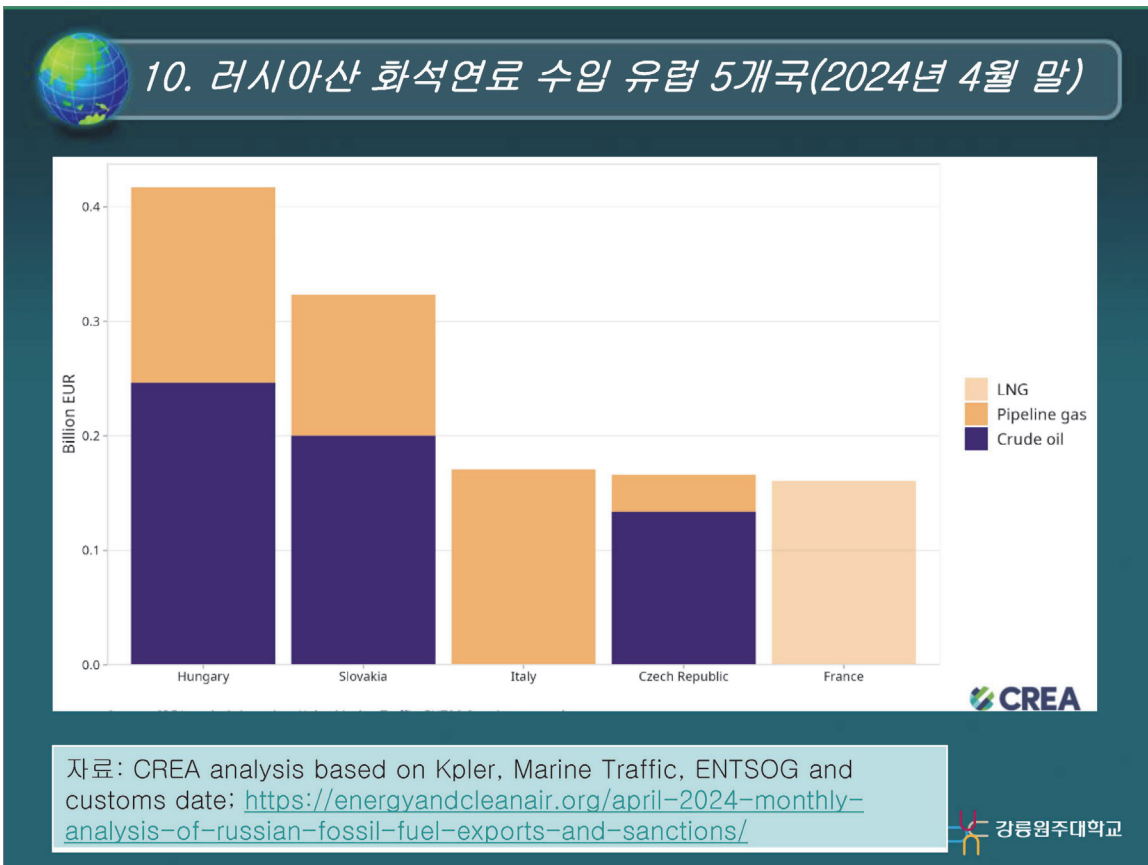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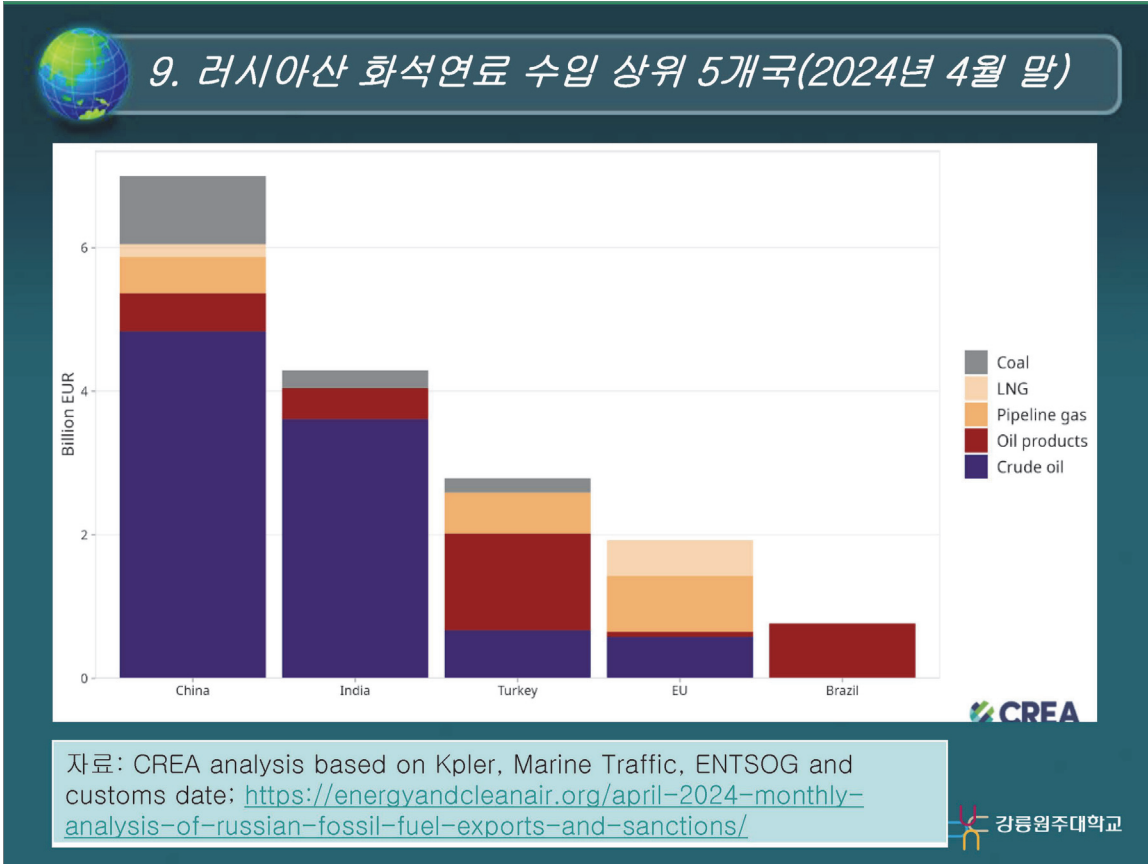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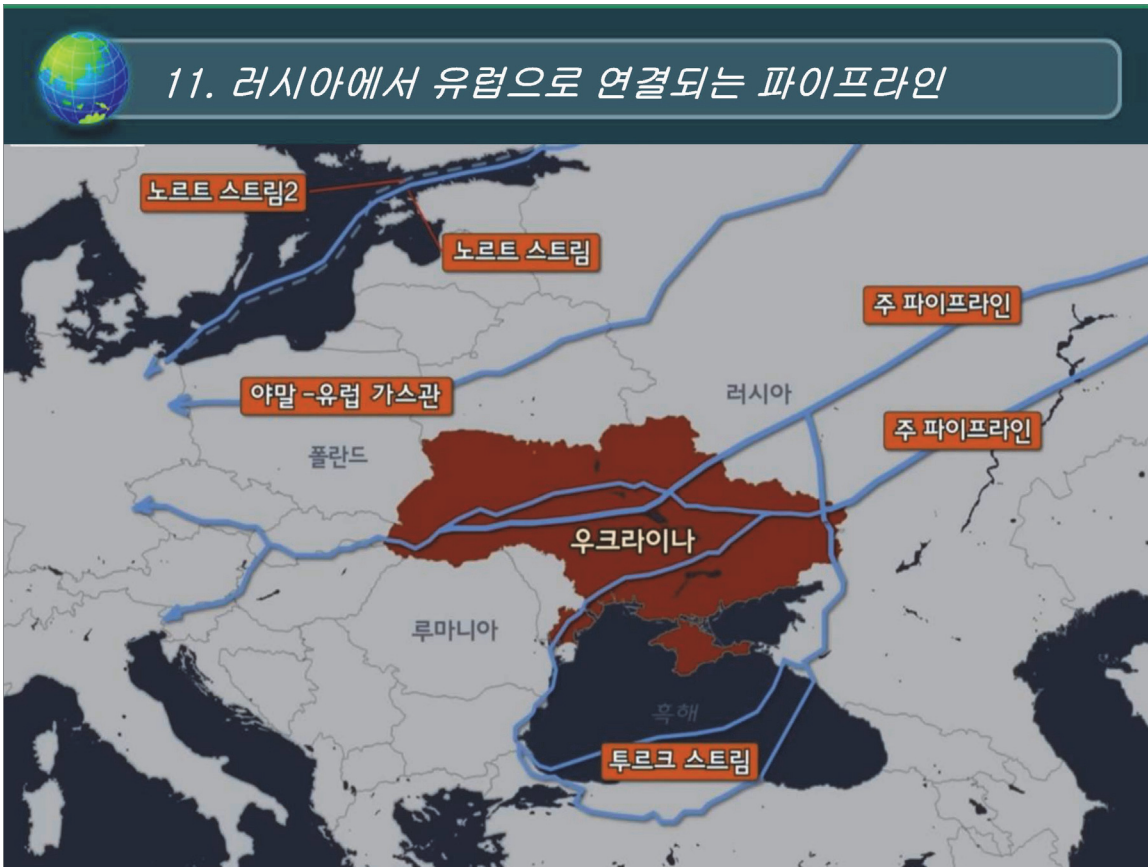
8.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국가(2024년 4월 말)



자료: CREA analysis based on Kpler, Marine Traffic, ENTSOG and customs date: <https://energyandcleanair.org/april-2024-monthly-analysis-of-russian-fossil-fuel-exports-and-san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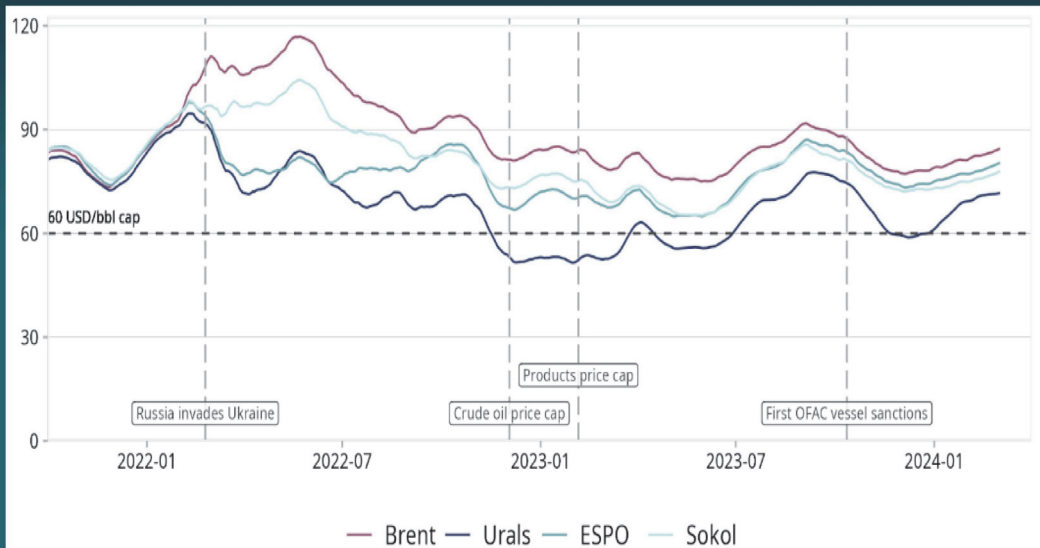
12.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국 현황

2020년	원유 수입 의존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독일	29.7	66.1
프랑스	13.3	16.9
이탈리아	12.5	43.3
네덜란드	21	30.3
불가리아	8	75.2
루마니아	32.8	100
체코	29.1	100
헝가리	44.6	100

강릉원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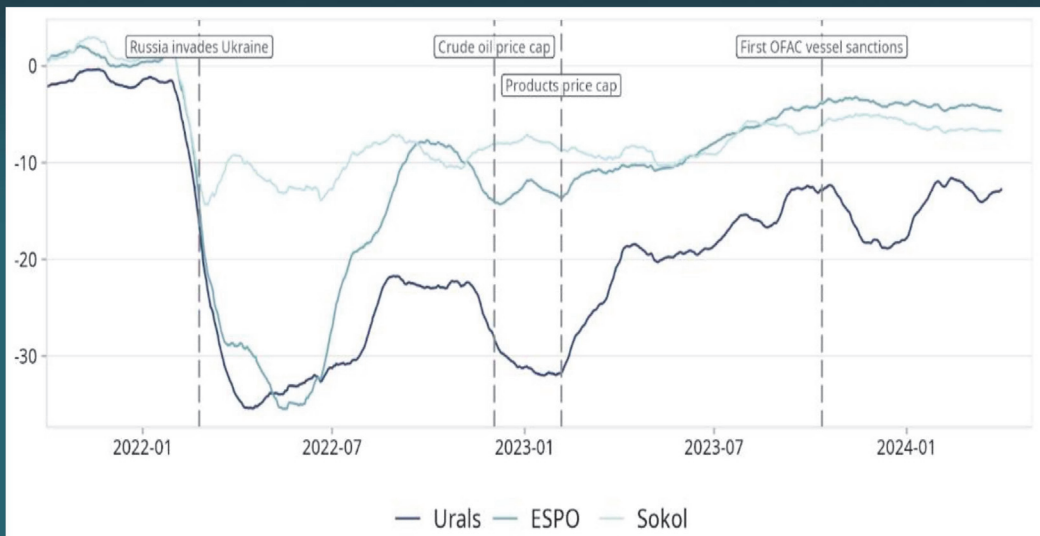
13. 러시아산 에너지가격상한제의 문제점(1)



자료: Oilprice.com



14. 러시아산 에너지가격상한제의 문제점(2)



자료: Oilprice.com





15. 우리나라의 경제현황

구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3.2	2.9	2.2	-0.7	4.3	2.6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1.5	0.4	0.5	2.5	5.1	3.6
실업률(%)	3.7	3.8	3.8	4.0	3.7	2.9	2.7
명목환율(달러당)	1,070.5	1,115.7	1,156.4	1,086.3	1,188.8	1,264.5	1,288.0
수출(십억 달러)	572.6	603.6	541.2	511.2	643.1	682.0	630.7
수입(십억 달러)	473.1	529.4	495.5	460.0	606.0	723.7	635.7
무역수지 (십억 달러)	99.5	74.2	45.7	51.2	37.1	-41.7	-5


자료: <https://www.index.go.kr/unity/potal/search/search.do?divide1=1> 2024.09.15 검색



16. 한러 교역현황(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증감)	69.1	73.2	77.7	69.0	99.8	63.3	61.3
	44.8	6.0	6.2	-11.2	44.6	-36.6	-3.1
수입 (증감)	120.4	175.0	145.7	106.3	173.6	148.2	88.9
	39.3	45.4	-16.8	-27.0	63.3	-14.6	-40.0
교역 (증감률)	189.5	248.3	223.4	175.3	273.4	211.5	150.3
	41.3	31.0	-10.0	-21.5	55.9	-22.7	-28.9
무역수지	-51.3	-101.8	-67.9	-37.3	-73.8	-84.9	-27.6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4.9




17. 분기별 대러 수출입 현황

구분	2022 (1)	2022 (2)	2022 (3)	2022 (4)	2023 (1)	2023 (2)	2023 (3)	2023 (4)	2024 (1)	2024 (2)
수 출 (증감)	20.9	8.9	14.0	19.4	16.6	21.4	11.5	11.9	14.6	9.9
전년 동기 대비	-1.7	-65.2	45.3	28.7	-20.2	139.5	-17.7	38.5	-12.1	-53.0
수 입 (증감)	53.8	35.5	27.3	31.6	25.7	23.7	20.5	18.9	16.9	16.0
저년 동기 대비	79.0	-14.7	-37.0	-46.1	-52.1	-33.3	-24.6	-40.1	-34.4	-32.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4.9





18.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 1

1. 미국과 서방이 천연가스와 원유 등 수입을 중단하면서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제는 문제가 없는가?
2.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의 42%, 석유 소비의 23%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그리고 유럽에서 수입하지 않은 수입하지 않은 천연가스와 석유는 중국과 인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





19.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 2

3.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에너지(유가, 천연가스)·원자재·곡물 가격이 급등 함.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와 러시아의 주요은행들을 국제결제망(SWIFT)에서 퇴출함. 따라서 달러화 대신 유로화나 위엔화, 루블화로 결제하도록함.

5. 한국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역경제제재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러경제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Thank you!!



러·우 전쟁과 카자흐스탄의 교역구조 변화

염동호 (한신대)

CONTENTS

1. 서론
2. 무역구조 현황 및 특징
3. 무역구조 변화 분석
4. 외부충격과 무역의존도 변화
5. 결론

1. 서론

□ 연구 배경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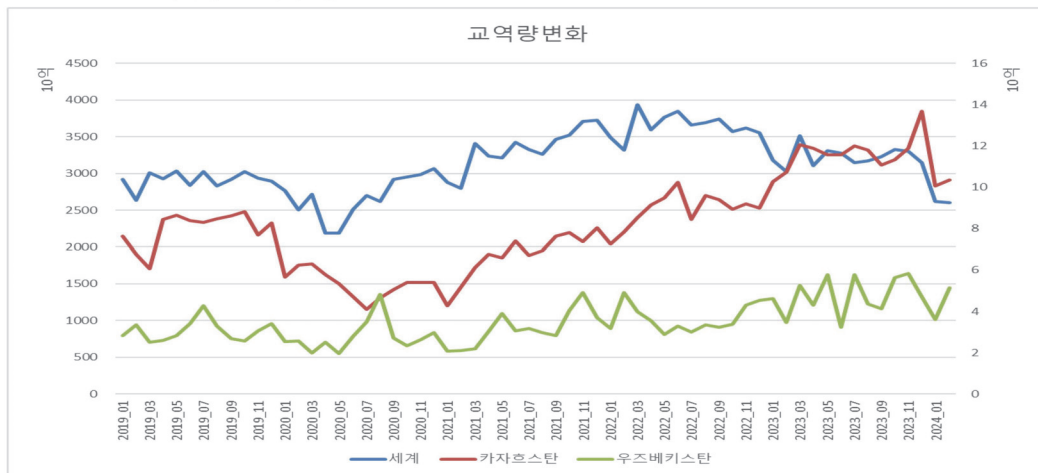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대외정세 변화가 중앙아시아의 주요국인 카자흐스탄의 교역에 미친 영향 및 그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크림반도 병합 이후 지속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더욱 심화되었다. 일련의 대러제재는 세계 경제에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당사국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정치 형제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및 무역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대중양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중앙아시아 경제 및 무역구조 변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다.
- 무역구조는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산업 내 무역은 산업간 무역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산업간 무역은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구조를 설명해 온 반면, 산업 내 무역은 주로 경제수준이 비슷한 선진국 간의 무역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 무역특화도와 2)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하여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1. 서론

- 또한 대외경제변화라는 외부충격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충격요인으로 1)2014년 3월의 크림반도 병합, 2)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3)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설정하고, 무역구조 변화 양상을 통해 간접적인 대외충격의 영향을 고찰한다.

2. 무역구조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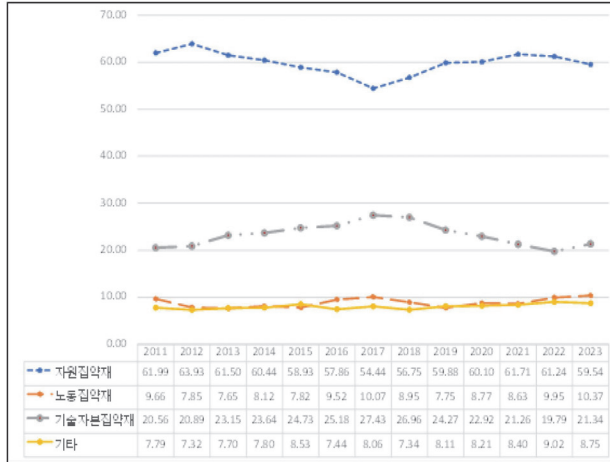
□ 교역량 변화 (단위: 10억 달러)



자료: UNCTAD Stat, DB자료(검색일: 2024. 9. 20)를 토대로 필자 산출.

2. 무역구조 현황 및 특징

□ 카자흐스탄의 기술수준별 무역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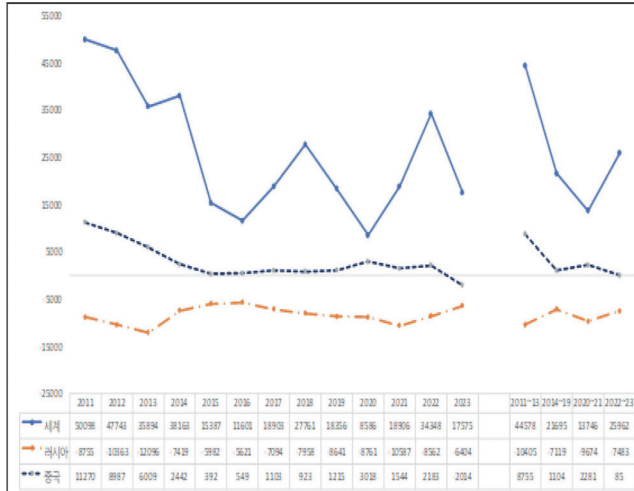


주: UN의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분류를 활용함.
 자료: UNCTAD Stat, DB자료(검색일: 2024. 5. 10)를 토대로 필자 산출.

- 유엔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분류 기준을 토대로 자원집약재, 노동집약재, 기술자본집약재로 분류.
- 자원집약재의 비중이 60% 전후(54.44~63.93%)로 높고, 기술자본집약재 비중 20%대 전후(19.79~27.43%), 노동집약재 10% 전후(7.65~10.37%)로 추어.
- 자원집약재는 2012년 63.93%를 정점으로 감소하다 2017년 54.44%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후, 2021년 61.71%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임.
- 기술집약재는 2017년 27.43%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2022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함.
- 노동집약재는 고점을 보인 2017년(10.07%) 이후 10% 이하의 완만한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 10.37%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2. 무역구조 현황 및 특징

□ 카자흐스탄의 무역수지 추이(단위: 100만 달러)



자료: UNCTAD Stat, DB자료(검색일: 2024. 5. 10)를 토대로 필자 산출.

-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흑자 폭이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2011년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1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이후 적자로 전환함.
- 외부충격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무역흑자가 감소하다 2020-21년을 저점으로 흑자로 전환함.
- 그러나 대러시아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자폭의 축소와 확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 반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 폭이 축소되었으며, 2023년에 적자로 전환함.

3. 무역구조 변화

□ 분석 방법 및 데이터

- 분석기간을 2011년부터 2023년으로 설정하고, 중앙아시아 무역 및 경제에 영향이 컸던 1) 크림반도 병합 이전(크림반도 병합 3년 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 크림반도 병합 이후(2014년부터 2019년까지),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0년부터 2021년까지), 4)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의 무역통계는 UN Comtrade에서 구하였다.

- 이러한 통계를 활용하여 지식수준별 및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이하 TSI)와 산업 내 무역지수(Grubel and Lloyd Index, 이하 GL)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다. T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SI_k^i = (X_i^k - M_i^k) / (X_i^k + M_i^k)$$

- TSI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 0이면 수출입 균형, 0 < , < 1 이면 수출특화, 0 > , > -1이면 수입특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 < , < 1이면 무역특화로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0 > , < -1 무역특화로 경쟁력 약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양국 간 무역의존도 및 경제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산업 내 무역지수를 측정하여 활용한다. 산업 내 무역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GL지수를 활용하여 산업 내 무역지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GL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GL_k^i = 1 - \left(\frac{|X_k^i - M_k^i|}{X_k^i + M_k^i} \right)$$

- GL_k^i 는 i국과 j국 간의 무역에서 관찰되는 산업 내 무역지수이다. GL은 1에서 무역총액 중 산업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뺀 값으로 얻어지며, 품목의 산업 내 무역지수를 의미한다. GL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지수의 값이 0이면 완전한 산업 간 무역을, 1이면 완전한 산업 내 무역을 의미한다.

3. 무역구조 변화

□ 무역특화지수

		2011~13	2014~19	2020~21	2022~23
카작-세계	자원집약	0.21	0.29	0.25	0.28
	노동집약	-0.66	-0.54	-0.50	-0.39
	기술집약	-0.90	-0.75	-0.66	-0.65
카작-러시아	자원집약	-0.58	-0.51	-0.56	-0.73
	노동집약	-0.73	-0.61	-0.79	-0.78
	기술집약	-0.81	-0.60	-0.49	-0.63
카작-중국	자원집약	0.46	0.91	0.75	0.83
	노동집약	-0.57	0.29	0.70	0.68
	기술집약	-0.97	-0.94	-0.96	-0.91
		2011~13	2014~19	2020~21	2022~23
1차산품		0.89	0.92	0.90	0.91
미가공	산업용 식료품	0.86	0.84	0.68	0.57
	산업용 원자재	0.77	0.54	0.65	0.59
	연료 및 윤활유	0.91	0.96	0.97	0.99
중간재		0.06	-0.03	-0.05	-0.04
가공품		0.19	0.12	0.11	0.12
가공된	산업용 식료품	0.17	0.22	0.29	0.43
	산업용 원자재	0.15	0.08	0.09	0.09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0.39	0.30	0.25	0.20
부품		-0.87	-0.87	-0.83	-0.73
최종재		-0.87	-0.83	-0.81	-0.73
자본재		-0.87	-0.86	-0.84	-0.70
소비재		-0.88	-0.80	-0.78	-0.76
전체		0.31	0.23	0.13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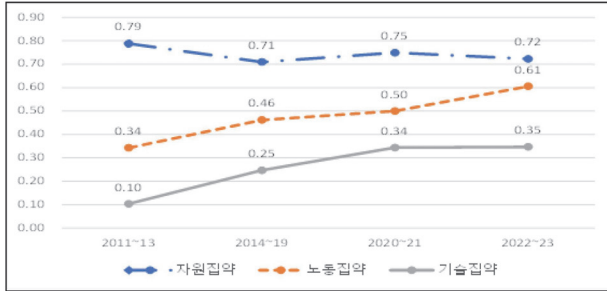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은 자원집약재에서 약한 경쟁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노동집약재와 기술집약재에서는 TSI가 마이너스로 추이해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에는 자원집약재, 노동집약재, 기술집약재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 수출경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에는 자원집약재에서 강한 경쟁력이, 노동집약재는 크림반도 병합기(2014~19년)부터 경쟁력이 확인되고 그 후 경쟁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공단계별 분석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1차 산품에서 강한 수출 경쟁력이 확인된다. 다만 연료 및 윤활유 이외의 미가공 산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간재의 가공품에서 약한 경쟁력이 확인되지만,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을 제외한 원자재 및 연료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최종재는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3. 무역구조 변화

□ 산업 내 무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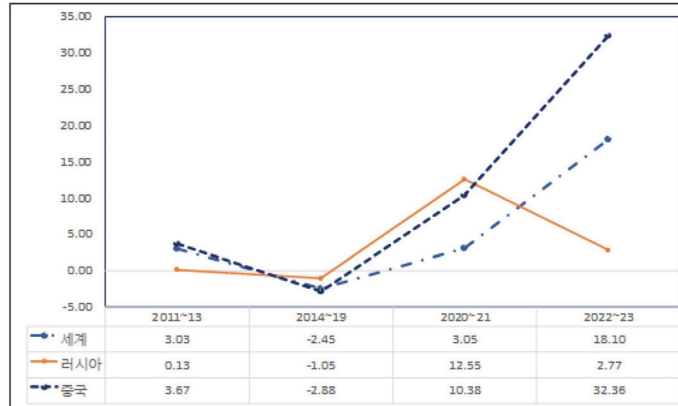


		2011~13	2014~19	2020~21	2022~23
카작-러시아	자원집약	0.42	0.49	0.44	0.27
	노동집약	0.27	0.39	0.21	0.22
	기술집약	0.19	0.40	0.51	0.37
카작-중국	자원집약	0.37	0.09	0.25	0.17
	노동집약	0.43	0.70	0.30	0.32
	기술집약	0.03	0.06	0.04	0.09

- 자원집약재의 GL지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노동집약재와 기술집약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러시아, 카자흐스탄-중국 간 산업 내 무역지수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 있음. 카자흐스탄-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GL지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 반면 카자흐스탄-중국 간의 GL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지는 패턴이 확인됨.
- 기술집약재에서는 카자흐스탄-러시아 간의 GL지수가 (0.19~0.51) 카자흐스탄-중국 간 (0.03~0.09)에 비해 압도적으로 큼. 자원집약재는 카자흐스탄-러시아 간 GL지수가 높지만, 노동집약재는 카자흐스탄-중국 간 GL지수가 전 기간에 걸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외부충격과 무역 의존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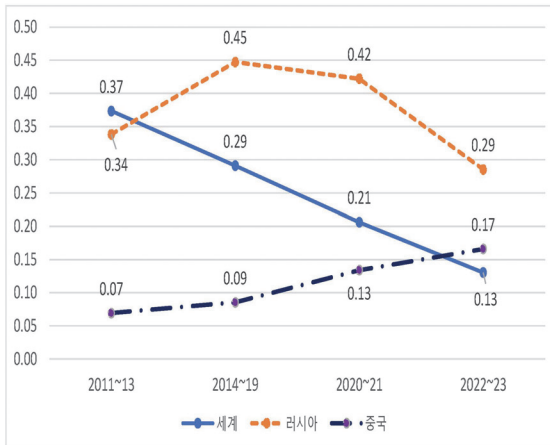
□ 외부충격과 무역성장률



- 카자흐스탄의 무역규모는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14.81%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2023년에 중국이 제1 교역국이 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

4. 외부충격과 무역 의존도 변화

□ 외부충격과 대러/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



- 양국 간 GL지수가 높다는 것은 양국 간 경제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환율변동이나 수출입 가격 변동에 따른 제품의 수요탄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출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음.
- 2022-23년을 기준으로 대세계 GL지수는 0.13, 대러시아 0.29, 대중국 0.17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및 중국 간 무역 긴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세계 GL지수는 0.37에서 0.13으로 감소하고 있음.
-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이 낮지만, 러시아는 하락세에 있고 중국은 상승세에 있음. 카자흐스탄-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전에 0.34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0.29까지 하락함. 반면 카자흐스탄-중국은 동 기간에 0.07로 러시아에 비해 낮았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0.17로 확대하였음.

12

5. 결론

- 카자흐스탄의 무역구조는 1차 상품(36.17%) 및 자원집약재(60.39%) 비중이 높고 최종재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의 특징과 구조를 갖는다. 기술 수준별로 보면 자원집약재가 지속적으로 60% 전후로 추이하고, 기술자본집약재는 20% 전후로 추이하는 한편, 가공단계별 집계에서는 1차 상품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35.57~40.61%(세계 12.23~17.64%)로 높고, 중간재 30.30~35.52%(세계 46.63~48.76%)와 최종재 23.42~28.33%(세계 33.32~37.08%)는 상대적으로 낮다.
- 기술수준별 및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TSI)와 산업 내 무역지수(GL) 분석에서 자원집약재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노동집약재와 기술집약재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노동집약재와 기술집약재의 무역특화지수가 각각 -0.66에서 -0.39로, -0.90에서 -0.65로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카자흐스탄-러시아 간 무역특화지수에서는 특별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무역특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조적인 대러시아 무역적자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대중국 무역에서는 자원집약재에서 무역특화지수가 확대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재도 2014~19년기 0.29에서 2022~23년기 0.68로 개선되는 등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기술집약재는 여전히 경쟁력이 없고, 1차 상품의 경우 강한 경쟁력이 확인되나 중간재와 최종재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5. 정리 및 결론

- 자본집약재와 노동집약재는 TSI와 GL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경쟁력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러시아 간의 산업 내 무역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전 분야에서 여전히 수평적 보완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에는 노동집약재를 중심으로 수평적 보완성이 확인되나 자원집약재와 기술집약재는 보완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 대외경제 변화라는 외부충격은 대러시아 무역 비중을 감소시키고 대중국 무역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분석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무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따른 서방의 대러제재가 강화된 시기에는 무역량이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무역구조에서 높은 대러시아 의존도가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된 공간을 중국이 대체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성장률 변화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세계 성장을 5.96%보다 대러시아(7.52%) 및 대중국(19.81%) 성장률이 높아 대러시아 및 대중국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크림반도 병합기인 2014~19년과 우크라이나 침공기인 2022~23년에 대러시아 성장률에 비해 대중국 무역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대러제재 등 외부충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체 교역국으로서 무역수요를 중국이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14

참고문헌

- 김경민 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KIEP 기초자료 23-14』.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권택호 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 박경호 외, "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연구보고서 17-15』.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방호경, "산업 내 무역지수를 이용한 한 중 일 삼국의 분업구조 분석." 『세계경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염동호,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중양아 전략." 『Great Transformation in Eurasia and Korea's Approach Strategy to Eurasia』. 산업통상자원부·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프로시딩, 2022.
- 이시욱, "GVC 관점에서 본 한 터키 FTA 이후의 양자 간 무역구조 변화." 『아시아리뷰』. 제12권 제2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2.
- 이종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의 충격." 『슬라브학보』. 제3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 코르순 블라다 외,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제재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분석."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22.
- 조계용 외,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변동 분석." 『기업과 혁신연구』. 제43권 제3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0.
- Davis, D. Reeve, T. "Human Capital, Unemployment, and Relative Wages in a Golbal Economy." NBER Working Paper 6133, 1997.
- Harrigan, James. "Technology, Factor Supplies,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stimating the Neoclassical Mode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4, 1997.
-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 No. 4, 1979.
- Helpman,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esence of Product Difference, Economines of Scale and Monopolistic Competition, a Chamberlin-Heckscher-Ohlin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1, No. 3, 1981.
- UNCTAD Stat, <https://unctad.org/statistics> (검색일: 2024. 5. 10)

15



Thank you

Q & A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변현섭 (계명대)

I. 서론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제재의 영향으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의 ‘자원 민족주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핵심광물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료로 국가의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급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물은 전자, 자동화, 에너지, 의약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희토류,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텅스텐 등이 있다. 현재 중국이 이러한 핵심광물의 생산 및 수출 등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경쟁에서 공급망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EU 등은 공급망의 다각화와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과 우방국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해 핵심광물의 확보와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도 글로벌 주요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 및 무기화 추세에 대응하고 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수급의 변동성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22.5)를 통해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 2월 27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특히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5종) 등 10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밝혔다.¹⁾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전략협력국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의 매장량, 생산량 및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30개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핵심광물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카자흐스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정부

1)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2/view#> (검색일: 2024.4.20.)

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포함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 정부의 ODA 지원 사업으로 ‘희소금속센터’가 운영 중이며 ‘화학 R&D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시절부터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을 생산해 왔으며, 여전히 주요한 공급처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크롬, 티타늄,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레늄 등 주요 산업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광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2위의 크롬 생산국이며, 티타늄, 카드뮴, 구리, 아연 등의 세계 10대 생산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금, 레늄, 흑연, 카드뮴, 텔루륨, 몰리브덴 등의 주요 생산국이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금, 타지키스탄에서는 안티몬과 수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이오딘 등의 주요 광물이 생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영 광산기업들이 광물 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유럽·미국·캐나다·러시아·중국 등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티타늄(수입 상대국 순위 3위), 크롬(10위), 바나듐(17위), 니켈(21위) 등을 수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민 방문하면서 리튬, 우라늄, 텅스텐 등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중점 목표로 삼았고, 이 분야의 협력에 주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광물 매장 현황과 이들 국가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협력 전략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또한,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들이²⁾ 수요국인 주요 국가의 공급망 정책, 핵심광물 확보 전략 등 거시적 관점의 분석과 달리 공급국인 중앙아시아 각국의 핵심광물 정책과 미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 동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II. 핵심광물의 공급망 분석³⁾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희소금속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① 지각 내에 존재량

- 2) 김종덕 외,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3 No. 16, 2023년 12월 22일; 박가현 외,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22년 32호; 김태현, 박지민,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분석』, 2021.8,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3) 리튬, 니켈 등 구체적인 광물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구체적인 제품과 관련된 핵심광물의 공급망 분석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람이며 여기서는 개괄적인 현황 분석에 그친다: 임지훈, 『핵심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리튬』, 20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경훈, 『핵심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20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지선, “미(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결과 및 시사점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중심으로,” 『POSRI 이슈리포트』 2021.6.; 조은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2023, 산업연구원.

자체가 적거나 경제성 있는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금속원소, ②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량과 생산이 편재돼 있거나 특정국에서 전량을 수입해 공급에 위협성이 있는 금속원소. 희소금속은 국가와 시대별로 분류 기준이 상이한데 한국은 현재 수요가 있는 것과 향후 기술혁신의 수반에 새로운 공업용 수요가 예측되는 것으로 35종, 56개의 금속원소로 정의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희토류,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코발트, 니켈, 백금족, 카드뮴, 갈륨, 인듐, 탈륨, 붕소,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 실리콘, 셀레늄, 텔루륨, 주석(단, 희토류는 Rare Earth Element 17종, 백금족(PGM)은 백금족 원소 6종을 의미)⁴⁾

[표 1] 국가별 핵심광물 명칭 및 종류

국가	명칭	종류
한국	희유(희소)금속 (Rare metal)	35종
미국	핵심광물 (Critical mineral)	50종
유럽	핵심원자재 (Critical materials)	30종
일본	희소금속 (Rare metal)	34종

자료: 박가현 외,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22년 32호, p. 5. 재인용.

희소금속 및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세계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수요가 있는 중요한 유형의 원자재이다. 이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및 컴퓨팅 같은 신기술, 국방, 항공우주, 의료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이다.

2023년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 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늘리고, 청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주요 도구가 희소금속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확보인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자료(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에 따르면,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정보가 확보된 43개의 핵심광물(희토류로 분류된 14개 란타노이드 포함) 중 29개의 최대 생산국이다. 다른 주요 핵심광물 생산국은 호주와 남아프리카로 각각 3개의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이 2개의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다(표 2). 29개의 핵심광물(희토류로 분류된 14개 란타노이드 포함)의 생산

4) “텅스텐과 몰리브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꼭 데려와야 할 희소금속!”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sGbn=243&bbsSn=243&pNttSn=213229 (검색일: 2024.4.16.)

은 한 나라에 매우 집중(50% 이상)되어 있다. 그 중에서 5개의 핵심광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이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2개의 핵심광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80%가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20개의 핵심광물(희토류로 분류된 14개 란타노이드 포함)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70%가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2개의 핵심광물은 전 세계 생산량의 50%~60%가 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표 2).⁵⁾

IEA(2021)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의 필수 광물인 코발트의 69%는 콩고, 흑연의 64%는 중국, 리튬의 52%는 호주에서 생산되며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주요 원료 광물 생산의 75% 이상을 3개국에서 담당하는 등 생산 편중도가 매우 높다.⁶⁾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광물의 가공 지역 편중도는 더욱 심각한데, 특히 중국은 주요 핵심광물의 분리, 정제련 등 가공 단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 자원의 공급 안정성이 석유보다 더 취약함을 나타낸다.⁷⁾

[표 2] 주요 핵심광물의 생산국 및 생산량(2023년)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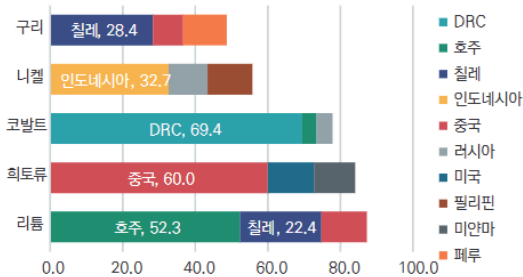
Critical mineral	Leading producing country	Production in leading country	Percentage of world total	World production total
Aluminum (bauxite)	Australia	98,000,000	25	³ 400,000,000
Antimony	China	40,000	48	83,000
Arsenic	Peru	⁶ 27,000	45	⁶ 60,000
Barite	India	2,700,000	32	³ 8,500,000
Beryllium	United States	190	58	330
Bismuth ⁷	China	16,000	80	20,000
Chromium	South Africa	18,000,000	44	41,000,000
Cobalt	Congo (Kinshasa)	170,000	74	230,000
Fluorspar	China	5,700,000	65	8,800,000
Gallium	China	600	98	610
Germanium ⁷	China	NA	NA	NA
Graphite (natural)	China	1,230,000	77	1,600,000
Indium ⁷	China	650	66	990
Lithium	Australia	86,000	48	³ 180,000
Magnesium ⁷	China	830,000	88	³ 940,000
Manganese	South Africa	7,200,000	36	20,000,000
Nickel	Indonesia	1,800,000	50	3,600,000
Niobium	Brazil	75,000	90	83,000
Palladium	Russia	92	44	210
Platinum	South Africa	120	67	180
Rare earths (compounds and metals) ⁹	China	240,000	69	350,000
Scandium	China	NA	NA	NA
Tantalum	Congo (Kinshasa)	980	41	2,400
Tellurium ⁷	China	430	67	³ 640
Tin	China	68,000	23	290,000
Titanium (metal) ⁷	China	220,000	67	³ 330,000
Tungsten	China	63,000	81	78,000
Vanadium	China	68,000	68	100,000
Yttrium	China	NA	NA	NA
Zinc ⁷	NA	NA	NA	NA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Australia	500,000	31	1,600,000

|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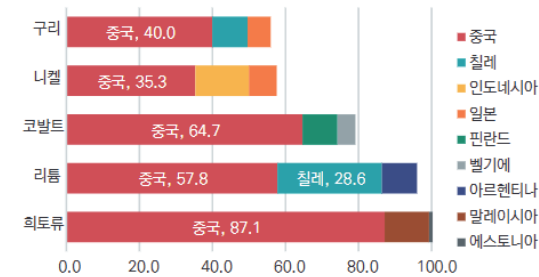
자료: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그림 1. 주요 광물의 생산국 및 가공국

주요 광물의 3대 생산국



주요 광물의 3대 가공국



자료 : IEA(2021)

자료 : IEA(2021)

자료: 박가현 외,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22년 32호, p. 12.

재인용.

컨설팅 회사인 Research Nester의 예측에 따르면 2023~2035년 전 세계 희토류 시장 규모는 연평균 8% 성장하여 2022년 100억 달러에서 2035년에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였다.⁸⁾ 또한 희토류는 기술 부문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가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각국은 수출제한이나 관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희토류 시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지배해 왔으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 및 매장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은 중요한 원소의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와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세계 산업의 희소금속 수요는 매년 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분석된 19개 금속 중 17개 금속의 시장 규모는 2022년 145억 달러에 달했고, 2028년에는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기술 시장이 거의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⁹⁾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희소금속 및 희토류 가격의 변동성과 공급망 중단에 대한 업계의 민감도이다. 현재 희소금속 및 희토류의 글로벌 생산은 글로벌 수요를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향후 세계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국가 간 무역 및 경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8) Research Nester, “Rare Earth Metals Market Report,” <https://www.researchnester.com/reports/rare-earth-metals-market/5142> (검색일: 2024.7.14.)

9)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на 2024 – 2028 го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geology-ekn/documents/details/608740?lang=ru&ysclid=lyyf3g3knb95165304> (검색일: 2024.3.16.)

III 중앙아시아 국가의 핵심광물 현황과 개발 정책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는 비철금속과 귀금속, 니오븀, 탄탈륨, 베릴륨을 포함한 희소금속의 중요한 생산지였으며, 희토류도 생산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텐산 산맥과 파미르 산맥 지역은 상당한 미개발 및 미발견 희소금속 및 희토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광물 탐사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그리고 떠오르는 희소금속 및 희토류 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및 해외 광산업체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산 부문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희토류에 대한 광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2012년에 해당 지역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에 대한 목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장지는 광물 노두 단계부터 과거에 개발된 광상까지 개발 상태가 다양하다. 2016년에 완료된 이 목록에는 카자흐스탄 160개, 우즈베키스탄 87개, 키르기스스탄 75개, 타지키스탄 60개, 투르크메니스탄 2개를 포함하여 총 384개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의 데이터에는 위치, 광물 매장지 유형¹⁰⁾, 지질, 생산, 자원 및 개발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¹¹⁾ 이러한 광물 매장지 수, 한국과의 관계, 정보 공개 및 접근성¹²⁾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의 현황과 개발 정책을 살펴본다.

1. 카자흐스탄의 핵심광물 현황과 개발 정책

카자흐스탄은 희소금속 및 희토류 등 핵심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유치, 기술 개발, 생산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12월 28일 “2024-2028년 희소금속 및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승인했다.¹³⁾ 이 종합계획은 국내외 투자,

10) 광물 매장지 유형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1) 탄산염암 및 알칼리 화성암 관련 매장지; (2) 페그마타이트 및 스카른/그레이젠 매장지; (3) 다른 희소금속 및 희토류 광물 매장지의 풍화에서 파생된 풍화된 지각 매장지(라테라이트 포함); (4) 퇴적물에 포함된 우라늄 매장지. “Rare Earth Element Occurrence Database of the Tien Shan Region, Central Asia,” <https://catalog.data.gov/dataset/rare-earth-element-occurrence-database-of-the-tien-shan-region-central-asia> (검색일: 2024.6.8.)

11) “Rare Earth Element Occurrence Database of the Tien Shan Region, Central Asia,” <https://catalog.data.gov/dataset/rare-earth-element-occurrence-database-of-the-tien-shan-region-central-asia> (검색일: 2024.6.8.)

12)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통계 자료와 마찬가지로 희소금속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희소금속 탐사·개발 수준은 대학 또는 연구실 수준에 불과하다. 타지키스탄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까지 생산하도록 하는 국내 제련 의무화, 폐금속 수출 금지 등 희소금속 채굴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3) 이 문서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특히 전문 투자 펀드를 유치하여 양호한 산업 발전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탐사, 채굴, 가공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최종 제품 생산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투자유치 환경 조성이다. 카자흐스탄의 희소금속 산업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자원 확대 및 기술 도입이다. 희소금속 및 희토류 자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출 기술을 도입한다. 셋째, 생산 시설 현대화이다. 기존 생산 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신제품 개발이다. 새로운 희소금속 및 희토류 제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다섯째, 규제 환경 정비이다. 희소금속 및 희토류 산업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글로벌 생산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희소금속 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종합계획 문서에는 광물자원 기반 분야에서 탐사 및 생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 규모가 40% 증가하고 카자흐스탄 기업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제품 생산량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일부 희소금속 및 모든 희토류의 매장량에 대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는 것은 업계의 투자유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희소금속 및 희토류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리튬을 포함한 다수의 희소금속의 매장량에 대한 기밀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두 명의 카자흐스탄 하층토 사용자가 리튬 매장지에서 지질탐사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리튬 제품을 생산하기로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¹⁴⁾

[표 3] 2024-2028년 카자흐스탄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조치 사항

주요 방향	세부 내용
광물자원 기반 발전	국가 광물자원 목록에 포함된 가장 유망한 희소금속 및 희토류를 개발하고 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
	11개 지역에서 희토류 금속 탐사 작업 수행
	희소금속 및 희토류 금속 관련 지질학적 연구 지원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해 생성된 인공 광물 생성물을 재평가하여 자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
희소금속 및	바얀콜(Bayankol), 칼바나림(Kalba-Narym) 지역에서는 육상의 리튬 광맥, 아랄해와 카스피해 지역에서는 염수 및 염호에서 리튬 탐사
	해외에서 수입한 텅스텐 황화물과 니켈 합금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텅스

в на 2024 – 2028 го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geology-ekn/documents/details/608740?lang=ru&ysclid=lyyf3g3knb95165304> (검색일: 2024.3.16.)

14)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расль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https://pricom.kz/novosti-kazhastana/kak-budet-razvivatsya-otrasl-redkih-i-redkozemelnyh-metallov-v-blizhajshie-pyat-let.html> (검색일: 2024.3.16.)

희토류 생산 발전	텐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하고, 관련 국영 기업(RSE Zhezkazganredmet)의 자본을 확충
	쨬즈카즈간레드메트(RSE Zhezkazganredmet)를 기반으로 한 텅스텐 금속 생산
	암모늄 퍼레네이트를 원료로 텅스텐 바, 막대, 와이어, 파이프 등의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생산을 진행
	카자흐스탄 내 광물 자원 관련 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산업 규제	희소금속 및 희토류의 매장량과 생산량에 대한 비밀 해제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 제고
	희소금속 및 희토류 금속 관련 국가 및 산업 표준 개발 및 승인
	희소금속 및 희토류 금속의 가격 책정 기준 마련 및 승인
	전문적인 국제 행사 및 비즈니스 미팅 개최 등 국제 협력

자료: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на 2024 – 2028 годы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124개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가 확인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가 시추 및 채굴에 가장 매력적인 곳은 다음과 같은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이다.

[표 4] 카자흐스탄의 주요 핵심광물 및 광상

광물명	주요 광상
바나듐	Kurumsak, Bala-Sauskandyk
티타늄 및 지르코늄	Karaotkel, Obukhovskaya, Shokash, Shpakovka, Kumkol, Sabindykol, Prognoznoe, Gorkovskoe, Berezovskoe, Zayachya, Druzha, Akespe
탄탈륨 및 니오븀	Verkhniy-Irgiz, Quartz, Kalay-Tapkan, Verkhne-Baimurzinskoe
리튬	Yubileinoe, Verkhne-Baymurzinskoye, Bakenny, Belogorskoye, Akhmetkino, Medvedka
몰리브덴 및 텅스텐	Koktenkol, Drozhilovskoye, Verkhneye Kairakty, Smirnovskoye, South Zhaur, Zhanet, Batystau, Akshatau, Karaoba, Bainazar
베릴륨	Nurataldy, Karajal, Darat
희토류	Akbulak, Kundybay, Verkhnee-Espe, Moynkum, Akdala, Talayryk, Melovoye, Tomak, Taibogar, Tasmurun

자료: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на 2024 – 2028 годы

2. 우즈베키스탄의 핵심광물 현황과 개발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희소금속을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희소금속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아직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소금속 탐사, 개발,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4년 4월 29일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지질, 광업 및 야금 산업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 2023년 광업 생산량은 약 110억 달러에 달했지만, 대부분은 귀금속과 비철금속에서 나오며, 산업적으로 중요한 광물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핵심광물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광물이 32종이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6종의 핵심광물이 채굴되고 있다. 또한 백금, 인듐, 바나듐 금속은 물론 텅스텐, 몰리브덴, 레늄, 아연, 망간을 함유한 광물로부터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핵심광물의 기존 매장지 개발과 신규 매장지 탐사 확대를 지시하였다. 또한, 해외 전문가 및 투자자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희토류 수요 고려를 고려하여 5억 달러 규모의 희토류 추출 및 가공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핵심광물 개발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접근 방식과 선도적인 기관 및 연구소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¹⁵⁾

한편, 2023년 7월 광업 및 지질부 차관 아잠 카디르호드자예프(Azam Kadirhodzhaev)는 2017-2022년에 31,000km²에 대한 지질탐사가 진행되었고 산악 지역의 35%가 탐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광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58,000km²에 대한 지질탐사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산간 지역의 전체 탐사 수준을 78.4%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¹⁶⁾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으로는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텔루륨, 셀레늄, 레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두는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각각 세계 7위,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텅스텐¹⁷⁾과 몰리브덴이다.¹⁸⁾ 우즈베키스

15) “Рассмотрены планы в области геологии и горн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https://president.uz/ru/lists/view/7188> (검색일: 2024.5.19.)

16) “Ўзбекистан – в десятке лидеров по добыче золота, меди и урана,” https://uza.uz/ru/posts/uzbekistan-v-desyatke-liderov-po-dobyche-zolota-medi-i-urana_498395 (검색일: 2024.5.19.)

17) 텅스텐의 전략적 매장량은 지자크(Jizzakh), 나보이(Navoi),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의 9개 광산에 분산돼 있다. 이 광산 중 일부는 이미 개발됐고 사우트베이(Southbay), 약스톤(Yaxton), 호드자딕(Khodjadik), 구스소이(Gussoy) 등의 다른 광산은 향후 개발될 잠재적 텅스텐 원료 기지이다. “Uzbekistan boasts total of 2,537 mineral mines, 41 of them possessing radioactive metals,” <https://daryo.uz/en/2023/12/22/uzbekistan-boasts-total-of-2537-mineral-mines-41-of-them-possessing-radioactive-metals> (검색일: 2024.7.20.)

18) “텅스텐과 몰리브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꼭 데려와야 할 희소금속,” !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sGbn=243&bbsSn=243&pNttSn=213229 (검색일: 2024.4.16.)

탄의 광업 및 지질부에서 발표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희소금속 매장량은 표5와 같다.

[표 5]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희소금속 매장량

(단위: 톤, 2023년 말 기준)

광물명	매장량(톤)	광물명	매장량(톤)
몰리브덴	373,400	텅스텐	2,600
바나듐	112.7	인듐	38.9
리튬	178,500	레늄	804.2
텔루륨	2,800	흑연	1,300,000
게르마늄	74.6	셀레늄	26,300

자료: Uzbekistan's Critical Minerals: Unlock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¹⁹⁾

우즈베키스탄은 전술한 카자흐스탄과 후술할 키르기스스탄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산업 발전 중합계획이나 지질 및 광산업 발전 개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은 아직 없지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로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가스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희소금속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희소금속 산업 육성 정책은 단순히 자원개발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키르기스스탄의 핵심광물 현황과 개발 정책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지질 및 광업 분야의 발전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2018-2040년 키르기스스탄 국가 발전 전략(2018년 10월 31일 대통령령 221호)에 따르면, 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2021년 1월 29일 대통령령 5호 “키르기스스탄 광업 분야 개혁에 관한 사항”에서도 광업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22년 말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부가 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2023-2035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지질 및 광산업 발전 개념”이 공개되었다.²⁰⁾ 이 개념의 주요

19) Ministry of Mining Industry and Geolog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bekistan's Critical Minerals: Unlock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https://asiacleanenergyforum.adb.org/wp-content/uploads/2024/06/Kuhinur-Shukurjonov.pdf> (검색일: 2024.8.18.)

목표는 지질 및 광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첨단 기술, 장비 및 혁신을 도입하여, 광물 탐사, 평가, 시추, 채굴 및 가공의 질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하고, 국제 시장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전략적 규제, 통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개념은 지질 및 광업 분야를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개념은 2018-2040년 키르기스스탄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이다. 법률 및 세제 개편과 관련된 결정은 포괄적인 과학적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둘째, 혁신 기술 장려이다. 탐사, 채굴, 가공 분야에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법규 준수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키르기스스탄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넷째, 투자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소유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다섯째, 정보 공개이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질 조사, 광물 채굴 및 가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여섯째, 안전 및 노동 보호 강화이다. 광업 분야의 안전 및 노동 보호 관련 법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일곱째,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광물자원을 비축하는 국가 기금을 조성한다. 이 원칙들은 키르기스스탄의 광업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 개념에서 광업 분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업 분야를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관리하는 정부 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별 추진,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질 및 광산업 발전 개념에 따라 지속적인 지질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 매장량을 늘리고 장기적인 광물자원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광산 개발을 통해 도로, 발전소, 도시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한다.

[표 6] 키르기스스탄 국가 광물 자원 목록 중 핵심광물 현황

20) 이 개념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еологической 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Ки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2023-2035 годы,” <https://www.gov.kg/ru/npa/s/4298> (검색일: 2024.3.30.)

(2022년 1월 1일 기준)

핵심광물명	단위	광상 수	매장량
수은	톤	5	42,783.4
안티몬	톤	10	273,484.5
주석	톤	2	209,764.3
텅스텐(WO3)	톤	2	123,160.2
구리	천 톤	15	796
납	천 톤	4	47.7
아연	천 톤	3	32.1
희토류	천 톤	1	63.3
베릴륨	톤	3	25,247.2
몰리브덴	톤	2	3,733.3
비소	톤	2	94,718
비스무트	톤	3	6,227.7
알루미늄(알루미나 Al2O3)	천 톤	2	199,470.8
지르코늄	천 톤	1	34.1
코발트	톤	1	273
티탄마그네타이트	천 톤	1	1,498.6
토륨	톤	1	8,496.3
우라늄	톤	2	4,925.9
인	톤	1	12,498.3
플루오르석(형석)	천 톤	5	4,105

자료: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еологической 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2023-2035 годы²¹⁾ 중 핵심광물 분야 발췌

키르기스스탄 아킬벡 자파로프(Акылбек Жапаров) 총리는 2023년 11월 말 영국 방문시 MINEX-유라시아 컨퍼런스²²⁾에 참석하여 키르기스스탄의 투자 매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의 매장지가 15,000개 이상 발견되었으며 그중 500개는 상세한 지질탐사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국가 광물자원 목록에는 금, 은,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희토류 금속, 안티몬, 주석, 철 광석, 납 등 51가지 유형의 광물에 대한 1,020개의 광상이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전체 GDP의 6% 이상과 수출의 41%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²³⁾

키르기스스탄 의회(Жогорку Кенеш)는 2024년 6월 13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우라늄 및 토륨 채

21) <https://www.gov.kg/ru/npa/s/4298> (검색일: 2024.3.30.)

22) 2023년 11월 27일 개최된 제11차 MINEX-유라시아 컨퍼런스는 “아르메니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지속 가능한 광업”(Sustainable Mining in Armenia, Mongolia, Kazakhstan, Kyrgyzstan and Uzbekista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핵심광물 공급에 있어 유라시아 광산 산업의 역할과 광업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논의하였다. “MINEX Eurasia,” <https://2023.minexeurasia.com/> (검색일: 2024.6.16.)

23) “Акылбек Жапаров нашел общий язык с Ротшильдом,” https://www.ng.ru/cis/2023-11-29/1_5_8889_kyrgyzstan.html?ysclid=lz0yz865wa933407422 (검색일: 2024.6.16.)

굴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²⁴⁾ 2019년 12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우라늄 및 토륨 광상을 탐사, 시추 및 개발하기 위한 하층토의 지질학적 연구와 관련된 활동이 이식쿨주의 키질옴폴(Kyzyl-Ompol) 광상을 둘러싼 환경오염 및 건강 위해(危害)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금지되었다. 하지만 자파로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광상 개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²⁵⁾ 키르기스 공화국 광부 및 지질학자 협회에 따르면, 키질옴폴 광상에는 티타노마그네타이트, 토륨, 인, 지르코늄, 우라늄 등이 매장되어 있다.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타쉬불락(Tash-Bulak)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160만 톤의 티타노마그네타이트, 3,500톤의 우라늄, 1,600톤의 토륨, 20~30만 톤 이상의 지르코늄 및 인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IV.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개발 협력 사례

미국, EU 등 주요 서방 국가들도 핵심광물의 가치사슬 내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9월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C(Central Asia) 5+1’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광물 협력을 강조하며 ‘C5+1 핵심광물 대화’(C5+1 Critical Minerals Dialogue) 출범을 제안했다. ‘C5+1 핵심광물 대화’는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핵심광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래 에너지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C5+1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자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핵심광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C5+1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명시하였다.²⁷⁾ 이 플랫폼에서 C5+1은 핵심광물의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관료와 민간 부문 산업 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해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

24) “Жогорку Кенеш одобрил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разработке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рана и тория,” <https://ru.sputnik.kg/20240613/zhogorku-kenesh-mestorozhdeniya-uran-razrabotka-1086047445.html?ysclid=lz0xarak57357897846> (검색일: 2024.6.15.)

25) “Добыча урана и тория станет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коном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https://rg.ru/2024/06/05/novyh-hvostov-ne-budet.html?ysclid=lz0twbc63o396049374> (검색일: 2024.6.15.)

26) “Разработка торие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даст Кыргызстану новый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https://rg.ru/2024/03/06/otkroiut-vtoroj-kumtor.html> (검색일: 2024.6.15.)

27) “C5+1 Leaders’ Joint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9/21/c51-leaders-joint-statement/> (검색일: 2024.5.18.)

고 2024년 2월 8일 C5+1 핵심광물 대화의 첫 회의가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주재로 개최되었다.²⁸⁾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다각화와 기술 개발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광물 목표를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2년 11월 7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 이집트에서 카자흐스탄 총리와 핵심광물, 배터리, 재생 수소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EU와 카자흐스탄 간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서명한 세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EU의 핵심광물 행동 계획(EU’s critical raw materials action plan)²⁹⁾에 따른 것이다. 양해각서는 핵심광물과 정제 원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한다. 또한 재생 가능한 수소 및 배터리 가치사슬을 개발하여 양국 경제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⁰⁾

또한, EU는 2024년 4월 6일 우즈베키스탄과 유럽의 기후 중립 산업,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발전에 필요한 핵심광물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Kudratov)와 MOU 체결 후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의 이번 양해각서는 EU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에는 경제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광업 산업 발전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EU는 우즈베키스탄이 구리, 몰리브덴, 금 등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핵심광물 보유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³¹⁾ 이 MOU는 EU로서는 녹색 및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핵심광물의 탐사, 생산, 가공에 필요한 기술 확보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다.

영국의 지질조사 기관인 British Geological Survey(BGS)는 2018년 2월 키르기스스탄 산업, 에너지 및 하층토 사용 국가위원회(ГКПЭН КР)와 지질탐사 기술 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

28) “Inaugural C5+1 Critical Minerals Dialogue among the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https://www.state.gov/inaugural-c51-critical-minerals-dialogue-among-the-united-states-and-kazakhstan-the-kyrgyz-republic-tajikistan-turkmenistan-and-uzbekistan/> (검색일: 2024.5.18.)

29)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Commission announces actions o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542 (검색일: 2024.6.16.)

30)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azakhstan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ble hydrogen value chains,”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strategic-partnership-between-european-union-and-kazakhstan-sustainable-raw-materials-batteries-and-2022-11-08_en (검색일: 2024.6.16.)

31) EU는 현재 캐나다(2021년), 우크라이나(2021년), 카자흐스탄(2022년), 나미비아(2022년), 칠레(2023년), 아르헨티나(2023년), 잠비아(2023년), 콩고민주공화국(2023년) 및 그린란드 자치구(2023년)와 핵심광물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Узбекистан и Евросоюз установил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в области критического сырья,” <https://www.gazeta.uz/ru/2024/04/05/eu-crm/> (검색일: 2024.4.13.)

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목표는 지질학 분야의 연구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 정보를 교환하며, 당사자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³²⁾ 키르기스스탄은 이 양해각서를 통해 국가 지질 및 지구물리학 연구 개발, 직원 교육, 지질 매핑, 광물자원 및 지하수 평가 등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 지질 조사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고 유익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24년 4월 말 키르기스 공화국 주재 영국 대사는 영국 지질학회(British Geological Society)가 키르기스스탄의 광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국 기업들이 광물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³³⁾ 영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핵심광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광물 채굴에도 우선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서방 국가들과 중아시아 국가의 협력 사례는 양측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글로벌 경제에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서방 국가의 목표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중아시아 국가의 목표, 즉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이다.

V. 한국-중아시아 핵심광물 개발 협력 및 확보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 중순 중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 기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에 대해 사실상 최상급의 협력 단계를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3~4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과 공동으로 맺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는 지질 조사-탐사-개발-정련-제련-상용화 등 전 주기에 걸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두 나라의 핵심광물 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³⁴⁾ 이에 따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경제안보'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MOU가 전술한 EU와도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된 바 있어, 또 다른 노력과 차별화된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32) “Кыргызстанские геологи буд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с британцами,” <https://vesti.kg/geologiya/item/50233-kyrgyzstanskie-geologi-budut-obmenivatsya-informatsiej-s-britantsami.html> (검색일: 2024.6.15.)

33)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3-2035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지질 및 광산업 발전 개념”에서 1938년부터 축적된 방대한 양의 지질 정보가 다양한 기관의 지질 자료실에 종이 문서 형태로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초기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지질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전자 매체에 저장하고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Британское геолог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может КР с цифровизацией данных о минер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https://economist.kg/biznes/2024/04/29/britanskoie-ghieologhichieskoie-soobshchestvo-pomozhiet-kr-s-tsifrovizatsiiei-dannykh-o-minieralnykh-istochnikakh/?ysclid=lz16zgh5f891669462> (검색일: 2024.6.15.)

34) “윤, ‘K-실크로드’로 중앙아 공략... 미래공동번영 기틀 닦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5_0002773727 (검색일: 2024.6.16.)



다행히 우즈베키스탄과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성과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관련 협력 플랫폼이 구축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희소금속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생산협회를 결성하고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고용점 희소금속 자원·원료산업의 현대화와 한국의 원활한 소재 수급을 위해 2019년 4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우즈베키스탄 국영 알말리광업공사가 공동으로 양국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희소금속센터’를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으로 광물가공기술 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산화몰리브덴을 활용해 고순도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모델이다.³⁵⁾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보유 고용점 희소금속(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고도화를 도모하고, 한국은 희소금속 수급 체계의 안정화 및 공구·장비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소재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3년에 한국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의 희소금속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³⁶⁾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는 한-우즈베크 협력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모델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다른 핵심광물 보유국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표 7] 한-우즈베크 희소금속협력센터(STC) 개요

35) 변현섭, “문재인 정부의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슬라브연구』 제38권, 1호 (2022), p. 32.

36) “텅스텐과 몰리브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꼭 데려와야 할 희소금속,” !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sGbn=243&bbsSn=243&pNttSn=213229 (검색일: 2024.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명칭 : Uzbekistan-Korea Scientific Technology Center on Rare Metals and Hard alloys ○ 면적: JSC UzRHTM내 연구동(사무·분석) 및 공정동(시제품 제작) * 우즈벡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 희소금속센터와 동일 구조 ○ 위치 : 치르치크시 (타슈켄트시 북동쪽 40km) ○ 역할 : 고순도 고융점 희소금속 기술협력, 희소금속 가공 및 분석장비 설치운영, 기술직 및 석·박사급 인력양성 등 ○ 특징 : 기존의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건물로 정비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한국산 장비를 우선 구축 		
외관	주요 구성	세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동(3개층) - 연면적 2,500m² (757평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 시편 준비실, 시약 보관실 ▶ 공정실험실, 분석실 ▶ 국제회의실: :한국희소금속센터와 IT종합솔루션으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동(1개층) - 연면적 720m² (218평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물 등 대형 장비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내부 자료

중앙아시아 국가와 핵심광물 중 리튬, 텅스텐의 지질탐사, 생산과 관련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2024년 6월 12일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동부 바케노 지역 리튬 광구의 본격 탐사를 주요 골자로 SK에코플랜트-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타우켄삼록(국영광물탐사회사)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 수석부총리의 방한과 요청으로 처음 시작된 카자흐 리튬 탐사·개발 공동연구 협의는 2022년 11월 양국 간 공동탐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2023년 6월 공동 현장 탐사를 거치며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 국가 간 업무협약 체결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바케노 리튬 광구 4개의 하층토(subsoil)를 탐사할 수 있는 사용권(license)을 KIGAM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향후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KIGAM은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추탐사, 선광 플랜트 구축 등을 단계별로 적용해, 탐사→개발→선광·제련→소재화에 이르는 협력을 추진해 리튬 현지 생산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리튬 광구 독점 탐사권 부여가 한국의 개발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KIGAM의 탐사 결과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뢰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이 카자흐스탄에 ‘KIGAM 연구분원’ 설립을 요청함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의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개발은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수급은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³⁷⁾

핵심광물 생산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 중에 강원도 정선군 일대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자원개발 중소기업인 '신동'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1,687만 톤 규모(약 2조 원으로 추산)의 텅스텐 광산 개발 지분을 100% 확보한 상태이다. 신동은 2008년 9월부터 지질탐사 작업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주)신동의 자회사인 '신동리소시스'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현재 '광업 및 지질부')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한 조인트 벤처 'Uz-Kor 텅스텐'을 현지에 설립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텅스텐을 국가 전략 광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해외 민간 기업과 자원개발 합작사를 세우면서 지분 51%와 경영권을 내준 것은 해당 사례가 최초이다. 이에 따라 신동리소시스는 2019년 3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텅스텐 광산 개발을 위한 1차 채광(採鑛) 면허를 발급받았고 이는 일차적으로 사우트베이(Sautabay)와 부르굿(Burgut)에 대해 1,000만 톤을 개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1년 9월 14일에는 신동리소시스가 텅스텐 광산 개발의 국가 지분 49%를 마저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해 100% 전량을 확보하게 됐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매물로 나온 지분을 협상 끝에 인수하게 되면서 가능했다.³⁸⁾ 이로써 신동리소시스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텅스텐 광산 개발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현지 생산된 텅스텐의 국내 공급으로 텅스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25개의 국내 가공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³⁹⁾

상술한 중앙아시아에서 핵심광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신동의 경우 회장이 2004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격으로 무역사절단과 함께 처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면서부터 정부 고위인사와 네트워크 및 신뢰를 구축해 왔던 경우이다. 이처럼 자원개발의 특성상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진출 국가의 정책 안정성과 연속성도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역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덜 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준이 높은 편으로, 민간기업의 개별 접촉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희소금속 탐사·개발·가공 등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 정보 공유 등 우호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협상 및 투자보장협

37) KIGAM의 잠재 자원량 추정 결과, 바케노 지역에 부존하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10년치 생산이 가능한(330만 대) 약 25,000톤 정도로 예측됐다. “지질자원연, 카자흐 리튬 광구 단독 탐사,” https://www.kigam.re.kr/board.es?mid=a10703040000&bid=0025&list_no=60097&act=view (검색일: 2024.6.15.)

38) “텅스텐과 몰리브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꼭 데려와야 할 희소금속,” !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sGbn=243&bbSn=243&pNttSn=213229 (검색일: 2024.4.16.)

39)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텅스텐... 우즈베크 광산 지분 전량 확보,”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10/25/PIOZ7RJGOZBUHHDHWFKIDW6U/ (검색일: 2024.4.16.)

정(BIT)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광물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한국 정부의 ODA 중점 협력 대상국이다. 상술한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 설립도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ODA 사업을 통해 희소금속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희소금속 연구, 지질 조사 및 탐사 등 기본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확인될 경우 우리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광업 분야 정부 관리 및 공기업 관계자 등과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광물 자원개발 관련 부처가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기업이 광물 자원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MINEX Central Asia⁴⁰⁾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광업 발전 및 투자 관련 포럼에 참석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산 개발 관련 기술 및 투자 동향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4년 6월 19-20일 비슈넵에서 개최된 제10차 MINEX Central Asia 포럼에 중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북미, 중동 등 23개국 140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한 바 있다.

넷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에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30년 가까운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하에 중앙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유효한 국가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고 남북 지역의 파벌에 따라 대통령이 교체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 기관 간의 상호 작용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특히, 광물 개발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지방정부의 수동적 자세와 국가 통제가 약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1년 쿰토르 광산 개발에 참여한 캐나다 회사 센터라 골드(Centerra Gold)로부터 쿰토르 광산을 압류하여 국유화하면서⁴¹⁾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의 이미지가 손상된 바 있다. 또한, “2023-2035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지질 및 광산업 발전 개념”에서 현지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지질탐사 및 채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광산을 '남획'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탐사 평가 작업 중에 유망하고 대규모의 광상이 발견될 경우, 국가가 상세한 지질탐사와 채굴 작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광상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0) “В Бишкеке завершился второй день геолог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MINEX Central Asia»,” <https://www.geology.kg/news/В-Бишкеке-завершился-второй-день-геол/> (검색일: 2024.6.29.)

41) 쿰토르 광산의 국유화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바람: “Власти Киргизии национализировали золоторудн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Кумтор», принадлежавшее канадской компании Centerra Gold,” <https://theins.ru/news/246560> (검색일: 2024.7.20.)

따라서 중앙정부 간 탐다운 방식의 협력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주민을 위한 수익 환원 사업 추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헤징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중의 하나로 2025년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C5+1 방식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금번 순방시 합의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광물 확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광물 및 소재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제련·가공 설비 운영 시 높은 임금 및 전력 요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열위하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법'을 통해 핵심광물·소재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내 생산 시 재정보조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활용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²⁾

VI. 결론

희소금속,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등 첨단산업 및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자원 민족주의의 증가와 경제 안보 강화 추세로 공급망의 단절과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요 핵심광물의 생산과 수출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잠재적인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대부터 중요한 광물을 생산해 왔으며 여전히 주요 공급업체로 남아 있다.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정치·경제·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공급 위협을 완화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할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광물 정책과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협력 분석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미국, EU 등 주요 국가는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는 등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자원 획득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정부 지원과 법적, 전략적 틀

42) “무협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정책 지원 필요"...규제·애로 건의,”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4072&siteId=1&logGb=A9400_20240604 (검색일: 2024.6.6.)

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ODA 사업을 통한 중양아시아 국가들에 인프라 및 개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강력한 양자 및 다자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에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자원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을 혁신하고 조정하여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광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중양아시아를 중요한 대안 시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훈. 『핵심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20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김종덕 외.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3 No. 16. 2023년 12월 22일.
- 김지선. “미(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결과 및 시사점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을 중심으로.” 『POSRI 이슈리포트』 2021.6.
- 김태현, 박지민.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분석』. 2021.8.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박가현 외.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22년 32호.
- 변현섭. “문재인 정부의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슬라브연구』 제38권. 1호 (2022).
- 임지훈. 『핵심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리튬』. 20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조은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2023. 산업연구원.
-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2/view#> (검색일: 2024.4.20.)
- “무협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정책 지원 필요'...규제·애로 건의.”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4072&siteId=1&logGb=A9400_20240604 (검색일: 2024.6.6.)
-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텅스텐... 우즈베크 광산 지원 전망 확보.”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10/25/PIOZ7RJGOZBUHHDOHWAFKIDW6U/ (검색일: 2024.4.16.)
- “윤, 'K-실�크로드'로 중앙아 공략... 미래공동번영 기틀 닦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5_0002773727 (검색일: 2024.6.16.)
- “지질자원연, 카자흐 리튬 광구 단독 탐사.” https://www.kigam.re.kr/board.es?mid=a10703040000&bid=0025&list_no=60097&act=view (검색일: 2024.6.15.)
- “텅스텐과 몰리브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꼭 데려와야 할 희소금속!”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13229 (검색일: 2024.4.16.)
- “C5+1 Leaders' Joint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9/21/c51-leaders-joint-statement/> (검색일: 2024.5.18.)
- “Commission announces actions o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542 (검색일: 2024.6.16.)
- “Inaugural C5+1 Critical Minerals Dialogue among the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https://www.state.gov/inaugural-c51-critical-minerals-dialogue-among-the-united-states-and-kazakhstan-the-kyrgyz-republic-tajikistan-turkmenistan-and-uzbekistan/> (검색일: 2024.5.18.)
- “MINEX Eurasia.” <https://2023.minexeurasia.com/> (검색일: 2024.6.16.)
- Ministry of Mining Industry and Geolog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bekistan's Critical Minerals: Unlock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https://asiacleanenergyforum.adb.org/wp-content/uploads/2024/06/Kuhinur-Shukurjonov.pdf> (검색일: 2024.8.18.)
- “Rare Earth Element Occurrence Database of the Tien Shan Region, Central Asia.” <https://catalog.data.gov/dataset>

- /rare-earth-element-occurrence-database-of-the-tien-shan-region-central-asia (검색일: 2024.6.8.)
- Research Nester. “Rare Earth Metals Market Report.” <https://www.researchnester.com/reports/rare-earth-metals-market/5142> (검색일: 2024.7.14.)
-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Kazakhstan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ble hydrogen value chains.”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strategic-partnership-between-european-union-and-kazakhstan-sustainable-raw-materials-batteries-and-2022-11-08_en (검색일: 2024.6.16.)
-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https://pubs.usgs.gov/publication/mcs2024> (검색일: 2024.7.13.)
- “Uzbekistan boasts total of 2,537 mineral mines, 41 of them possessing radioactive metals.” <https://daryo.uz/en/2023/12/22/uzbekistan-boasts-total-of-2537-mineral-mines-41-of-them-possessing-radioactive-metals> (검색일: 2024.7.20.)
- “Акылбек Жапаров нашел общий язык с Ротшильдом.” https://www.ng.ru/cis/2023-11-29/1_5_8889_kyrgyzstan.html?ysclid=Iz0yz865wa933407422 (검색일: 2024.6.16.)
- “Британское геологиче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может КР с цифровизацией данных о минер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https://economist.kg/biznes/2024/04/29/britanskoie-ghieologhichieskoie-soobshchiestvo-pomozhiet-kr-s-t-sifrovizatsiiei-dannykh-o-minieralnykh-istochnikakh/?ysclid=Iz16zgh5f891669462> (검색일: 2024.6.15.)
- “В Бишкеке завершился второй день геолог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MINEX Central Asia».” <https://www.geology.kg/news/В-Бишкеке-завершился-второй-день-геол/> (검색일: 2024.6.29.)
- “Власти Киргизии национализировали золоторудное месторождение «Кумтор», принадлежавшее канадской компании Centerra Gold.” <https://theins.ru/news/246560> (검색일: 2024.7.20.)
- “Добыча урана и тория станет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коном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https://rg.ru/2024/06/05/novyh-hvostov-ne-budet.html?ysclid=Iz0twbc63o396049374> (검색일: 2024.6.15.)
- “Жогорку Кенеш одобрил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разработке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рана и тория.” <https://ru.sputnik.kg/20240613/zhogorku-kenesh-mestorozhdeniya-uran-razrabotka-1086047445.html?ysclid=Iz0xarak57357897846> (검색일: 2024.6.15.)
-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отрасль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https://pricom.kz/novosti-kazahstana/kak-budet-razvivatsya-otrasl-redkih-i-redkozemelnyh-metallov-v-blizhajshie-pyat-let.html> (검색일: 2024.3.16.)
-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на 2024 – 2028 го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geology-ekn/documents/details/608740?lang=ru&ysclid=lyyf3g3knb95165304> (검색일: 2024.3.16.)
-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редких и редкоземельных металлов на 2024 – 2028 го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geology-ekn/documents/details/608740?lang=ru&ysclid=lyyf3g3knb95165304> (검색일: 2024.3.16.)
-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еологической и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2023-2035 годы.” <https://www.gov.kg/ru/npa/s/4298> (검색일: 2024.3.30.)
- “Кыргызстанские геологи буд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информацией с британцами.” <https://vesti.kg/geologiya/item/50233-kyrgyzstanskije-geologi-budut-obmenivatsya-informatsiej-s-britantsami.html> (검색일: 2024.6.15.)
- “Разработка торие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даст Кыргызстану новый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https://rg.ru/2024/03/06/>

otkroiut-vtoroj-kumtor.html (검색일: 2024.6.15.)

“Рассмотрены планы в области геологии и горн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https://president.uz/ru/lists/view/7188> (검색일: 2024.5.19.)

“Узбекистан – в десятке лидеров по добыче золота, меди и урана.” https://uza.uz/ru/posts/uzbekistan-v-desyatke-liderov-po-dobyche-zolota-medi-i-urana_498395 (검색일: 2024.5.19.)

“Узбекистан и Евросоюз установил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в области критического сырья.” <https://www.gazeta.uz/ru/2024/04/05/eu-crm/> (검색일: 2024.4.13.)

사회과학 분과

사회과학분과 C: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워 시대 유라시아의 정치경제

사회: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러대화 정치국제관계분과 위원)

- ▶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 AHP 분석을 중심으로** 463
 - 발표: **이주연**(한양대)
 - 토론: **장하영**(경북대)

- ▶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양상** 473
 - 발표: **김유정**(한국외대)
 - 토론: **윤영민**(한양대)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라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동향 분석** 483
 - 발표: **최배성**(한양대)
 - 토론: **정선미**(한국외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 AHP 분석을 중심으로

이주연 (한양대)

📖 목 차

- 1.서론
2. AHP 분석기법
- 3.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성



Part 1.
서론

서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선행연구 동향

- KCI 등재 학술지 기준으로 2022년 80/175편, 2023년 83/238편, 2024년 36/143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전쟁 요인분석, 전쟁 전망, 전쟁 상황의 특징, 전쟁 이후 양자, 지역, 국제사회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분석의 경우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주요 국제관계 이론을 비롯하여, 전망이론, 썬기전략 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역사, 지정학 충돌, 지역 및 국제사회 패권 경쟁 등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선행연구 내용을 몇가지 소개해 보자면 아래와 같음.

서론

국제요인의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 홍완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의 내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여부와 관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면전, 유라시아 지배권을 둘러싼 미래 패권전쟁, 자유진영과 수정주의 진영 사이 가치전쟁 등의 성격이 있고, 이중 핵심 동인은 미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패권 쟁취를 위한 힘겨루기의 결과로 분석했음.*
- 장세호는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 3층위 복합전으로 설명했음. 즉, 연구자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수정주의 세력 사이의 충돌, 나토의 확장으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딜레마, 돈바스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평가함.**

*홍완석,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향, 함의,” 『슬라브연구』 38권 3호 (2022), pp.57-91.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 대안』 6권 2호(2022), pp.5-36.

 서론

국내요인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주연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푸틴 지지율이 2020년 4월 59%까지 하락했고, 2021년 나발니 독극물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까지 발생 등 정권 불안정 요인이 우크라이나 침공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함.*

-한편, 집단감정의 관점에서 러시아 국민이 지니고 있는 반서방, 애국주의적 집단감정이 형성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

*이주연,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요인 분석," 『한국 시베리아연구』 26권 3호 (2022), pp.41-75.

 서론

개인요인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김선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ovbez(국가안보회의)의 의사결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연구자는 sovbez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결정 과정을 주도할 경우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sovbez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 극소수 엘리트들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음.*

-제성훈은 푸틴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분리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독자적 민족 개념을 부정하며, 공동의 문화적 공간 속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반러 정서를 확산한다는 인식', '우크라이나가 군사화하고 있다는 인식' 등 푸틴의 제한적 합리성의 결과로 전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음.**

*김선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슬리브연구』 38권 4호 (2022), pp.1-27.

**제성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과 푸틴의 인식," 『슬리브학보』 37권 2호(2022), pp.161-192. (연구자는 총 7가지의 푸틴 인식으로 설명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인지만 소개했다.)

서론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AHP 계량분석을 통해 계량화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특이성이 있음.



AHP 분석

AHP 분석 기법*

-분석적 계층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1971년에 고안된 의사결정방법으로 평가항목별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수준(level)별로 계층화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임.

-AHP 분석기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상대적 중요도, 논리성 및 일관성 논리를 중심으로 주고 나적 판단과 시스템적 판단을 조율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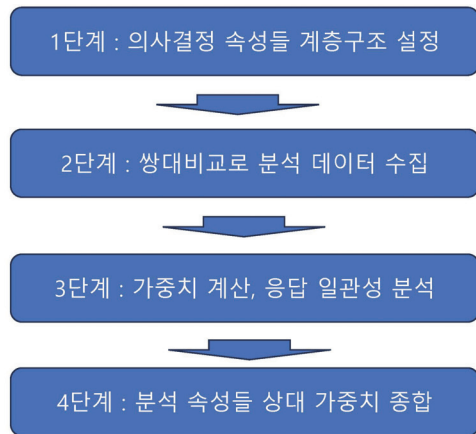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AHP 분석은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행정, 정책결정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이 상대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된 결과의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적용하려 함.

전재형 외 3명, "AHP 분석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3집 2호 (2018), p42.

AHP 분석

AHP 분석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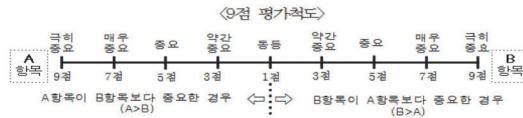
전재형 외 3명, "AHP 분석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3집 2호 (2018), p43.

AHP 분석

AHP 분석 기법: 쌍대비교 척도 예시*

[AHP 분석용 설문지 예시]

- 다음에 제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설문지의 각 항목간 중요도를 비교평가(쌍대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척도
 - 쌍대비교를 위한 평가척도로는 「A항목을 기준으로 B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또는 「B항목을 기준으로 A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9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대비교의 평가척도

중요도	정의	내용
1	동등	두 항목의 중요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약간 중요	두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약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중요	두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매우 중요	두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극히 중요	두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4, 6, 8	위 값들의 중간 값	비교 값이 위 값들의 중간값(예 : 2는 1, 3의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출처: <https://blog.naver.com/onestopsurvey/221116993519>

AHP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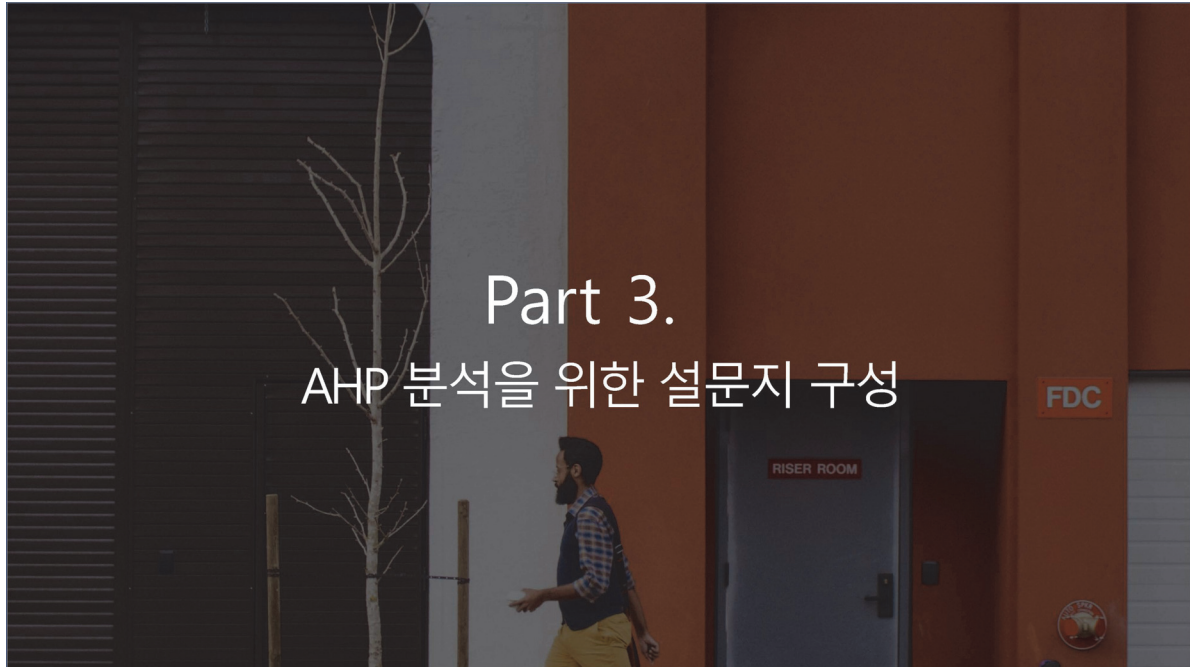
AHP 분석 기법: 일관성 지수와 종합평가*

-3단계에서 일관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AHP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임. 왜냐하면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신뢰도 문제가 발생함.

-일관성 비율의 경우 0.1 이하는 적절한 수치이고, 0.2 이하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함.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일관성이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해야 함.

-마지막 4단계의 경우 최하위 계층 속성들 사이의 종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을 통해 한국 학자들이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음.

진제형 외 3명, "AHP 분석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3집 2호 (2018), p43.



📌 설문지 구성

설문 대상 설정

-설문지 작성에 앞서 설문의 대상은 국내 러시아, 군제관계, 안보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설문 대상으로 설정함.

-이처럼 설문조사 대상을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로 설정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설문 대상의 전공자를 러시아학에 한정하지 않는 것은 설문 조사에 앞서 러시아학을 전공하거나, 러시아에 유학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 사이 차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설문지 구성

AHP 2계층

-신현실주의 이론을 제시한 왈츠는 전쟁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미지 개념을 제시함. 왈츠는 인간, 국가, 국제체제로 구분하였고, 분석의 내용으로 인간의 경우 인간의 본성과 행태 (이기심, 공격성, 권력의지 등)를, 국가의 경우 국가의 내부구조(정치경제, 군사력, 대외정책 등)를 그리고 국제체제의 경우 무정부 속성(세력균형 등)

-로즈나우는 예비이론을 통해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계변수로 설정하여 외교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음. 한편, 브레처는 외교정책 결정이 작동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었는데 작동환경은 외적(국제, 지역, 양자)와 내적(군사, 경제, 정치)환경으로 나누어지며, 심리적 환경은 외교정책결정자의 외교 인식으로 분류했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시사점을 합하여 AHP 2계층을 범세계, 국가, 개인 요인으로 분류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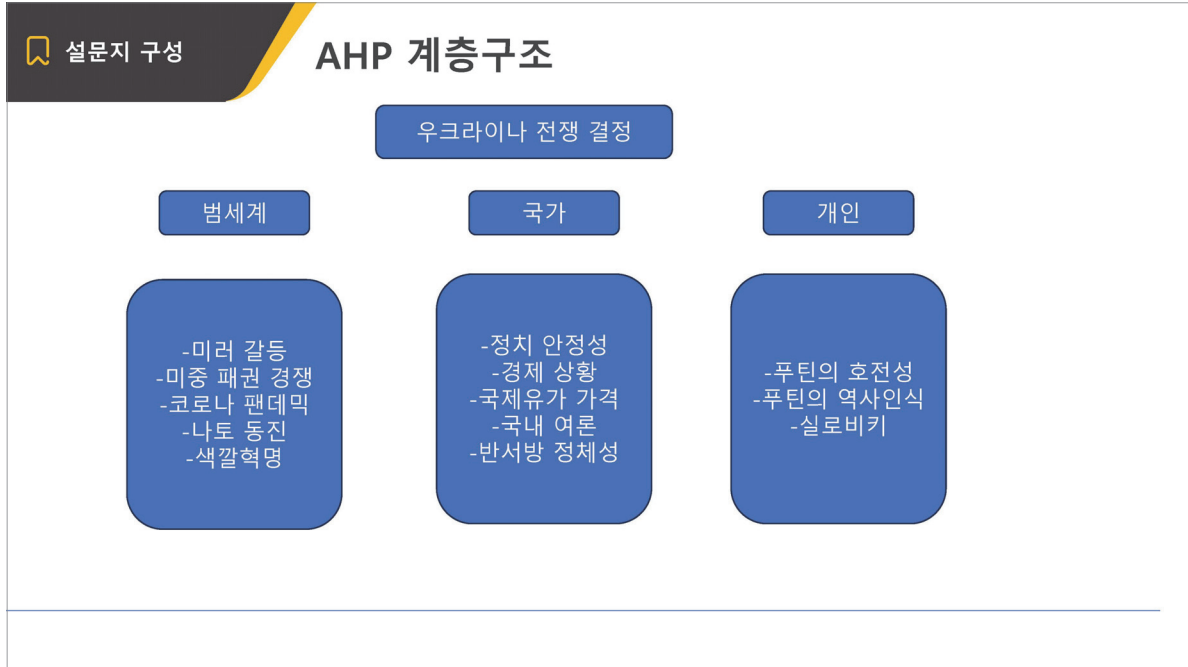
📖 설문지 구성

AHP 3계층

-3계층의 분류는 지금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2계층 아래 조정하여 분류하는데, 우선 범세계는 국제, 지역, 양자 차원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2개 이상 국가의 관계임. 가령 미러 갈등, 미중패권 경쟁, 나토, 탈러시아화 등이 있음.

둘째, 국가의 경우 러시아 국내상황을 조명하는데 정치, 경제, 여론, 역사 등이 포함됨. 한편, 분석수준을 분류할 때 ‘집단’을 국가 혹은 개인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국민과 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은 국내 요인으로 간주함.

셋째, 개인의 경우 대통령, 엘리트 등을 포함함. 엘리트의 경우 실로비키, 시미야 등 푸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을 포함함.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양상

김유정 (한국외대)

I. 들어가는 말

디지털 전환 확산

- 21세기 4차 산업혁명 대두 -> 디지털 전환 관심 고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발전
-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디지털 기술 적용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연구 필요성

- 러시아의 주요 국가발전 방향
 - 유라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발전 선두국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한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
-

II.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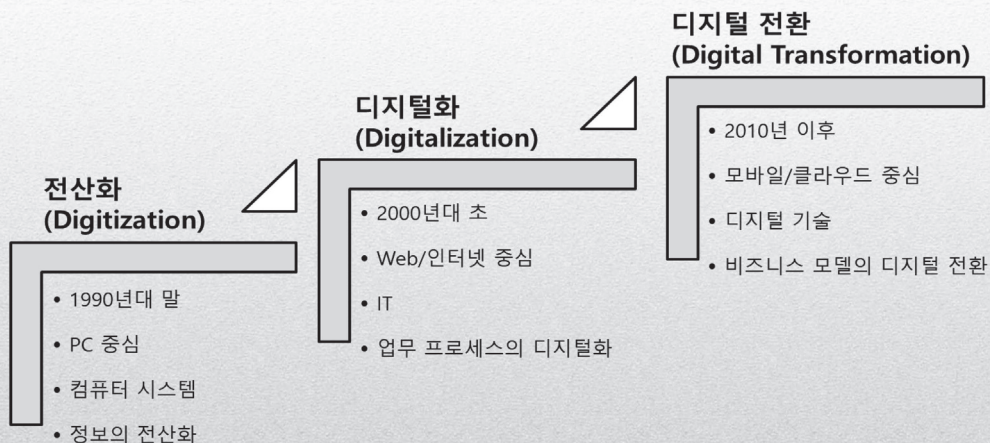
1. 디지털 전환 개념

중점 분야	연구자	정의
비즈니스	Ahmad, A. et. al.	조직이나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로 이어지는 변화
	Brenner B., Hartl B.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이끄는 단계
	Vial, G.	정보, 컴퓨팅, 통신, 연결 기술의 조합을 통해 기업을 개선하는 과정
	Авдеева И.Л.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현대 디지털 기술의 도입
전체적 변화	윤기영, 이상지	디지털화로 말미암은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변혁, 혁명적 변화
	이상원	개인과 조직, 사회 전체에 디지털화가 초래한 총체적인 영향
	조재영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변화
	박안선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활용으로 인한 사회 및 산업체제 전반의 지속적인 변화
	Окунев В.И.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 형성의 근본적인 신호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및 경제 전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II. 디지털 전환

2. 디지털 전환 발전 단계



II. 디지털 전환

3. 팬데믹이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 이용 확대:**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도구 및 플랫폼의 사용 증가
- **전자상거래의 성장:**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오프라인 매장 폐쇄 등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
- **디지털 기술 발전 가속화:**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련 디지털 기술 발전 가속화
- **정부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 팬데믹 대응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이용 확대 및 온라인 행정처리 확산

III.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1.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국가발전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
- 2018년 기존의 통신연론부를 디지털개발통신연론부로 명칭 변경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 조성
- 러시아의 디지털 환경
 - 2010~2017년 동안 연평균 17% 속도로 성장
 - 2026년까지 러시아 기업의 90% 이상이 디지털 전환 완성 예상
 - 2022년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의 디지털 전환 지표가 계획한 수준 이상

지표	계획	달성률
디지털 성숙도 달성 수준(%)	56.2	65.8
전자형태로 이용가능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비중(%)	65	99.97
인터넷 접속 가정 비율(%)	80	86.1
자국산 IT 솔루션 투자규모(억 루블)	5,191	5,219

출처 : Сальков А.В., "Особенности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Прогресс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5) (2023), p. 11.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2.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2016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대응전략
- 2035년까지 글로벌 기술 선도국가 조건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 2024년 9월 기준, 운송(AutoNet), 항공(AeroNet), 신경공학(NeuroNet), 해양(MariNet), 보안(SafeNet), 기술(TechNet), 생활(HomeNet), 농업(FoodNet), 의료(HealthNet), 에너지(EnergyNet), 스포츠(SportNet), 하이브리드 패션(WearNet), 게임(GameNet), 교육(EduNet), 환경(EcoNet)의 15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2.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디지털 경제’ 국가프로그램

- 2017년 채택된 러시아 디지털 전환의 주요 메커니즘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첨단기술 도입 가속화를 위해 채택
- 2018년 분야별 연방프로젝트가 설정된 문서와 2019년 분야별 예산규모가 명시된 하위 문서 채택으로 총 6개 방향(법적 기반 마련, 정보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인재양성, 정보보안, 디지털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초기 프로그램 기한은 2024년까지였으나, 2030년까지로 연장됨
- 디지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구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적용,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강화라는 특징이 나타남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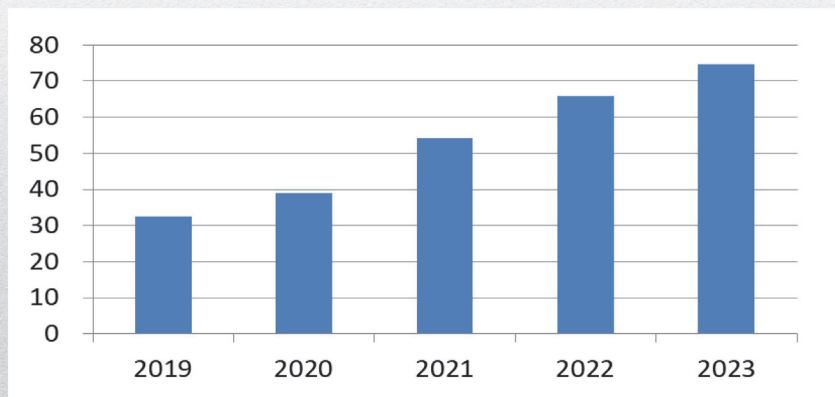
2.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전략

3) 2030년 및 2036년까지 국가발전목표

- 보건, 교육, 교육 등 핵심 **경제 및 사회 영역**, 정부 부문의 '디지털 성숙' 달성
- 데이터 시장 형성, 유통, 저장, 교환, 보안 활성화
- **인터넷 이용 가정 비중**을 2030년 97%, 2036년 99%로 증가
- 2025~2030년 러시아산 솔루션 투자 성장률이 GDP 성장률의 2배
- 2030년까지 경제 핵심 부문의 기관에서 **자국산 SW 사용** 비중 최소 80%
- 2030년까지 정부기관, 국영기업에서 **자국산 SW 사용** 비중 95%로 증가
- 2030년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전자형태로 제공** 비중 99%
- 정부기관을 위한 인력 모직, 개발 및 순환 시스템 형성
- 2030년까지 시민의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최소 50% 증가
- ICT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주권 및 정보보안 보장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성숙도 지표: 교육, 보건, 행정, 대중교통, 도시경제
- 계획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 성숙도 달성: 2021년 계획 56.2%에서 65.8%, 2023년 계획 64.2%에서 실제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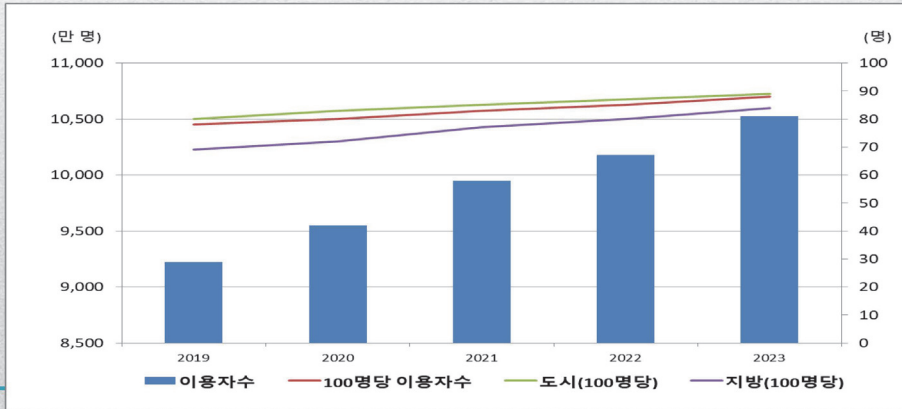
출처: Проектный офис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АНО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Минцифры. Белая книга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2023, p. 9.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1) 사회적 측면: 인터넷 이용 확대

- 인터넷 이용자수 증가: 2019년 9,225만 명에서 2023년 1억 525만 명
- 도시와 지방간 격차 감소: 2019년 100명당 11명에서 2023년 5명으로 차이 감소
-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



출처: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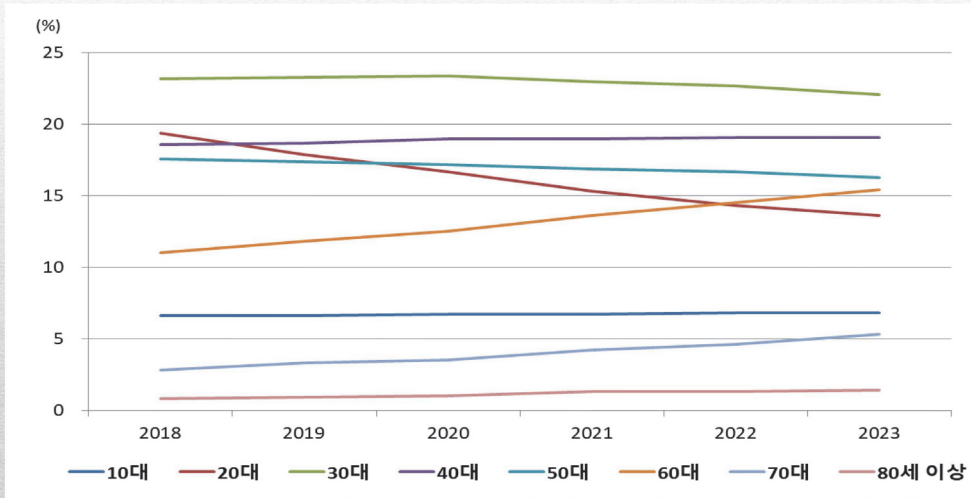
지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2021년 지역별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채택
 -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6개 분야로 추진: 보건, 교육, 교통, 도시환경발전, 행정, 사회
 - 지역경제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산업, 건설, 스포츠, 농업 등
ex) 타타르스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15개 산업
 - 인공지능 기술 기반, 자국산 SW 이용 및 SW-HW 복합단지 도입
 - 2024년 12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경제' 국가프로그램과 지역 발전 전략 통합 강조: 인터넷 접근 향상 및 인프라 발전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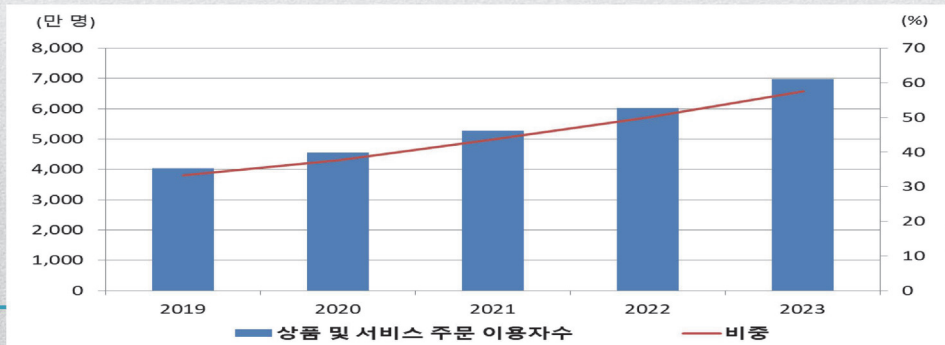
출처: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2) 경제적 측면: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 2020년 러시아 정부의 락다운 조치로 온라인 구매 증가
 - 식품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 2020년 eGrocery 16%
 - 고령층의 이용 증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24.7%(2019)에서 27.7%(2020)
 - 2020년 '의료용 의약품 소매판매에 관한 대통령령' 채택
- 팬데믹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추세



출처: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전체 (15세 이상)	50 - 54	55 - 59	60 - 69	70 - 79	8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상품 및 서비스 주문 이용 비중						
2019	33.3	29.3	22.0	11.6	3.6	1.4
2020	37.7	35.7	25.8	13.8	4.3	1.1
2021	43.7	43.5	34.6	19.7	8.4	2.7
2022	50.1	52.4	42.9	24.4	8.6	1.8
2023	57.5	62.9	52.6	32.6	12.5	2.8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상품 및 서비스 주문 이용 비중						
2019	41.3	33.3	27.8	19.3	12.0	10.6
2020	45.8	39.5	30.8	21.5	12.9	9.0
2021	51.1	46.6	39.0	26.9	19.3	13.8
2022	57.4	54.7	46.1	30.8	17.9	10.4
2023	64.1	64.6	55.2	38.2	22.2	12.7

출처: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기술적 측면: 자국산 SW 이용 가속화

- 지속적인 수입산 SW 대체 정책 추진
 - SW 수입대체계획(2015), 외국산 SW 조달금지(2015), 특정 유형의 외국산 제품 조달 금지(일부 SW 포함, 2019)
 - '디지털 경제' 국가프로그램의 세부목표에 자국산 SW 이용 확대(2017)
 - 특정 전자제품(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등)에 자국산 SW 사전 설치(2021)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산 SW 이용 확대
 - 2022년 3월부터 주요 정보인프라 부문에서 외국산 SW 및 서비스 조달 금지 강화
 - 2025년 1월부터 주요 정보인프라 부문에서 외국산 SW 이용 전면 금지
 - 러시아산 SW 출시 증가: 2022 119%(254억 루블), 2023년 49%(367억 루블) 증가
 - 현재 운영시스템, 오피스, 가상화시스템, 분석용 프로그램 복합체, 정보보안도구, 로봇화용 플랫폼, 음성 로봇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러시아산 SW 이용 가능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기술적 측면: AI 발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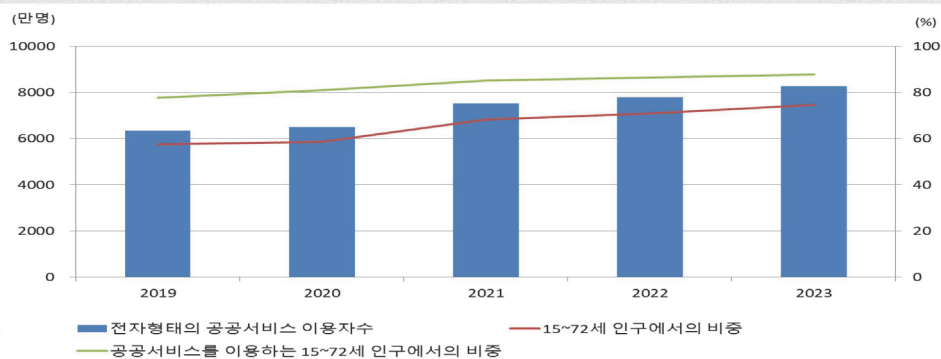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 분야
- AI 발전 전략
 - AI 발전전략 채택(2019), AI 발전전략 업데이트(2024)
 - '디지털 경제' 국가프로그램에 AI 연방 프로젝트 별도 포함(2021)
 - 2022년 국가 AI 발전센터 설립
 - 2024년 AI 연방프로젝트가 '2025~2030년 '데이터 경제' 국가프로젝트에 포함
- 2023년 러시아 AI 시장
 - 규모: 6,500억 루블(전년대비 18% 증가)
 - 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팅 파워 세계 10위
 - 경제 우선순위 분야에서 AI 구현 수준: 31.5%
 - 1,000개 이상의 기업이 AI 분야 종사, 90개 이상의 연구센터

Ⅲ.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3.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4) 행정적 측면: 전자형태의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팬데믹 이후 디지털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
- 2021년 '디지털 전환 전략' 일환으로 '국가행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전략적 방향' 채택, 2024년 갱신
- 현재 우체국, 주민행정센터 등에서 온라인 이용 전면 확대



출처: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V. 나가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2010년부터 디지털 전환 현상 대두
-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러시아 역시 디지털 전환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노력

포스트 팬데믹 시대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 인터넷 이용 확대(도시와 지방간 격차 감소,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자국산 SW 이용 증가 및 AI 발전 가속화, 국가행정의 디지털화 가속화
-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더욱 확대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라시아 국가의 과학기술 동향 분석

최배성 (한양대)

목차



1. 서론
2. 국가별 과학기술 동향 분석
3. 과학기술 협력 및 갈등
4. 기술 자립 및 혁신 동향
5. 지정학적 변화와 국제협력
6. 결론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 목적
- 1-3. 연구방법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동향과 대응

❖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과학기술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음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군사 기술, 사이버 보안,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연구 인프라 파괴와 인력 유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재건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방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유라시아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대응 전략과 협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1-2. 연구 목적



◆ 전쟁 이후의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연구개발 동향분석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R&D) 활동을 분석하는 데 목적

❖ 연구는 각국의 과학기술 중점 분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을 파악하여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방향성을 제시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둠:

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각국의 과학기술 중점 분야는 분석하고, 그것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국제 사회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5

1-3. 연구방법론



◆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 동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론을 혼합하여 사용
 - 이를 통해 국가별 과학기술 정책 변화, 국제 협력 동향, 기술 자립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 연구방법론
 - **데이터 포화 분석법:** 각국의 과학기술 보고서와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과학기술 투자 동향 및 정책 변화를 분석
 -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OECD, Nature 등 과학기술 통계 자료, (각국의 관련 과학기술 정부 보고서 포함)
 - **데이터 수집 방식:** 각국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를 조사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6

2. 국가별 과학기술 동향 분석

2-1. 러시아

2-2. 우크라이나

2-3. 카자흐스탄

2-4. 우즈베키스탄

7

2-1. 러시아 과학기술 동향



◆ 서방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과학기술 자립 및 혁신전략

❖ 서방 제재에 따른 변화

-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음
- 특히, 첨단기술 제품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 제한이 주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타격을 입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는 과학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함

❖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s)

- NTI는 러시아 정부가 2014년부터 시작한 장기적인 기술 혁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첨단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보안 등 핵심 분야에서 자국의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
- 특히 서방의 기술 제재로 인한 전자 및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국가적인 기술혁신정책을 도입
- 러시아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

❖ 러시아의 방위기술 발전

- 러시아는 군사 및 방위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서방제재로 군사 장비와 관련된 수입이 제한되었지만, 자체적인 연구개발로 무인기 및 미사일 기술에 큰 진전을 이룸
- 특히, 무인 항공기(UAV)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NTI의 실제 성과

- NTI를 통해 자국의 AI와 로봇 기술에서 일부 성과를 거둠
- 2023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자동화 및 의료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외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

8

2-2. 우크라이나 과학기술 동향



◆ 우크라이나 과학기술 인프라의 파괴와 국제협력을 통한 재건 노력

❖ 전쟁으로 인한 연구 인프라 파괴

-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음
- 주요 연구기관들이 파괴되거나 폐쇄되었고,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인프라 40% 이상이 손실
- 키이우 같은 주요 도시의 연구소들이 폭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연구자들의 업무도 중단

❖ 두뇌 유출(Brain Drain)

- 전쟁으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주
- 2022년 말까지 약 2만 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서방국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두뇌 유출은 우크라이나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손실을 초래
-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이 유럽의 연구기관과 협력하면서 일부 연구가 국제적으로 재개되기도 함

❖ 국제 지원과 협력

- EU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 EU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이 유럽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정보보안 기술 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및 방위 기술 분야에서의 재건

- 전쟁으로 인해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주력
-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9

2-3. 카자흐스탄 과학기술 동향



◆ 신재생에너지와 방위 기술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국방력 강화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인 "Nur Alem Solar Park"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방위 기술 분야의 발전

-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통해 무기 개발 및 군사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음
- 무인기 및 사이버 보안 기술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기술들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나타남

❖ 국제 협력 및 서방과의 협력

-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EU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AI 연구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10

2-1.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 동향



◆ 농업 기술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및 방위산업 발전 전략

❖ 농업 기술 혁신

- 농업 중심 국가로서 농업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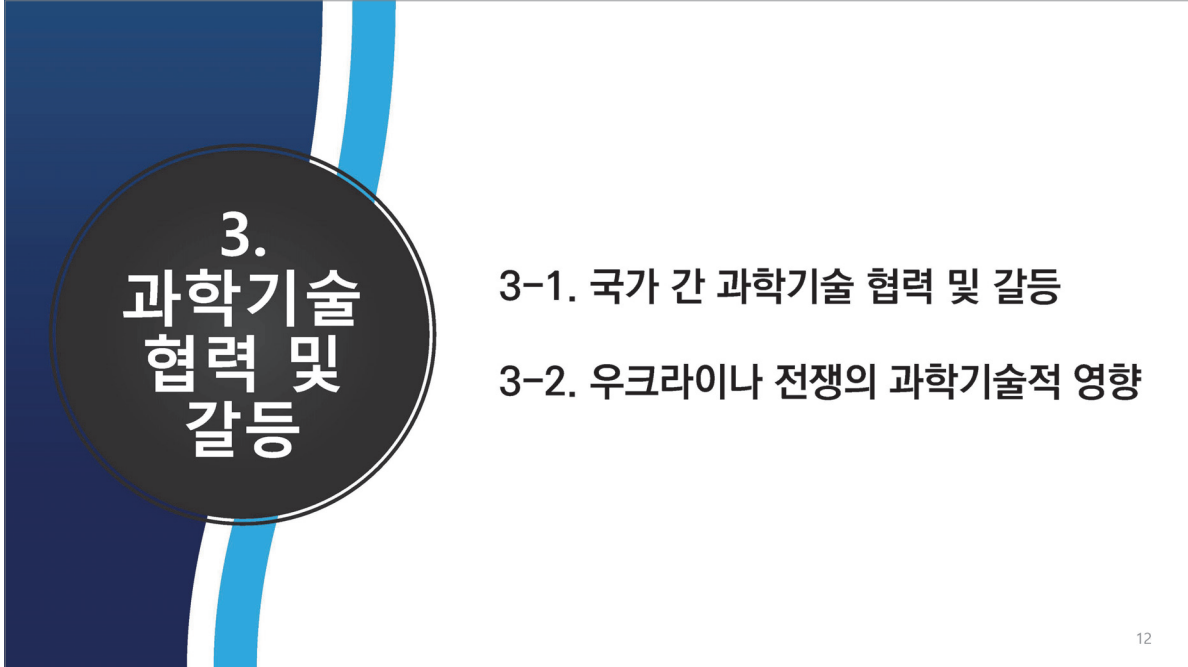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

❖ 방위산업 발전

- 군사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러시아 및 터키와 협력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무인 항공기(UAV)와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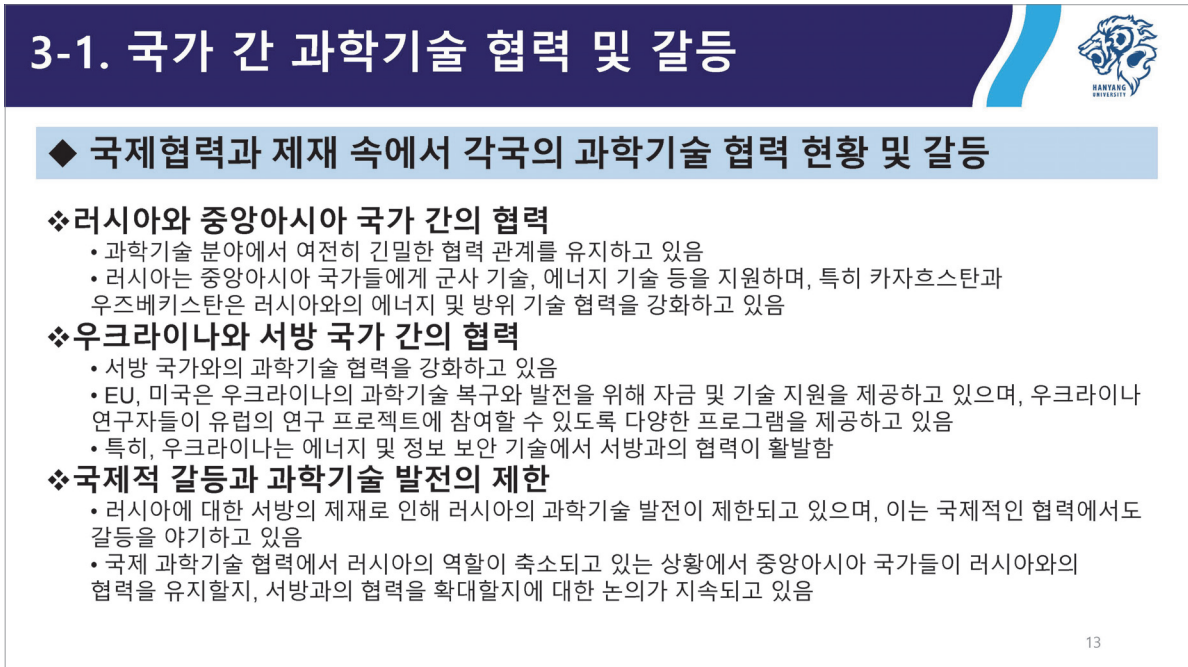


3.
과학기술
협력 및
갈등

3-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및 갈등

3-2.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학기술적 영향

12



3-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및 갈등

◆ 국제협력과 제재 속에서 각국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 및 갈등

-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군사 기술, 에너지 기술 등을 지원하며,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및 방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간의 협력
 - 서방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EU,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복구와 발전을 위해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이 유럽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및 정보 보안 기술에서 서방과의 협력이 활발함
- ❖ 국제적 갈등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한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과학기술 발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협력에서도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할지,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13

3-2.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학기술적 영향



◆ 전쟁으로 인한 과학기술 인프라 파괴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복구 노력

❖ 전쟁의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파괴

-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특히 연구기관과 대학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음
-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150개 이상의 과학 연구소 및 고등교육기관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과학기술 연구의 중단을 초래했으며, 특히 방위기술과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피해가 컸음

❖ 연구자들의 대규모 이탈

- 전쟁 초기부터 많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대피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연구인력이 크게 감소
- 이러한 두뇌 유출은 국가의 연구 역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남아 있는 연구자들은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지속함
-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 국제 사회의 과학기술 지원

- EU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의 연구기관 복구와 정보통신 기술 재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예로, EU는 우크라이나 연구자들이 유럽 내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파괴되었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정부는 전쟁 후 복구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음

14

4. 기술 자립 및 혁신 동향

4-1. 러시아 제재와 과학기술 자립 노력

4-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4-3. 에너지 및 방위 기술 동향

4-4. 기술적 자립과 혁신 동향

15

4-1. 러시아 제재와 과학기술 자립 노력



◆ 서방 제재 속 러시아의 과학기술 자립 및 방위 기술 강화 전략

❖ 서방 제재로 인한 과학기술 제한

-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과학기술 협력에서도 제약을 받음
- 특히, 첨단 기술 수입이 제한되면서 반도체, 정보통신, 항공우주 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음
- 이로 인해 자국 내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함

❖ 첨단 기술 자립 프로그램

- 정부는 NTI 외에도 수입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기술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반도체, 전자 제품,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함
- NTI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자국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고, AI, 로봇공학, 정보보안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과학기술 협력의 변화

-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방위기술 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 방위 기술 개발 강화

- 서방의 제재로 인해 군사 장비 수입이 제한되었지만, 자체적인 방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항공 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16

4-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국제 협력 확대

❖ 카자흐스탄의 과학기술 전략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
-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확장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예로, 카자흐스탄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 농업 기술과 에너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정부는 2025년까지 농업 생산량을 30% 증가시키기 위해 정밀 농업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자국 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국제 협력과 기술 수입 대체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방위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방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기술 및 에너지 기술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17

4-3. 에너지 및 방위 기술 동향



◆ 에너지 자립과 방위 기술 발전을 통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안보 강화 전략

❖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

- 유라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소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예로,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 중 하나를 건설 중이며, 이로 인해 국가 에너지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방위 기술의 발전

- 유라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특히, 무인 항공기(UAV)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사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무인기 개발을 통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에너지와 방위 기술의 상관관계

- 에너지 자립과 방위 기술의 발전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
-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방위력이 취약해질 수 있고, 따라서 유라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하여 방위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음

18

4-4. 기술적 자립과 혁신 동향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기술 자립 및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과 사례

❖ 러시아의 기술 자립 노력

- 서방 제재로 인해 기술 수입이 제한된 러시아는 자국의 기술적 자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고 있음
-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독립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 과학 연구기관인 스크코보 연구소는 자국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2023년까지 여러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혁신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기술과 농업 기술에서 자립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방 국가 및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예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
- 카자흐스탄은 EU와의 협력을 통해 AI 및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혁신 사례

- 카자흐스탄의 KAZNEX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전통적인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혁신 기술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2022년에는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둠

19

5. 지정학적 변화와 국제협력

5-1.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과학기술에 미친 영향

5-2. 국제협력 사례 및 정책 변화

20

5-1.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과학기술에 미친 영향

◆ 지정학적 불안정 속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협력과 발전 전략

- ❖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과학기술 발전의 관계**
 -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이는 과학기술 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특히 러시아는 서방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기술 수입이 제한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및 중동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과학기술 지원을 받고 있음
- ❖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협력**
 -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간의 기술 협력은 더욱 긴밀해 졌음
 -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을 수입하고 있으며,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 협력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의 기술 협력**
 -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
-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유럽과 중국, 러시아와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과 협력하는 한편, 방위 기술 개발에서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 **국제 협력의 필요성**
 -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은 기술 자립을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와 기술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함.

21

5-2. 국제협력 사례 및 정책 변화



◆ 각국의 과학기술 협력과 기술 자립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

❖ 러시아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협력이 단절된 러시아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반도체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이 두드러지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협력

- EU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EU는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럽의 AI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과 서방의 기술 협력

-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 기술 및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음
- 예로, 우즈베키스탄은 독일의 농업 기술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작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둠

❖ 국제 협력의 중요성

-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다자간 협력은 기술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2

6. 결론

6-1.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6-2. 결론

6-3. 참고문헌

23

6-1.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정 속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자립 및 강화 전략

- ❖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 유라시아 국가들(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재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술적 자립과 에너지 및 방위 기술 강화**임
 - 예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주요 연구 인프라가 파괴되고,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자국 기술 자립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및 방위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4

6-1. 결론



-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 협력 사례를 통해 기술 자립과 혁신 노력을 탐구함
-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속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방위 기술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립과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 서방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유라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기술 자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결론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이 전쟁 이후 과학기술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자국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6-3. 참고문헌



- Irwin, A. (2023). "The fight to keep Ukrainian science alive through a year of war". Nature.
- European Commission (2023).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on EU research and innovation".
- OECD (2023).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OECD Publishing.
-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NTI) 공식 사이트.
- Kazakhstan Ministry of Energy (2022). "Kazakhstan's Renewable Energy Strategy".
- UNESCO (2023). "Ukraine: Science and education at risk".
- World Bank (2023). "Russia's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Sanctions".
- Uzbek Ministry of Innovation Development (2023).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2023-2030".
- OECD (2023). "Geopolitical Instability and Its Imp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 Russian Ministry of Defence (2022). "Military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Kazakh Ministry of Innovation (2023). "KAZNEX: Kazakhstan's Innovation and Export Development Program".
- European Union (2023). "EU-Kazakhsta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